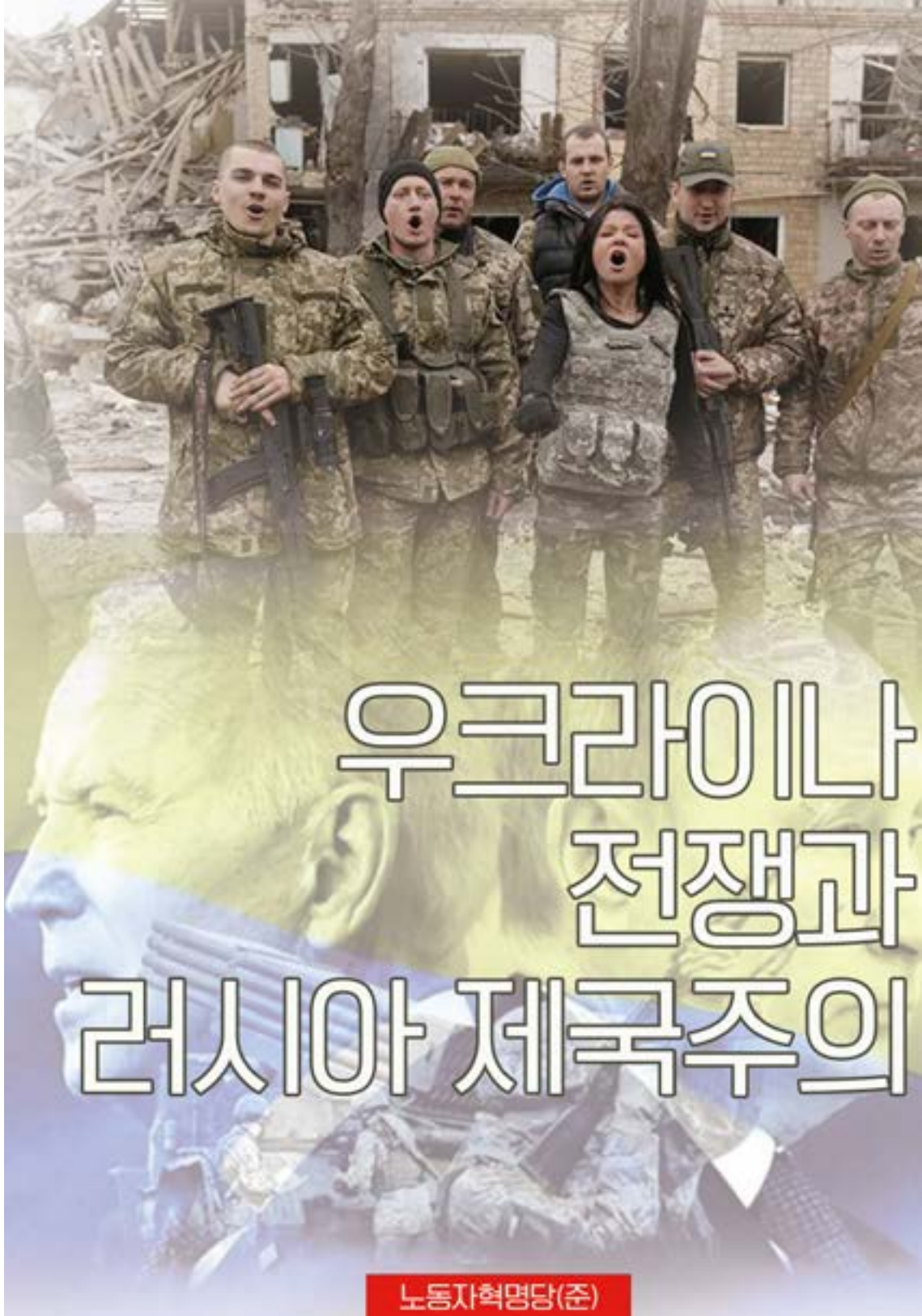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

노동자혁명당(준)

차 례

1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의미

1.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006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012

2부: 러시아 제국주의 평가분석

3. 러시아가 "신식민지적 경제"라고? 032
4.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048
5. 러시아 독점자본: 제조 기업에서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 084

3부: 전쟁 전야

6. 나토도, 러시아도 다 반대!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도하자! 096
7.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102
8. 푸틴의 푸들들 112
9. [Q&A] 우크라이나와 임박해 있는 러시아의 침공 160

4부: 개전 이후 전술과 논쟁

10.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170
11.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180
12.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192
13.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202
14. 대러시아 배외주의 논설이 밝힌 파쇼 프로젝트 216
15.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222
16.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238
17.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254
18.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266
19.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276
20. 러시아와 "차악" 제국주의 이론 302
21.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322
22.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334
23.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340

I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의미

1.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러시아도, 나토도 다 반대, 제국주의 열강 모두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독자 민중투쟁 찬성!
▷노동자정부 수립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제국주의 제재 반대!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만세!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긴급성명
2022년 2월 24일
www.thecommunists.net

1. 몇 시간 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각 도시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데사, 마리우폴, 하르키우, 드니프로, 그리고 수도 키이우 등에는 폭탄이 투하되고 있다. 동시에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이다.

2. 푸틴은 이 전쟁의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 탈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연히, 이건 양두구육의 거짓말이다! 진짜 목표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세력권을 확대하고 라이벌 나토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및 중국)를 편 드는 사회제국주의적 "좌파" 정당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는 반대로, 이것은 어떤 잣대로도 "진보적" 전쟁 또는 "반파쇼"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3. 미국 ·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정확한 대응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러시아에 대해 광범위에 걸친 대규모 경제 · 금융 제재를 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써 강대국 패권경쟁 격화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면서 제국주의 세계질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도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한 점 유보 없이 규탄하는 바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광범위에 걸쳐 제시해온, 이 분쟁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재확인한다. 이 전쟁은 강대국들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대대적인 가속화의 결과물이다. 2014년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운동을 통해 권력에 오른 우익 정부와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사실상 나토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인 반면, 후자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가 모든 강대국의 지배계급을 자극하여 국내외에서 도발 · 공격을 강화하도록 몰고 가고 있다.

5. 노동자 · 민중은 제국주의 진영 어느 측도 편 들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거듭 밝힌다. 노동자 · 민중은 비타협적으로 모든 강대국들 – 미국, 러시아, 중국, EU, 일본 – 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배외주의적 전쟁몰이와 제재로부터 군사공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도발 · 공격을 거부해야 한다. 또 우리는 제국주의 어느 한 진영을 편 드는 – 공공연

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 모든 “진보” "좌파" 정당을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푸틴주의 좌파, 즉 친러 스탈린주의 · 볼리바르주의 당들과, EU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유럽좌파당(ELP), 그리고 이 분쟁에서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와 그의 맹우들을 규탄한다.

6. 우리가 지난 문서에서 밝혔듯이,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항의행동들을 지지해야 한다. 수많은 벽 낙서들이 "Нет войне (전쟁 반대)"를 내걸고 거리에 등장한 것은 고무적인 징후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нетвойне 해시태그도 유포되고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방침이 "주적은 나라 안에 있다!" 구호와 "총구를 돌려라" 구호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전략 목표의 중요한 일부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전면 지지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 (KPRF)과 같은 스탈린주의 배반자들을 규탄해야 한다.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자들을 규합하는 것이 임무다.

7.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임무에 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노동자 · 민중은 러시아군에 의한 대대적인 폭격과 침공을 겪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서방 제국주의의 겁쟁이 따까리다. 젤렌스키의 "방어" 정책은 나토더러 러시아를 공격해줄 것을 애처로이 호소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그런 괴뢰 정권으로는 우크라이나 방어가 가능하지 않으며 방어되어서도 안 된다!

8. RCIT는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내건다. 우리는 대(大)러시아 배외주의 (쇼비니즘)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로서의 존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한다. 독립 우크라이나 국가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을 비롯한 모든 민족 소수자의 권리를 – 분리 독립의 권리를 포함하여 – 인정해야 한다.

9. 우리는 독립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한다. 그러한 저항투쟁은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서방 제국주의가 러시아 제국주의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나토, EU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외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하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독립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에 많은 인민들이 배웠던 교훈이다. 1995년 나토의 개입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 군대로부터 영웅적인 조국해방투쟁을 전개하다 저지당한 보스니아 인민의 운명을 상기하라. 오늘날까지, 보스니아 인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어느 진실된 사회주의자도 우크라이나의 인민이 이러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지 않는다! 분명히 하자. 우리는 러시아 식민지도, 나토 식민지도 아닌 독립 우크라이나를 원한다.

10.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의 노동자 · 민중은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공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토 제국주의에 반대할 수 있다. 현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 · 민중의 민병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생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러시아의 반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인

민들 (예를 들어 체첸, 시리아 인민)과도 긴밀한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적은 러시아 인민이 아니라 푸틴 정권과 그 마름들 (스탈린주의 KPRF를 포함하여)이다!

11. 동지들, 형제자매들! 우리는 세계정세의 역사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RCIT는 10여 년 전부터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이 세계정세를 틀 짓는 핵심 축임을 강조해왔다. 이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없이는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것 없이는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피억압 인민들을 지지하는 것 없이는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우리는 나토 제국주의자나 그들의 괴뢰 젤렌스키 정권에게 어떠한 지지도 주지 않고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영웅적인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또 우리는 도살자 푸틴과 그의 반동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용기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도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의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싸우는 혁명세계당 건설에 RCIT와 함께 하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독자 민중투쟁!
◦ 노동자 민병 창설을 지지하라!
◦ 노동자정부 수립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 독립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EU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하는 속에서만 가능하다!
◦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만세!
◦ 제국주의 제재 반대!
◦ 러시아 점령에 맞서 싸우는 체첸·시리아 인민들과의 연대를!
◦ 노동자·피억압자여! 양 진영 모든 강대국들과 싸우자!

RCIT 국제사무국 & RCIT 러시아 합동 채택

* * * *

독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 참조를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 현 사태는 오는 시기 혁명 전략의 핵심 시험대다

<차례>

- 들어가며
-현 충돌의 이중적 성격과 우리의 전술
-왜 이런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가?
-기회주의 좌파의 정치적 파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
-"덜 악랄한 제국주의": 제국주의 차악론
-평화주의와 반동적 기권주의: 사회제국주의의 변종
-교훈을 배우자, 배신자들과 단절하자!

들어가며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들 간 긴장 고조의 역사적 의미를 반복해서 짚어왔다.[1] 우리는 이 사건들이 세계정세에 첨예한 단절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결과와 파장을 미칠 사태라고 설명했다.[2]

이 글에서는 우리의 평가분석을 반복하기 보다는, 관련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현 충돌을 근본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오는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전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올바른 전술적 결론을 도출하느냐 못하느냐는 사회주의 조직이 그러한 역사적인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준다. 그것이 역사적인 시험인 이유는 현 세계정세에 이 사건이 갖는 결정적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주의 세력들이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는 세력, 올바른 교훈을 끌어내지 못하는 세력은 앞으로 노동자 · 피억압자의 해방투쟁에서 그러한 배반을 되풀이할 운명에 있다.

현 충돌의 이중적 성격과 우리의 전술

2월 24일 개전 이래로 RCIT 문건들에서 보여주었듯이, 현 충돌은 복합적, 모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본 책자에도 수록되어 있는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2)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

수많은 개량주의 · 중도주의 좌파들이 반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개전 며칠 뒤 발표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 · 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일탈 –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대 강대국 진영 간 긴장 고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 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 미 · 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 – 를 이용하려고 한다."[3]

현 충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우리가 이 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본질에서 달라진 것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방위 전쟁은 진보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반동적 성격을 인식한다. 이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와 나토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는 다음의 슬로건으로 우리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왜 이 같은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순적 성격을 가진 유사한 사건들이 오는 시기에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다.

▷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깊은 위기가 모든 강대국들을 추동하여 세력권을 확장하도록 한다.[4] 따라서 이들 강대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반식민지 나라들을 –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 예속시키려고 할 것이다.

▷ 같은 이유로, 이들 강대국의 이해는 점점 더 사납게 충돌할 것이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제재, 더 많은 군사적 위협 등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공공연한 전쟁 위험이 커질 것이다.

3)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에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 따라서 강대국이 경쟁국이 연루된 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에 따라 한 제국주의 진영이 경쟁 제국주의 진영의 공격에 처해 있는 상대에게 무기를 보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 나라들이 젤렌스키 정부에게 군사 원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 자본주의 위기 시기에 그러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보아왔다. 1916년 아일랜드 부활절 봉기에 대한 독일의 지지, 또는 1차 세계대전 중 아랍 반란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예로 들 수 있다.[5]

1937년 이후 중일전쟁에서 미 제국주의가 반동 장개석 정부에 원조를 보내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한 경우가 또 다른 예다.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중일전쟁에서 중국 측을 지지하는 한편, 계속해서 일제와 미제 양측 모두에 반대했다.[6]

그리고 복합적 성격의 사건을 하나 더 들자면 2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는데, 이 전쟁은 한편으로 독일 · 이탈리아 · 일본이 서방 연합국에 맞서 싸우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었다. 이 충돌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진영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는 또 하나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 제국주의에 맞서 소련 (퇴보한) 노동자국가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중국 반식민지가, 그리고 나치 점령통치에 맞서 유럽의 피억압 인민이 싸우는 전쟁이 그것이다. 이러한 충돌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정의의 해방 전쟁을 지지했다.[7]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경우에서든 해방투쟁에 제국주의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인민 반란과 인민 전쟁의 진보적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레닌은 제국주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피억압자의 정의의 해방 투쟁에 대해 맑스주의자가 어떠한 접근태도를 취할지 다음과 같이 총괄 정리해주고 있다.

> "현 전쟁에서 교전국 총참모부들은 적 진영에서의 그 어떤 민족혁명적 운동이든 다 이용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이용하고 프랑스인들은 체코의 운동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가장 사소한 약점까지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굴러 들어오는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이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말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힘으로 화약고가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가 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불러오는 단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모든 인민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혁명가일 것이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수천 가지 어조로 모든 민족 억압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되풀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억압 민족의 어떤 계급의 가장

5)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중 10장의 '1916년의 아일랜드 반란'을 보라.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3-100쪽.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본 책자에도 수록).

7) 2차 세계대전 및 그 안에서의 서로 다른 유형의 충돌들에 대한 맑스주의적 성격규정으로는, 다음을 보라. Ernest Mandel: The Meaning of the Second World War, Verso, London 1986. 다음도 보라. Michael Probsting: <해방투쟁과 제국주의 개입 - 2011년 리비아 민주주의 혁명과 종파주의적 "반제국주의"의 실패>, 2012년 가을, https://blog.wrpkorea.org/2022/05/2011.html

기동성 있고 계몽된 부분이 그 억압자들에 대항하여 일어선 영웅적인 반란을 '폭동'이라고 묘사한다면, 우리는 카우츠키주의자들과 같은 수준의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릴 것이다."[8]

기회주의 좌파의 정치적 파산

실제로, 많은 자칭 "좌파" 단위들이 현 충돌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며, 그리하여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길 거부한다. 최근 발표한 세계정세에 관한 문서에서 우리는 이들 기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반동적인 흐름을 확인한 바 있다.

"i) 사회제국주의 흐름: 즉 제국주의 강대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조류들 (러시아를 지지하는 각종 스탈린주의 당과 볼리바르주의 당, EU 제국주의의 독자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심지어는 스페인에서처럼 EU 정부에 참여하는 유럽의 전 스탈린주의 당과 좌익 포퓰리즘 당).

ii) 사회평화주의 흐름 :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쟁의 물질적 기초 — 자본주의 — 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시키지 않고 그냥 무력한 "평화"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또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억압 인민의 진보적 전쟁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과 같은)과,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 없는 반동적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투쟁방향과 전술이 없는 무 내용의 "전쟁 반대"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모든 종류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개량주의자 등).

iii)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민족 예속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민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정의전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지엽말단으로 부차화 시키는 조류. (그리스공산당과 가까운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과 CWI, ISA, IMT, IST, PTS/FT 등 여러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9]

우리는 이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와 유사한 향후의 충돌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방 열강 (미국, 서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신흥 열강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10]뿐만 아니라 중국 제국주의[11]도 광범

8)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9-100쪽.

9)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10)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우리의 다음 문서들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1).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우리의 다음 문서들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위에서 언급한 책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

위하게 평가 분석했는데 관심 있는 독자들은 우리의 관련 문서들을 참조하길 권한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충돌이 이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성에 대한 인식은 나토와 러시아 간 충돌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양측 모두 반동적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해야 하는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이 나토 대 러시아 간 분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12]

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의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는 관련 문서들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2)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에 관한 RCIT의 많은 문서들이 다음 웹사이트 상의 2개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38.html/;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13) 다음을 보라.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본 책자에도 수록).

14) 다음을 보라. Michael Probsting: NATO-Russia Conflict: "Trotskyists" in the Camp of Russian Imperialism. The Argentinean "Partido Obrero" calls for "national emancipation and integrity" of the Eastern Great Powers, 26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rotskyists-in-the-camp-of-russian-imperialism/

15)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1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본 책자에도 수록)

16)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2022년 3월 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

러시아 제국주의 (및 중국 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하길 거부하는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향후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억압 인민의 편을 드는 데 실패하기 쉽다. 또 제국주의 간 분쟁에서도 강대국 모두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하기 쉽다.

우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그러한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수많은 예를 보아왔다.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13], 아르헨티나 PO(노동자당)[14]와 그 계열 (DIP, EEK 등), PTS/FT[15], 앨런 우즈의 IMT[16], 피

터 타페의 CWI, 이른바 스파르타시즘 패밀리의 각종 스탈린 애호가 그룹들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들 세력이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다른 피억압 인민 또한 방어하길 거부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몇몇 예를 대자면, 스탈린주의 당들이 도살자 아사드에 대항하여,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항하여 시리아 혁명을 지지하길 거부한 것, 러시아의 점령에 대항하여 체첸 인민을 지지하길 거부한 것, 서방의 점령에 대항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을 지지하길 거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17] (스파르타시스트뿐만 아니라) IMT, CWI, PTS/FT도 반란 초기 몇 년 뒤에는 시리아 인민을 편 들길 거부했다.[18] 마찬가지로, 이 조직들 중 대부분은 1982년 말비나스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지지하는 데 실패했거나,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여 하마스를 편 드는 데 실패했다.[19]

여기에는 내적 논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러·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는 것은 반동 정권 및 권력에 대항하여 피억압자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 조직들은 계속해서 사회제국주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피억압자 진영에 합류하길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그러한 세력들은 양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 계속해서 실패할 공산이 크다. 그러한 실패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또는 그러한 실패가 이 중·러 제국주의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러한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서방 제국주의만 비판하고 중·러 제국주의는 비판하지 않는 (또는 단지 부차적으로만 언급하고 마는) 경우다.[20]

"덜 악랄한 제국주의": 제국주의적 차악론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제국주의는 양 진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러한 평가로부터 나오는 반제국주의적

blog-post_561.html/. (본 책자에도 수록); 같은 저자, NATO-Russia Conflict: The Anglo-Saxon 'Marxist' Tendency. On the IMT's confusion about the role of Russian imperialism, 31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anglo-saxon-marxist-tendency/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ⱺbsting: Afghanistan and the Left: Closet Social-Imperialism. A critique of reformist and centrist forces which are outraged about the Taliban's victory against the U.S. occupation in Afghanistan, 24 Sept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fghanistan-and-the-left-closet-social-imperialism/

18) 다음을 보라. Michael Prⱺ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ⱺ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2021년 3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5.html/; 같은 저자,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위에서 언급한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도 보라.

결론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기회주의 좌파들의 정책이다. 실제로 이들은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 대(對) "덜 악랄한 제국주의"라는 대결 구도를 내세운다. 즉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이라도 “해악의 경중이 있”음을 내세워 “차악” 제국주의 이론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1935년 서방 열강이 나치 독일에 비해 "덜 해악적인" 제국주의가 되었다고 보아 프랑스 제국주의와 조약을 체결하고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차악론을 도입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제재를 거부하는 데 실패하는, 심지어는 내놓고 지지하는 조직들에게서 비슷한 예를 본다.[21]

오늘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에서 일관된 패배주의 노선을 취하지 못하는 세력들, 한 강대국이 경쟁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또는 외교적 도발 · 공격 행위를 지지 (“비판적”으로든, 무비판적으로든) 할 수 있다고 보는 세력들은 필연적으로 향후에도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적 투항을 반복할 것이다. 그 어느 사회주의자도 이러한 충돌에서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을 지지하길 일체 거부하는 것이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주의와 반동적 기권주의 : 사회제국주의의 변종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른 반동적 정책을 취하는 두 흐름이 평화주의와 반동적 기권주의다. 이 두 유파도 피억압자의 해방투쟁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우리의 또 다른 논설에서 평화주의 강령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동적 기권주의 흐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22]

많은 "좌파" 세력들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나토 대 러시아 간 충돌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크라이나 저항의 정당한 민족적 · 민주적 성격을 무시한다. 그들은 그 전쟁이 아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단지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은 레닌이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라고 부른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피억압 인민의 민족적 · 민주적 투쟁의 진보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투쟁을 추상적, 일반적 "반제국주의"에 종속, 부차화 시키는 노선이다.

그러한 반동적 기권주의 노선의 예로는 그리스공산당(KKE) 및 그와 가까운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뿐만 아니라, 토니 클리프의 전통에 있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 등의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이 있다.[23]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들 세력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오랜 전통에 바탕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고, ISA와 IST도 뒤에 가서

2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obsting: Crossing the Line. A critique of Murray Smith’s article “Four points on the war in Ukraine” which falls into line with NATO in the name of solidarity with the Ukraine, 12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murray-smith-is-crossing-the-line/

22)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2022년 5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55.html/. (본 책자에도 수록).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ISA, by opposing the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to fight Russian imperialism, serves Russian imperialism, 14.04.2022, https://the-isleague.com/the-isa-by-opposing-the-delivery-of-weapons-to-ukraine-to-fight-russian-imperialism-serves-russian-imperialism/

는 시리아 민중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했다.[24] ISA와 IST는 이미 1982년에도 제국주의 영국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다.[25] 그들은 또 영국의 점령에 대항하여 아일랜드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 부끄러운 전통도 공유하고 있다.[26]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들 스탈린주의 조직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은 계속해서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피억압 인민을 지지할 수 없는 구실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정의의 해방투쟁을 편 드는 데 계속해서 실패해 온 세력들, 오류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은 객관적으로 피억압 인민의 배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억압자의 사회제국주의적 지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지점에서 덧붙이자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충돌은 언제든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말했듯이, 이 전쟁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전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당치 않는 짓이다. 예를 들어, 나토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그러한 전화, 즉 정의의 민족 방위 전쟁에서 제국주의 대리전으로의 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전화가 일어난다면, 혁명가들은 전술을

24) 위에서 언급한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o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25) 위에서 언급한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책자를 보라. League for a Revolutionary Cmmunist International: The Death Agony of the Fourth International and the Tasks of Trotskyists Today,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nker_7/; The politics of the SWP – a Trotskyist critique (1993), https://fifthinternational.org/content/politics-swp-trotskyist-critique/

바꿀 의무가 있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전과 함께 서방 제국주의 및 키이우의 대리인의 패전을 내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며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오늘의 사실에 바탕한다.

교훈을 배우자, 배신자들과 단절하자!

야바위 말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현 강대국들 간 대결과 같은 역사적 시험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이 교훈들을 요약 정리해 보자.

1)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평가분석을 가져야 한다. 최근 이삼십 년 사이에 이루어진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주구장창 그 이전의 역사, 이른바 "현대사"만 읊조리며 그것으로 오늘의 현실을 대체하려는 지적 나태함과 이론적 보수성이 여기서 설 자리는 없다. 그러므로 미국 · 서유럽 ·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현 시기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한 강대국에 대항하여 다른 강대국을 지지해선 안 된다. 반대로 양측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배외주의적 대국 정책 (제재 같은)도 지지해선 안 된다.

3)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억압 인민의 편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정의의 민족 방위 전쟁에 대한 지지 (군사적 원조 요구를 포함하여)와 제국주의 진영

의 패배를 제창해야 한다.

4)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평화주의에 맞서서 그것을 규탄해야 한다. 그러한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비폭력 노선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낼 뿐이다. 또 그것은 사실상 피억압자를 위한 군사적 지지에 대한 사보타지를 의미한다. 게다가 그것은 침략자가 점령지 장악을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5) 사회주의자들은 정의의 해방전쟁에서의 반동적 기권주의를 규탄해야 한다. 그러한 기권주의는 사실상 침략자 진영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제국주의/평화주의/기권주의 노선을 제창 옹호하는 조직들 일체와 단절해야 한다. 이것이 더더욱 긴요한 이유는, 이들 개량주의 · 중도주의 조직들 대부분이 그러한 반 맑스주의 정책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다.

7)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강령을 걸고 싸우는 데 실패하는 모든 조직들과 –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모두 – 단절해야 한다. 기회주의 좌파와의 명확하고 단호한 단절 없이는 피억압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압제 · 수탈과 진정으로 싸울 수 없으며, 모든 강대국에 진정으로 반대할 수 없다! 이들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은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에 방해물이다!

8)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전통에 서서 맑스주의의 원조 강령을 말과 행동으로 방어해 왔고 그것을 다년간에 걸쳐 입증해 온 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RCIT는 이 모든 동지들과의 협력을 고대한다! 오직 그와 같이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노선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는 **혁명세계당**을 재건할 수 있다!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2022년 5월 25일, www.thecommunists.net

II부

러시아 제국주의 평가 분석

3. 러시아가 "신식민지 경제"라고?

4. [레닌 제국주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5. 러시아 독점자본 : 제조 기업에서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

러시아가 “신식민지적 경제”라고?

– 민족자주파가 제국주의를 “신식민지”로 둔갑시켜 푸틴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다

노동자혁명당(준)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

민족자주파는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시작 이래로 줄곧 친러 제국주의 프로파간다를 국내에 전파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고 있다. 친러 프로파간다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러시아는 나토 · 서방 제국주의 도발의 희생자로, 나토의 동진 팽창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 대 서방 간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에서 비롯한 강도적, 약탈적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의 “반제” 저항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정당한 전쟁이다.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닐뿐더러 미 ·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제” 세력이다.

이와 같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종 논거는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는 미국 (및 서방 동맹들)밖에 없는데 그 미국과 대립 · 충돌하는 러시아가 어떻게 제국주의일 수 있는가?’ !

러시아 자체에 대한 사회구성체 평가분석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대외정책으로, 대(對)서방 관계로 제국주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자주파는 이와 같이 줄곧 비과학적, 부르주아 지정학주의 관점 (“진영 논리”)에서 푸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이러한 비 맑스주의적 논거만으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내 레닌 제국주의론을 끌어와, 경제적 토대에서 러시아는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착취당하는” 신식민지적 경제라고 주장하며 나섰다. (통일시대, <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

“신식민지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1) “국민총생산(GDP)는 한국이나 인도보다 작다.”
2) “석유와 광석과 같은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다
3)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서 러시아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1. GDP 세계 순위로 제국주의인지 “신식민지”인지 판정할 수 있다? 이게 레닌 제국주의론인가?

레닌 제국주의론에 입각해서 러시아 경제를 평가분석 할 것처럼 서두에서 운을 떼던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GDP)”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범주들을 끌어대고 있다. GDP 순위로 제국주의인지 “신식민지” 인지를 가르겠다? 그렇다면 GDP 세계 순위에서 몇 위까지가 제국주의고 몇 위부터가 “신식민지”인가? 자주파는 중국이 제국주의임을 줄곧 부정해왔다. 그런데 중

국은 GDP 순위로 압도적인 세계 2위다. 현재 확정치가 나와 있는 2020년 기준 (IMF 기준)으로, 중국 GDP(14조8천억 달러)는 1위 미국 (20조8천억 달러)의 70% 수준을 넘어섰고, 3위 일본 (4조9천억 달러)과 4위 독일 (3조8천억 달러)에 대해 각각 300%, 370% 수준이다. 자주파는 일본이나 독일이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중국 또한 제국주의 국가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중국을 GDP 순위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의 기준을 가지고 제국주의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 입각해 ▷내국 독점자본의 지배, ▷ 남반구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자본수출 및 초과착취 여부를 기준으로 중국을 제국주의로 성격 규정 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참조).

또 GDP 수준이 한국보다도 작으므로 러시아는 "신식민지적 경제"라며 한국에 빗대는 것은 한국도 GDP 수준에서 "신식민지적 경제"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 순위 8위인 이탈리아 (1조 8482억 달러), 9위 캐나나 (1조 6002억 달러)에 이어 10위 (1조 5867억 달러)다. 실질 GDP에서는 2021년에 이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자주파 스스로 기준 근거로 내세우는 GDP 규모로는, 한국과 함께 그와 엇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도 "신식민지적 경제"가 아닌가?! 그러나 G7 국가인 이탈리아, 캐나다는 외국 독점자본이 아니라 내국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이며,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자본수출로 초과이윤을 수취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그러면 한국은? 내국 독점자본 지배 및 자본수출/초과이윤 수취 같은 레닌 제국주의론의 경제적 기준에서 한국은 이탈리아, 캐나다에 비해 더 고도화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에 이어 11위로 1조4640억 달러다. (구매력 평가 기준 PPP로는 세계 6위다). GDP 세계 순위 8위부터 11위에 있는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러시아, 이 네 나라 사이에 어떤 '질적' 차이로 8, 9위는 제국주의가 되고 10, 11위는 "신식민지"가 되는 것인가? 1조 8천억 달러와 1조 4천억 달러 사이에 어느 액수 이상이면 제국주의가 되고 얼마 이하면 "신식민지"가 되는 것인가? 서두에서 <<제국주의론>>을 들먹이고는 정작 본론에서는 GDP 순위를 제국주의-신식민지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레닌 제국주의론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주파는 또 러시아를 인도와도 비교한다. 인도는 GDP 2조 5925억 달러로 (5위 영국, 7위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의) 6위다. 비슷한 GDP 규모라고 해도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인도는 반(半)식민지 나라다. 인도 경제는 외국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자본수출보다 자본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초과착취를 당하는 그야말로 "신식민지적 경제"다. 이런 "신식민지적인" 인도가 6위의 GDP 규모를 갖게 되는 배경은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인구 대국 조건의 힘이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1억 4천만 인구로 인도의 10분의 1이다. 이런 인구 대비 속에서 러시아가 인도보다도 GDP 수준이 작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신식민지적인 인도보다 GDP가 작으므로 러시아도 신식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GDP 수준은 해당 국가의 계급적 성격 규정을 위한 기준,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 반식민지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자주파도 레닌 제국주의론을 전거로 거론한 이상 내국 독점자본 지배 및 자본수출/초과이윤 수취를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연 "신식민지적 경제"인지 아니면 제국주의 경제인지 평가분석 해야 한다.

2. 러시아는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인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내국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인가?

이제 자주파가 러시아를 “신식민지적 경제”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 (“석유와 광석과 같은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다)와 관련하여 러시아 경제의 내국 독점자본 지배 여부를 살펴보자. 러시아를 마치 공업화가 안 된, 부존자원이나 내다 파는 ‘저개발’ 경제처럼 묘사하고 있다. 루크오일, 로스네프트, 가즈프롬 같은 러시아의 석유회사는 유전, 가스전 등을 기반으로 한 개발 사업과 함께 정제, 유통 등에서도 이윤을 올리고 있는 로얄 더치 쉘, 시노펙, 엑손 모빌, BP, 토탈,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이다. 또 세버스탈, 에브라즈 같은 러시아 철강회사도 아르셀로미탈, 중국바오우그룹, 신일본제철, 포스코 등과 같은 제철, 조강 생산에서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다. 그냥 석유와 광석과 같은 부존자원을 제국주의 다국적기업에 내다 파는 ‘제3세계’ 국가의 국영공사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이런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석유나 철강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해외 사업 확장은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부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들도 러시아 국경 밖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가즈그룹, 우랄OMZ), 전기발전 (INTER RAO 그룹, 아토메너고프롬), 화학 (유로켐, 아그론), 식료품 (Wimm-Bill-Dann 식품), 통신 (시스테마, 빔펠콤, MTS), 정보기술 (라닛, IBS 그룹, 카스퍼스키 랩), 운송 (소브콤플로트, 글로벌트랜스, 러시아철도공사), 은행 (스베르뱅크, 가즈프롬뱅크, 알파뱅크), 미디어 (CTC미디어, 인터팩스) 등을 들 수 있다.” (본 책자에 함께 실린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중 주28)을 보라).

러시아가 “신식민지적 경제”라면 이와 같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다국적기업들을 보유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자주파는 이러한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을 제치고 외국 다국적기업들이 러시아 경제를 지배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 각종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종속국" 또는 "주변부 국가"로 성격규정 하며, 러시아가 외국 독점체들 (외국 은행, 외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러시아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러시아 경제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러시아의 총 투자액에서 내국 기업, 외국 기업, 합작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86.3%, 7.3%, 6.4%로 지난 5년 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아래 표 1, 2 참조)

표 1. 2015년 러시아의 총 투자에서 내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합작기업의 각 점유율

구분	점유율
내국 기업	86.3%
외국 기업	7.3%
합작 기업	6.4%

표 2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외국 은행의 점유율, 2014년 및 2018년

구분	2014년	2018년
외국은행 점유율	23%	13.44%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러시아는 해외로 확장하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내국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경제다. “석유와 광석과 같은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저개발’ 경제가 아니다! 외국 독점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신식민지적 경제”가 아니다!

3. 러시아는 금융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러시아를 "신식민지적 경제"라고 주장하는 자주파의 세 번째 근거를 보자.

"이것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은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대한 식민지의 고전적인 경제적 관계이다.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서 러시아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루블은 무역 통화가 아니다.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러시아에는 세계 50대 은행에 드는 은행이 한 곳도 없어 "제국주의 금융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본수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러시아에 자산 기준 세계 50위권의 은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60위권에 스베르 뱅크가 러시아 은행으로 하나 올라 있다.)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는 주로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은행들이 들어가 있다. 그 중 1-4위가 중국 은행들이다. 세계 거대 은행 중에 자산이 3조 달러 이상인 은행은 이들 중국 '빅4' 이외에는 없다. 50위권 전체로 보더라도 중국 은행이 13개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그러다보니 뉴욕이 '세계 금융 허브'라면 상하이는 '우주 최강 금융 허브'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중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부정하는 자주파에게는 재수 없게 불편한 진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GDP 세계 순위에서도 그랬듯이, 맑스주의자는 중국 제국주의 규정을 세계 은행 순위를 기준으로 내리지 않는다.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서 중국 은행이 빅4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을 말해주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 제국주의임을 보여주는 여러 경제적 지표 중의 하나일 뿐 중국 제국주의의 본질적 성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러시아가 50위권 은행이 없다는 것은 금융업 부문에서 이러한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확실히 뒤쳐져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에는 금융자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그와 같이 중 · 미 · 일 · 영 · 프 등과 같은 세계 '톱클라스' 은행이 없다는 것이 러시아가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증거인가? 이것은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인 금융자본을 은행자본으로 일면화 시킬 때만 가능한 주장이다. 금융자본(finance capital)을 금융업 자본 (financial capital)으로 바꿔치기할 때만 가능한 주장이다. 레닌 제국주의론에서 말하는 "금융자본"을 산업자본과는 분리된 화폐자본가들, 즉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투자회사, 보험회사, 각종 펀드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둔갑시킬 때만 가능한 주장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의 형성이 제국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며 경제적 본질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 독점적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융합, △ 상품수출과 병행하여 자본수출의 증가, △ 세력권 (특히 식민지) 쟁탈전을 제국주의의 지표로 함께 제시했다.

금융자본은 단지 은행 (및 금융권)이 아니라 "은행자본과 융합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 이러한 독점적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으로서의 금융자본은 러시아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발달해 있으며, 그것도 고도화된 형태로 발달해 있다. 러시아에서 금융자본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며 거대 트러스트/금융과두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내국 독점체들이 바로 자주파가 그 존재를 부정하는 러시아의 금융자본이다.

푸틴 러시아에서 독점적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은 소위 '금 · 산 분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위의 어느 제국주의 국가에서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고 공공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금산복합체'가 그것인데, 예를 들어 러시아 최대의 에너지 다국적기업 가즈프롬은 러시아 3대 은행인 가즈프롬 방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들 러시아 독점체들이 비록 중 · 미 · 일 · 영 · 프 등의 독점체들에 비해 세계시장 지배력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세계시장을 '사이좋게' 분할 — 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할 때까지는 '사이좋게' — 점유하며 경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동유럽,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하며 초과이윤을 거둔다. 러시아의 자본수출은 이들 독점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반식민지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나라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당연히 러시아의 해외투자가 보다 강한 비중을 점하는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나라들 같은 구 소련의 일부였던 반식민지 나라들이다. 오늘 이들 나라 중 일부는 러시아 주도 버전의 EU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들이다.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는 얘기는 이와 같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주장이다. 혹은 푸틴을 옹위하는 많은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주파도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나라들에게는 러시아가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푸틴 옹호자들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는 이들 반식민지 나라들로부터 초과이윤을 착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이들 나라로 "가치 이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도 가치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착취하고 있다?! 놀라운 주장이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약소국들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러시아를 강제해서 그러한 "가치 이전"을 바치도록 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러시아에서 이들 나라로 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FDI)의 ¾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로서 이들 반식민지 나라로부터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수출이지 무슨 자선행위가 아니다. 전형적인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초과착취인 것이다. 우리는 팜플렛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에서 러시아의 자본수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우리의 평가분석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4. 제국주의에 대한 총체적 인식으로 전쟁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술을 내오자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푸틴 옹호자들처럼 자주파도 레닌의 유명한 제국주의 5대 지표 (독점, 금융자본, 자본수출 등)를 매우 일면적인 방식으로 끌어다 쓴다. 그러나 이 5대 지표와 관련하여 <<제국주의론>>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경제적 측면들을 다룬 것으로, 그 정치적 특징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론>>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차리즘의 검열을 염두에 두고" 쓰느라 주

되게 제국주의의 경제적 분석에 국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닌은 언제나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 정치적 결합 인식, 즉 제국주의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강조했다. 이 점은 제국주의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유포 조장하는 "수정주의의 교황" 카우츠키를 레닌이 가차 없이 비판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볼 수 있다.

> "카우츠키는 '군축', '초제국주의' 등과 같은 그의 속류 부르주아 개량주의를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제국주의 정치를 제국주의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정치에서의 독점을 경제에서의 독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러한 이론상의 허위의 모든 목적과 의의는, 제국주의의 가장 뿌리 깊은 모순들을 모호하게 하고, 그리하여 제국주의의 변호론자들인 노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 및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단결'이라는 이론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우리는 이러한 레닌의 통합적 접근법을 좇아, 해당 국가에 대해 제국주의냐 "신식민지"냐에 대한 사회구성체 인식은 한 가지 기준 (상기한 GDP나 은행 순위로 표현되는 '경제력' 같은)이 아니라 그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특징들의 총체에 기초해야 한다고 언제나 역설해왔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레닌의 다음과 같은 간명한 정의는 그러한 총체로서의 사회구성체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제국주의 강대국, 즉 온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 종속의 그물망으로 얽어매는 열강"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이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발달한, 가장 강력한 강대국 (당시 영국 같은)뿐만 아니라 덜 발달했고 덜 강한 강대국들 (차르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등)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러한 총체적 이해,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위와 같은 정치적 · 경제적 복합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은 새로운 시대,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몇몇 – 극소수이긴 하지만 – 강대국의 금융자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군사력의 독점이나 광대한 영토의 독점, 또는 소수 민족들과 중국 등등을 약탈하는 특별 편의에 대한 독점이 현대의, 최신의 금융자본의 독점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체한다.)"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우리는 오늘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평가분석에서 이러한 레닌의 방법을 이어간다. 이 자본가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특징들의 총체가 바로 러시아를 오늘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제국주의 열강으로 되게 하는 규정자다.

언제나 레닌은 이론이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이 맑스주의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고 계급투쟁의 전략 · 전술을 벼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혁명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푸틴 옹호자들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너무도 명백하게 글로벌 강대국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 부닥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도 러시아가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가 되지 않고서 자본주의 세계질서 내에서 그렇게 다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이론적 · 이데올로기적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결과는 러시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희생

자로 (즉 "신식민지적 경제" 같은 것으로) 제시하는 기괴한 이론을 인공 창조하는 것이다. 이들 푸틴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자주파도 글의 결론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며, 그 대부분은 제국주의와 금융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본주의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러시아도 멕시코처럼,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착취당하는 나라이다."

러시아를,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성공 사례"로 자본가들이 꼽는 멕시코와 비교하는 것은 차라리 외설이다. 우리의 자주파가 얼마나 자본주의 세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일 뿐이다. 멕시코 경제는 외국 독점체들이 지배한다. 제국주의 기업들이 수십 년 이래로 멕시코 대외무역의 약 40%와 상위 3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우리가 도표로 제시한 러시아의 총 투자에서 내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합작기업의 각 점유율에서 보듯이) 러시아 경제는 내국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진지한 사람이 세계정치에서 러시아의 역할 · 비중을 멕시코와 비교할 수 있을까?! 러시아는 유엔에서 거부권을 가진 강대국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서 여러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주요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 중에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연합전선에 맞서고 있다. 멕시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러시아가 그 국경까지 나토에 의해 '포위'되었다는 것이 늘상 푸틴 옹호자들이 하는 주장이다. 이 고전적인 '러시아 희생자'론 역시도 지리에 대한 초보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만 호소력을 가진다. 간단한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나토 회원국가들은 러시아를 전혀 포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 서부 국경에 존재할 뿐, 그 밖의 동남부 국경에는 모두 러시아 제국주의의 세력권 및 동맹들이다.

나아가 푸틴 옹호자들은 미 제국주의가 적어도 10년 전부터 쇠퇴하고 있고 이제는 그 절대 패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련의 후퇴와 패배를 겪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영향력을 확장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중국은 모든 대륙에 거대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를 다른 모든 연안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상관없이 지배하려고 한다. 또 미 제국주의와 동맹으로 있는 대만을 정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강한 러시아는 중동과 북 · 동 · 중앙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여러 나라에 – 공식적으로든 은폐된 형태로든 – 주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동부 우크라이나, 시리아,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카자흐스탄에 대한 군사 개입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제국주의 헌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를, 서방 열강이 끊임없이 그 세력권을 확장하는 가운데 포위된 희생자로 제시하는 것은 그냥 현실 부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러시아 "신식민지"론은 계급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라고는 도무지 없는 딴 세상 이론가들이 지어낸 인공 이론의 훌륭한 견본이다! 그러한 이론으로 무장해서는 (아니 무장해제 돼서는) 세계를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 * * *

러시아 '신식민지' 론/ '희생자' 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자주파와는 달리, 우리를 비롯한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지지해왔고, 동시에 서방 대 러시아 간 고조되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에서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해왔다. 우리는 서방–러시아 간 분쟁을 포함하는 이 전쟁 전체의 이중적 성격을 설명해왔고, 그에 따라 이 전쟁에 이중 전술 적용이 사회주의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창해왔다. 한편으로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혁명적 방어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둘 다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 러시아의 독점자본/ 자본수출/ 초과착취에 대하여

노동자혁명당(준)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

<차례>

1부

1.1 들어가며
1.2 러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외국 독점체가 아니라 내국 독점체다
1.3 자본수출과 "라운드트리핑" 해외직접투자 문제

2부

2.1 "유령 FDI": 러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2.2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과 그들의 해외투자

3부

3.1 자본수출을 통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3.2 이주자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3.3 맺으며

1부

1.1 들어가며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현 중국 ·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반제" 국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그에 따라 미 · 중 대결을 비롯하여 현재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미국 · 서방에 대항하여 중국 · 러시아를 방어하고 편드는 입장을 취한다. 양쪽 제국주의를 다 반대하지 못하고, 한 쪽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다른 쪽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 (말로는 "사회주의"되, 행동으로는 제국주의 지지)로 빠져들고 있다.

남한 운동진영 가운데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적어도 미국 (및 서방)을 편드는 친미 세력은 없기 때문에 남한 노동운동 내 사회제국주의자들은 친중 · 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남한 노동운동 내 다수파를 점하는 민족자주파가 바로 중 · 러 제국주의를 섬기는 사회제국주의적 시종들이다. 우리는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제시하며,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는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둘 다에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반제 역량"으로 성격규정하며 미 · 중 대결을 제국주의 대 "반제 역량"의 대립으로 보고 싶어 하는 자주파의 "중국 제국주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축소은폐가 미 · 중 대결에서 중국을 편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 '반제'를 말하면서 (또 다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이러한 사회제국주의는 우리의 자주파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노동운동에서 기회주의 세력의 속성이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레닌은 이들 '사회'제국주의자들을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라고 보았다.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에서 친독 사회제국주의 또는 친영 불 사회제국주의로 빠져들어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부르주아지의 진영으로 탈주한 제2인터내셔널 우익 사민주의자들처럼 말이다." (<자주파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마름으로 나서고 있는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55쪽).

이제 우리는 중국 제국주의에 이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 · 분석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두루 알다시피, 자주파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제"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반제자주연대는 [미국의] 아프간 패주 뒤 강화되는 추세" (<<민플러스>>)라며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노동자계급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논거로 흔히 제시되는 논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외국 독점체가 러시아 경제를 지배한다" 2) "러시아는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수입국이다" 3) "러시아와 주변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관계는 제국주의 초과착취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쟁점들을 비롯해 몇몇 관련 쟁점을 차례로 검토 평가해보자.

1.2 러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외국 독점체가 아니라 내국 독점체

다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는 초강대국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는 미국 빼고는 최대 군사 강국이다. 러시아는 총 6,255개의 핵탄두(미국은 5,5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20%로 미국 (37%)에 이어 2위다.[1)]

그러나 독점체와 자본수출 면에서는 이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2021년 호)>에서 독일은 100위권 안에 6개 독점기업이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 4개, 영국 3개, 러시아 2개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2)]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등 다른 기업순위 평가서들에서 러시아의 순위는 이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군사면 만이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도출된다. 우리는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출발점이 독점의 지배임을 강조해 왔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논문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의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한 성격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 기생적 또는 쇠퇴 부후화하는 자본주의,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대체는 제

1) 강대국들의 군사력 관련 최신 통계를 우리의 다음 팜플렛에서 볼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2) Andrea Murphy, Eliza Haverstock, Antoine Gara, Chris Helman and Nathan Vardi: How 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Endured The Pandemic, Forbes, 13 May 2021, https://www.forbes.com/lists/global2000/#360e8b5a5ac0

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자, 제국주의의 본질이다."[3]

각종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종속국" "식민지" 또는 "주변부 국가"로 성격규정 하며, 러시아가 외국 독점체들 (외국 은행, 외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4]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러시아 경제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러시아의 총 투자액에서 내국 기업, 외국 기업, 합작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86.3%, 7.3%, 6.4%로 지난 5년 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5] (표 1 참조)

표 1. 러시아의 총 투자에서 내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합작기업의 각 점유율, 2015년[6]

구분	점유율
내국 기업	86.3%
외국 기업	7.3%
합작 기업	6.4%

은행부문에서도 이 같은 분포를 볼 수 있다. 최근 출간된 또 다른 연구서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외국자본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 "2018년 10월 러시아에서 영업한 외국 은행은 150개로, 여기에는 외국인 지분 100%인 63개 외국계 은행, 외국인 지분 51~99%인 17개 외국계 은행, 자본참여 50% 미만인 70개 외국 은행이 포함된다. 외국 은행 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지분 51~99%의 외국계 은행과 자본참여 50% 미만인 외국 은행은 각각 63%, 54% 감소했다. 러시아 은행권의 총 정관자본금에서 외국 은행의 점유율은 2014년 23%에서 2018년 10월 13.44%로 감소했다. 외국 은행의 약 11%가 러시아 거주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7] (표 2 참조)

표 2.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외국 은행의 점유율, 2014년 및 2018년[8]

구분	2014년	2018년
외국 은행 점유율	23%	13.44%

이에 더해 러시아는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과는 달리) 외국 제국주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채도 별로 없다. 2020년 말 러시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8%에 불과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외채 4700억 달러 중 660억 달러만이 정부 부채인데, 그 중 210억 달러는 외화, 438억 달러는 루블 표시 채권이었다. 나머지 외채 가운데 725억 달러는 은행들 (아마도 거의 국유은행들)의 부채이고, 3185억 달러는 기업들의 부채다." 러시아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국제통화보유고도 2020년 말 5,9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9]

3) V I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295-6쪽, 양효식 옮김, 아고라, 2018. (고딕체 강조는 원저자)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친러 사회제국주의의 예들 - 영·러 간 흑해 포격 사건에서: 영국 스탈린주의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WSWS)">,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anker_1

5) Veronika Chernova, Sergey U. Chernikov, Alexander Zobov, and Ekaterina Degtereva: TNCs in Rus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Bruno S. Sergi (Ed.): Exploring the Future of Russia's Economy and Markets: Toward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2019, p. 188

6). 같은 글, p. 188

7) Victor Gorshkov: Fundamentals and Recent Trends in Russian Banking,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1

8) 같은 글, p.

9) Anders Åslund and Maria Snegovaya: The impact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and

러시아 자본주의는 국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독점체 상당수는 국유 지분과 사유(“민간”) 지분의 혼합체다. 국가자본주의가 러시아 경제의 필수적인 특징이 되고 있는 이유다. (중국도 같은 경우인데 이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최근의 IM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5%였다.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비공식 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정정하면 러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여, 공식 부문 활동의 거의 40%까지 오르며 공식 부문 고용의 50%에 살짝 못 미친다.” [10]

일단의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국가와 긴밀히 연결된 소수의 올리가르히 (과두재벌)가 지배하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러시아 민간부문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400개의 선도 기업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2014년 기준 3억 84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러시아 GDP의 41%를 생산하고 있다. 전형적인 러시아 거대 민간 기업은 다수의 주주들이 아니라 제한된 수의 개인들 (즉 올리가르히) – 그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서 CEO 직책을 맡고 있다 – 이 지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최대의 민간 기업인 석유회사 루코일의 주식 중 약 22%가 회장 바기트 알랙페로프의 소유이며, 9.7%가 부회장 레오니드 페둔의 소유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다수는 그들 자산을 1990년대에 연방 및 지방 관료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사유화 정책 덕에 취득했다... 그러므로 올리가르히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관료제에 힘입었지만, 손에 넣은 자산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역외 이전하여 관료제에 의한 재산 취득과 탈세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야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주요 러시아 철강 기업들은 전적으로든 (메탈로인베스트의 100%) 또는 부분적으로든 (MMK와 NLMK의 86%, 세베르스탈의 51%, 에브라즈와 루살의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의 러시아 소유주가 설립한 역외 회사에 속한다. 이 올리가르히 자본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공존한다. 예를 들어 선도적 석유회사 19곳 중 13곳이 민간기업 (루코일이 가장 크다)이고, 6곳이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가장 크다)이다.” [11]

올리가르히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유 은행들이 지배하는 금융 부문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소매 대출의 65퍼센트 이상과 기업 대출의 71퍼센트 이상을 점하면서 국영 은행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 [12]

이 수치는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실제로,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된 이래로, 그리고 특히 강대국 패권경쟁이 가속화된 이래로 국가의 역할이 크게 증대해왔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GDP에서 국유기업 비중 (GDP 기여도)은 29~30%에 가까웠고, 전체 공공부문 기여도는 70%

how they can be made even more effective, The Atlantic Council, May 2021, p. 10 and 18; see also Anders Åslund: The Russian economy in health, oil, and economic crisis, May 27, 2020, https://www.atlanticcouncil.org/commentary/long-take/the-russian-economy-in-health-oil-and-economic-crisis/

10) Gabriel Di Bella, Oksana Dynnikova, Slavi Slavov: The Russian State's Size and its Footprint: Have they Increased? IMF Working Paper WP/19/53, March 2, 2019, p. 13; 다음도 보라.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ussia: Domestic Politics and Economy, 9 September 2020, pp. 29–30; Alexander Abramov, Alexander Radygin, Maria Chernova: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Russian market: Ownership structure and their role in the economy, in: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3 (2017), pp. 1–23

11) Alexander Bulatov, Alexey Kuznetsov, Yuri Kvashnin, Alice Maltseva and Ninel Seniuk: Russian MNCS: Empi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Rob van Tulder, Alain Verbeke, Jorge Carneiro, Maria Alejandra Gonzalez-Perez: The Challenge of BRIC Multinationals, Progr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Volume,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7, pp. 398–399

12) David Szakonyi: Monopolies Rising. Consolidation in the Russian Economy,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491, November 2017, p. 4

(2005년 35%)에 가까웠다."[13]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가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은 1991년 퇴보 · 타락한 노동자 국가로서의 소련 붕괴 후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한 내국 자본가계급의 취약한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추가할 수 있다. 어쨌든, 새로운 자본가 국가의 이 같은 결정적인 역할이 1990년대에 그 파괴적이고 혼돈에 찬 자본주의 복고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러시아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14]

13) Alexander Abramov, Alexander Radygin, Maria Chernova: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Russian market: Ownership structure and their role in the economy, in: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3 (2017), p. 2; see also p. 14

14) 이 점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지적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상의 이러한 체계적 장애물 중 많은 것들이 시장 기반 경제로의 전환 중에 있은 기업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 있다. 부의 심한 국내 집중을 초래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변화 시킨 정책 틀을 통해 국유기업들이 사유화된 것이다. 구 국유기업들의 수직적 통합 정도가 높아 외국 기업에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저자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푸틴은 요직을 자신의 인맥으로 채우는 것 외에도 재국유화를 통해 석유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코스, 시브네프트, TNK-BP, 배쉬네프트는 모두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에 매각되거나, 또는 시브네프트의 경우처럼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에 매각되어 사실상 재국유화 되었다. 2016년, 수직통합형 기존 12개 기업 중 국가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기업은 루크오일과 수르구트 두 곳뿐이었고, 전체 석유 생산량에서 국유기업 점유율은 2004년에 소련 붕괴 이후 최저치인 15%였던 것이 2016년까지 57%로 증가했으며, 로스네프트의 야심찬 생산량 확대 계획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2000년 이후 러시아는 1990년대 석유산업 민영화의 많은 부분을 되돌려놓음으로써 국가가 국내 석유 생산량 대부분을 통제하는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Nat Moser: Oil and the Economy of Russia. From the Late-Tsarist to the Post-Soviet Period, Routledge, New York 2018, p. 108)

1.3 자본수출과 "라운드트리핑" 해외직접투자 문제

러시아의 FDI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공식 통계에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결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니다. 러시아 FDI를 받는 상위 15개국과 러시아에 FDI를 들여보내는 상위 15개국 명단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표 3에서 우리는 2013년과 2018년 이 두 범주의 상위 15개국 명단으로 누적 자본 잔고를 볼 수 있다.

표 3. 2013년과 2018년 러시아에서 나가는 유출 FDI 잔고와 러시아로 들어오는 유입 FDI 잔고 (단위 100만 달러)[15]

자본수입 15개국 –러시아의 유출 FDI 잔고		자본수출 15개국 - 러시아의 유입 FDI 잔고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키프로스 152,702	키프로스 172,461	키프로스 183,276	키프로스 126,366
버진아일랜드 74,412	네덜란드 40,415	네덜란드 48,948	네덜란드 40,309
네덜란드 45,012	오스트리아 26,710	바하마 31,964	바하마 39,031
오스트리아 25,500	스위스 17,760	버뮤다 29,565	버뮤다 29,830
미국 20,943	버진아일랜드 11,277	국 21,759	룩셈부르크 19,561
스위스 12,096	바하마 8806	버진아일랜드 18,925	프랑스 17,291
독일 9607	터키 8229	독일 18,898	독일 16,410
영국 7901	독일 8125	미국 17,979	영국 14,933
바하마 6416	미국 7332	스웨덴 16,176	스위스 11,029

15)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in: Agnes Szunomar, eds, Emerging-market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ast Central Eur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p. 159

우크라이나 5968	스페인 6441	프랑스 14,075	버진아일랜드 10,356
터키 5277	영국 6378	룩셈부르크 12,780	저지섬 9945
스페인 4772	벨라루스 3960	오스트리아 11,816	아일랜드 5824
저지섬 4128	싱가포르 3471	스위스 6040	오스트리아 5604
저지섬 4128	싱가포르 3471	스위스 6040	오스트리아 5604
벨라루스 4089	카자흐스탄 3302	아일랜드 5210	이탈리아 4626
프랑스 3629	우크라이나 3104	저지섬 5013	스웨덴 4531

독자들이 알 수 있듯이, 이 명단에는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저지섬 등 역외 조세도피처로 잘 알려진 일련의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 네덜란드도 올리가르히에게 높이 평가되는 조세피난처다. 우리는 2014년 연구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밝혔듯이, 러시아 FDI가 그러한 목적지들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자본 도피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 보듯이, 바로 그 동일한 조세피난처에서 러시아로 오는 대규모의 FDI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라운드 트리핑 (round-tripp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러시아 자본가들은 외국 역외 목적지에 "투자"하고, 다시 이들 목적지로부터 러시아에 투자한다. 따라서 라운드 트리핑은 러시아 FDI가 양 방향으로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러시아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역외 목적지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다.[16]

나아가 러시아 독점체들은 제3국에 투자하기 위해 그러한 역외 목적지를 이용한다. 한 러시아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덜란드나 키프로스와 같은, 러시아 업계가 이윤 축적을 위해 흔히 이용하는 다른 관할권 나라들이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다른 관할권 나라로부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 구조는 '러시아 투자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를 이사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최종 수혜 주주를 포함한 전체 소유구조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17]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낸 또 다른 연구보고서는, 카자흐스탄 내 공식 러시아 FDI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네덜란드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독점체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FDI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정이 정반대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FDI는 총 유입 잔고의 2.5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점유율은 40퍼센트가 넘는다.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회사를 거기에 배치하여 해외 사업을 하게 한다. 이런 연유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네덜란드 FDI의 최초 발원지를 밝혀내면 러시아 FDI의 점유율은 몇 배 늘어날 수 있다."[18] 당연히 이러한 FDI는 러시아의 유출 FDI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외국인 아닌 러시아인 투자 (세금 조건이 유리할 때 "커밍 홈" 하는)다. 게다가, 러시아 기업들은 그러한 역외 중심지들로부터 다른 나라들에 외국인투자도 한다. 명백히, 그러한 복잡한 상황은 실제 러시아가 하는 외국인 투자와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각각에 대한 구체적 계산을 어렵게 한다. 이 문제를 자세히 연구한 한 핀란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6) 같은 글, pp. 184-185

17) Maria Kotova: Russia's 2021 Trade And Investment Turn To Asia, Dezan Shira & Associates St.Petersburg, March 8, 2021,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s-2021-trade-and-investment-turn-to-asia.html/

18) Elena Efimova and Vladimir Sherov-Ignatev: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Kari Liuhto, Sergei Sutyrin and Jean-Marc F. Blanchard (Eds.): The Russian Econom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outledge, New York 2017, pp. 160-161

"러시아 중앙은행 (CBR)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3분의 2가 키프로스를 포함한 EU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지리적 분포는, 러시아 유출 FDI의 많은 부분이 투자한 첫 번째 외국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러시아 자본이 해외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러시아로 되돌아갔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키프로스, 저지섬 등, 자본 라운드 트리핑이 가능한 6개국에 대한 분석은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 러시아 유출 FDI 잔고에서 이 6개 섬나라의 점유율은 2014년 말 40%였다. 이에 조응하여 러시아 유입 FDI 잔고에서 이들 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사실상 같았다. 이러한 '섬화' (Islandization)로 인해, 2014년 말 해외의 러시아 FDI 실제 규모는 운크타드(UNCTAD)가 보고한 숫자인 4,320억 달러보다는 2,500억 달러에 가까웠을 것이다. 러시아 FDI의 이러한 '역외화' (offshorization)는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이끈다. 즉 러시아 유입 FDI 잔고의 실제 규모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공식 유입 FDI 잔고를 40-5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 말이다." [19]

하지만 푸틴 정권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라운드 트리핑 자본의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세금포탈 구조를 이용하여 러시아로부터 역외 중심지들로 유출되는 현금 고갈을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라운드 트리핑 투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역외화 방지법이 2015년 1월 러시아에서 발효되었다." [20] 라운드 트리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2014년 말 제정된 러시아의 역외화 방지법이 라운드 트립 된 FDI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러시아에 유입된 키프로스의 FDI 잔고는 25% 줄었다." [21] 현재 푸틴 정권은 러시아 자본의 네덜란드 이전 규모도 줄이려고 한다. "편리한 조세피난처로서의 네덜란드의 역할은 2021년에 바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세수를 찾아내려 하는 푸틴 정권이 더 많은 러시아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도 많은 러시아 기업들을 그곳 [네덜란드]에서 법인 설립하도록 부추긴 이중조세 협정을 이제 끝내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는 이미 관세 인상에 굴복했지만, 러시아 경제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키프로스와는 달리 네덜란드와는 회담이 현재 진행중이며, 그만큼 이 협상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2]

2부

2.1 "유령 FDI": 러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러시아의 라운드 트리핑 해외투자의 방대한 규모는 러시아 자본의 취약함에 대한 한 예로, 러시아의 비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증거로 종종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 역외 중심지로 자본이 몰리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현상은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도 존재한다. 근래에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매우 흥미로운 조사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보고들은 우리의 평가를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그 중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추산한다. "역외 금융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지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50-60개의 조세 피난처가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가 수천 개의 은행, 펀드, 보험사들과 함께 2백만 개가 넘는 페이퍼 컴

19) Kari Liuhto: Does Ownership Matter in an OFDI Decision of a Russian Firm? The Case of Russia's Ten Largest Investors Abroad, in: Kari Liuhto, Sergei Sutyrin and Jean-Marc F. Blanchard (Eds.): The Russian Econom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outledge, New York 2017, pp. 248-249

20)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55

21) World Bank: Russia Economic Report #42. Russia's economy loses momentum amidst COVID-19 resurgence; awaits relief from vaccine, December 2019, p. 27

22). Maria Kotova: Russia's 2021 Trade And Investment Turn To Asia

퍼니의 주소지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30% 이상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한다고 추산한다." [23]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연구보고는 이 같은 "유령 FDI"의 비율이 그 이후 전 세계 총 FDI의 40%까지 증가했다고 추산한다. "2017년, 40조 달러 중 15조 달러에 달하는 FDI가 실제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유령 FDI' 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 비율은 2009년 30%를 약간 웃돌던 것에서 2017년에는 거의 40%로 늘어났다." [24]

일부 독자들은 이러한 유령 FD가 취약한 "제3세계" 경제들만의 특징일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르겠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첫째, 빈국들에 그렇게 많은 자본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니,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자본의 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더욱이 상세한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OECD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령 FDI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역외 FDI 결정요인들을 밝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먼저, 우리의 연구 결과는 역외 FDI가 도처에 만연하여 개발도상국만큼이나 부유한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의 무형의 성격을 감안할 때 놀랍게도 역외 FDI는 실제 FDI만큼 물리적 거리에 민감해 보인다. 식민 역사를 보면 실제 FDI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역외 FDI 연계는 식민 열강들과 그들의 현재 및 이전 식민지들 간에 특히 강하다. 경제협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는 OECD가 탈세 방지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회원국 내부보다 외부의 역외 FDI를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영역에서는 실제 FDI와 역외 FDI 모두 원천징수 없이 진행되어 기업들이 내부 자본 이동의 조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널리 퍼져 있는 제3국 '조약 쇼핑'의 증거를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역외 FDI와 법치주의 간에든, 역외 FDI와 공산주의 역사 간에든 아무 연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 [25]

그러한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OECD 국가들이 시행한 개혁은 제도를 개편했을 뿐 (적어도 지금까지는) 폐지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OECD 주도의 조세도피 방지대책이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외 금융에 비물어진 영향을 미쳤다는 널리 퍼진 불만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다. 역외 조세 포탈/도피의 전반적 수위를 끌어내리기 보다는 역외 금융의 위계 개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안에서 OECD 역외금융센터(OFC)들 중 '내부 이탈자' 센터들이 주요 수혜자이고, 가장 약하고 가장 주변적인 센터들이 주요 손실자인, 그러한 위계 개편 말이다. 대조적으로, EU의 조세도피 방지대책은 2010년 말 현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6]

요약하자면, 라운드 트리핑 해외투자나 유령 FDI는 결코 러시아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서방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 두루 퍼져 있다. 러시아의 유령 FDI 규모를,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상에서 보듯 정당성이 없다.

2.2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과 그들의 해외투자

현 러시아를 제국주의가 아닌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사회주

23)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55

24) World Bank: Russia Economic Report #42. Russia's economy loses momentum amidst COVID-19 resurgence; awaits relief from vaccine, December 2019, p. 27

25) Daniel Haberly and Dariusz Wójcik: Tax havens and the production of offshore FDI: an empirical analysis, p. 78

26) 같은 글, p. 94

의” 조직들의 경우, 러시아가 주변 반식민지 나라들과 맺고 있는 대외 경제관계는 이윤과 착취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들 나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라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CIS)[27]내 종속국들 및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기보다는, 현 세계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나라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28]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희화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다른 나라들의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독점체와 국가 독점체에 의한 이윤 추구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잠시 훑어보고 넘어가자. 아래 표 4는 운크타드가 발표한 <2019년 세계 투자 보고서> 중 러시아의 해외투자에 관한 것으로, 15개의 가장 큰 러시아 비금융 독점기업들의 해외자산 순위를 보여준다.

표 4. 2017년 해외자산 순위에 따른 러시아 15대 비금융 다국적기업[29]

순위	회사	업종	해외자산 (달러)	자산총액에서 해외자산 비율	국영 지분
1	루크오일	석유·가스	243억	27%	–
2	가즈프롬	석유·가스	195억	6%	50.2
3	로스네프트	석유·가스	176억	8%	69.5
4	소브콤플롯	운송	57억	78%	100.0
5	세버그룹	복합기업	54억	..	-
6	En+그룹	복합기업	50억	23%	-
7	아토메너고프롬	원전	47억	9%	100.0
8	에브라즈	철강	37억	36%	–
9	러시아 철도공사	운송	35억	5%	100.0
10	TMK	철강	20억	36%	-
11	유로켐	화학	17억	17%	-
12	시스테마	복합기업	15억	8%	-
13	NLMK	철강	15억	14%	-
14	자루베즈네프트	석유·가스	12억	38%	100.0
15	폴리메탈	비철금속	10억	32%	-
합계또는 평균			1051억	12%	..

이 표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첫째, 이들 15개 주요 독점체들은 러시아의 유출 FDI에서 매우 지배적인 비중을 점한다. 이들의 해외 자산을 합친 1051억 달러는 러시아의 해외 자본 잔고 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다. 비록 총액이 2,500억 달러가 아니라 4,320억 달러일지라도 말이다. 운크타드는 "2017년 말, 15대 다국적 기업 (뱅크VTB와 스베르뱅크와 같은 거대 국유 은행 제외)이 러시아의 유출 FDI 잔고의 28%를 점했다"고 계산한다.[30]

둘째, 국유기업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만, 사유 [민간] 독점기업들이 15대 기업 중 9개로 해외투자 비중에서 우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경제학자는 유령 FDI를 실시하는 것은 국유 독점체가 아니라 민간 독점체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민간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유출 FDI의 약 ¾을 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자본 라운드 트리핑 다수의 배후에 민간 기업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은 러시아의 ‘실제’ 해외 자산의 4분의 1이 러시아 국유기업의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4분의 3은 여전히 민간 기업들의 소유라는 의미가 된다. 그 때문에 필자는 러시아 유출FDI가 정부 정책과 다방면의 관계를

27) 독립국가연합 (CIS)은 구 소련연방 내 공화국들 대부분을 포함하는 기구로서, 제국주의 러시아가 주도하며 그 밖의 나라들은 모두 반식민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8) BT: UK/NATO: stay out of Russia’s territorial waters! Neutrality equals ‘conscious or unconscious’ support for imperialists, 10.7.2021, https://bolsheviktendency.org/2021/07/10/uk-nato-stay-out-of-russias-territorial-waters/

29)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Special Economic Zones, p. 59

30) 같은 문서,58쪽

가진 민간 기업들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다." [31]

셋째, 위 표에서 우리는 석유 · 가스 부문과 금속 산업이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경제학자가 지적하듯이, 러시아 독점체들은 광범위한 사업 부문들에 걸쳐 있다. "석유 가스 부문과 금속 산업이 러시아 유출 FDI를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밖에서 탄화수소 사업을 하는 러시아 3대 기업은 루코일, 가즈프롬, 로스네프트다. 금속 산업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리더는 아마도 에브라즈, 세버스탈, 메첼, 루살일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해외 사업 확장은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부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들도 러시아 국경 밖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가즈 그룹, 우랄OMZ), 전기 발전 (INTER RAO 그룹, 아토메너고프롬), 화학 (유로켐, 아그론), 식료품 (Wimm-Bill-Dann 식품), 통신 (시스테마, 빔펠콤, MTS), 정보기술 (라닛, IBS 그룹, 카스퍼스키 랩), 운송 (소브콤플로트, 글로벌트랜스, 러시아철도공사), 은행 (스베르뱅크, 가즈프롬뱅크, 알파뱅크), 미디어 (CTC미디어, 인터팩스) 등을 들 수 있다." [32]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2017년 해외자산 순위에 따른 15개 비금융 러시아 다국적기업 중 4개가 금속, 4개가 석유 가스, 2개가 운송, 1개가 화학, 1개가 원전 기업이었다. 3대 러시아 다국적기업은 복합기업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업 분포는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2진에서 훨씬 더 다양하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 유출 FDI의 부문별 분포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 데 비해 북미에서는 러시아 FDI가 주로 금속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국제관계연구소 (IMEMO)의 FDI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 말 비(非)CIS 유라시아에서 러시아 유출 FDI 잔고 대부분은 석유 가스 (34.3%), 통신 IT (19.7%), 금융 (12.9%) 부문들을 대상으로 했다. 철 금속은 러시아 유출 FDI 잔고 점유율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부문이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6년 말 EU에서 서비스 부문이 러시아 FDI 잔고의 80.7%를 점했다. 전기, 가스, 증기, 에어컨 공급 부문 (4.0%)과 민간 부동산업 (3.3%)도 여전히 언급할 만하다. 서비스 부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보험업 (47.9%)이지만, 전문 과학 기술업 (22.4%)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특수목적법인 (SPC; 페이퍼 컴퍼니) 및 제3국 경유 거래로 인해 왜곡된 그림을 준다." [33]

운크타드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감소에 대해 보도한다.[34] 이와 동시에 보고서는 이들 독점기업의 자본축적 상당 부분이 이들 기업의 막대한 이윤에 의해 조달된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36대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예상 수익이 다른 신흥 시장 다국적기업들의 예상 수익과 유사하게 41%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 — 2019년에는 그들의 유출 FDI의 거의 3분의 2를, 지난 3년 동안에는 3분의 1 이상을 점한 — 을 제한한다." [35]

31) Kari Liuhto: Does Ownership Matter in an OFDI Decision of a Russian Firm? p. 260. 또 다른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의 해외투자 확장은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러시아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된 정책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약하다."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66)

32) Kari T. Liuhto and Saara S. Majur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Russia: A Literature Review, in: Journal of East-West Business, 20, 2014, p. 201

33)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p. 163-164

34) "글로벌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 세계 상위 5000개 다국적기업은 올해 예상 실적이 평균 40%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됐으며 일부 업종은 적자로 추락했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x)

3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58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해외에 투자하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자본주의 독점체들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상당한 이윤을 벌고, 불황기에는 손실을 보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한다. 러시아 독점체들한테서 낯선, 이상한 것은 없다. 러시아를 제국주의 아닌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러시아 독점체들은 가난한 주변국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선 세력이 아니다. 러시아 독점체들은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같은 냄새가 난다. 러시아 독점체는 제국주의 독점체다!

3부

3.1 자본수출을 통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다른 모든 제국주의 독점체들처럼 러시아 자본도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에도 투자하고 있다. 위에서 든 이유들 ("라운드 트리핑")로 인해 러시아 자본수출의 목적지들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의 가장 명성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IMEMO (세계경제 · 국제관계연구소)는 러시아 자본수출의 주요 목적지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던 가운데, 유라시아의 반식민지 CIS(독립국가연합) 외부의 나라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FDI 잔고가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IMEMO의 FDI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아마도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CIS 유라시아 나라들 이외의 주요 목적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터키, 스위스, 이라크, 불가리아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키프로스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러시아 FDI 잔고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에서도 실제 러시아 FDI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보다 훨씬 작다."[36] 동유럽 나라들 중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도 실제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 해외투자를 받았다.[37]

러시아 독점체들은 유라시아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러시아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 "2014년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으로 가는 러시아의 유출 FDI는 154억 달러에 근접했는데 이는 러시아 유출 FDI 총액의 4.0%에 해당한다. 두 수치 모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사이에 관세동맹이 창설된 후 2년 (2012-14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전체 수치에서 FDI 투자회전율을 뺀 뒤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약 절반이 키프로스와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이 낮은 점유율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그 유입 FDI 잔고의 57%를, 키프로스와 그 유사 영토들에 대해서는 15% 미만을, 각각 러시아가 점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도 러시아 FDI는 상당한 비중 (35%)을 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정반대다. 러시아 FDI는 전체 유입 잔고의 2.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점유율은 40%가 넘는다. 많은 러시아 회사들이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외 사업을 위해 거기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네덜란드 FDI의 처음 출처를 밝히면 러시아 FDI의 점유율이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는 절대적, 상대적 측면 모두 미미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상당 규모의 투자가 약속되었지만, 2015-16년 러시아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약속한 투자의 실행에 의문이 던져졌다."[38]

36)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61

37) 같은 글, pp. 184-185

38) Elena Efimova and Vladimir Sherov-Ignatev: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pp. 160-161

두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유라시아경제연합 나라들로 들어가는 러시아 유출 FDI는 전체 러시아 유출 FDI에 비해 다소 미미해 보인다. 자본 라운드 트리핑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러시아 대기업들이 역외 나라들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유출은 러시아중앙은행이나 운크타드의 공식 보고보다 훨씬 높다. 기업 데이터가 유라시아경제연합 나라들에서 러시아 기업의 실제 존재감과 영향력을 더 제대로 반영한다."[39]

저명한 러시아 경제학자 A. V. 쿠즈네초프는 유라시아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그 규모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계산한다.

"2014-2016년,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 FDI에 관한 공표된 데이터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데이터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는 데서 주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역외 기업 및 유사 관할권을 통한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투자 규모 문제 말이다. 러시아 FDI를 받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의 미러 데이터를 포함한 공식 통계의 왜곡은 수신국들 모두에 흔한 일이다. 그러나 투자 풍토가 장애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의심스러운 민영화 거래로 얻은 자산을 광고하길 꺼려하는 탈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러시아 회사들이 환적기지를 특히 자주 이용하고 있어 이들 인접국에서 러시아 초국적기업들(TNC)의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2011년 말부터 IMEMO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CIS 나라들에 대한 상호투자 모니터링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FDI 잔고 규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5-3배, 카자흐스탄에서 3~4배, 벨라루스에서 약 50% 정도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역외 기지의 상당 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러시아 TNC의 존재감이 과장되어 있다. 투자 등록지에 실제 투자된 러시아 해외자산 규모에 대한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중남미] 지역의 러시아 FDI는 30억 달러 정도다. 이는 중앙은행 자료에 의해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15-30배 작은 수치다."[40]

앞서 언급한 왜곡된 외국인투자 발원국 문제를 감안해야겠지만 유라시아 지역의 개별 국가별 수치도 존재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7% 지분을 가진 5위 외국인투자자다 (중국이 최대 외국인투자자다).[41]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 독점체들이 공식적으로 4위 투자자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역외투자의 주요 목적지인 네덜란드가 단연 최대 외국인투자자 (2017년 29.1%)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러시아의 실제 점유율은 상당히 더 높다.[42]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다국적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5.6%가 러시아를 발원지로 하고 있고, 중국이 두 번째로 큰 투자자 (15%)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국인투자자다.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로는 석유 · 가스 생산 (9조163억 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화폐 단위]), 정보통신 (4674억 솜), 비금속 광물 생산 (105억 솜), 금속산업 (104억 솜) 등이 있다."[43]

일부 유라시아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규모를 정확히 밝혀내면 그 한계도 드러난다. 특히 중국 독점체들이 점점 주도권을

39) 같은 글, p. 167

40) A. V. Kuznetsov: Prospects of Diversifying Russian Direct Investment Abroad, in: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2017, Vol. 28, No. 1, p. 79

41) Samruk Kazyna: Overview of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Central Asian countries, January 2018, p. 28

42) 같은 글, p. 19

43) 같은 글, p. 19 and 22

잡고 있는데, 이는 그 새 강대국의 경제적 우위를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베이징과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44]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관계 분석가들이 묘사한 바와 같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중국이 에너지 영역을 지배하고 러시아가 안보 영역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은 주로 -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점점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이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관심은 중앙아시아보다는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베이징이 군대를 배치하지 않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음을 표명했다. 따라서 군사적 견지에서는, 러시아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강국으로 남아 있다."[45]

운크타드는 러시아 독점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입지를 다지려 한다고 보고한다.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2019년 첫 번째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경제포럼에서 채택된 공공투자 계획에 고무되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투자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 투여된 러시아 FDI의 연간 규모는 보통 작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콩고는 최대 외국인투자자인 루코일 그룹이 현재 탐사 단계인 가스회사 마린 XII의 지분 25%를 사들이면서 7억 7,900만 달러의 러시아 FDI를 유입 받았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다른 러시아 기업으로는 국영 알로사 (앙골라, 보츠와나, 짐바브웨에 투자), 등록지가 바하마지만 러시아인 소유인 레노바 (가봉, 모잠비크, 남아공의 채광업),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투자), 국영 로스네프트 (이집트에 투자) 등이 있다.

2019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새 프로젝트 계약 체결 기회도 제공했는데, 그 중 FDI가 대규모로 투여될 중요한 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영 IT 보안 회사인 아브토마티카 (로스텍 사의 분사)는 앙골라의 모바일 운영업체인 모비셀 사와 이 회사 I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러시아 식품 전문기업 에프코 그룹과 유나이티드 오일 사(이집트)는 약 3억 달러 상당의 생산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 로사톰과 르완다 정부는 키갈리에 핵 과학기술 센터 건립 협정에 서명했다.
* 등록지는 키프로스지만 러시아인 소유인 우랄켐과 앙골라의 그루포 오파이아 홀딩 (토목 건설, 태양광, 식수 시스템, 관광, 농업, 금융 등 운영)은 앙골라에 10억 달러 상당 요소공장을 건설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국영은행 뱅크 VEB는 모로코에 22억 달러 상당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46]

요약하자면, 러시아 독점체들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반식민지 나라들 모두에 상당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투자들은 러시아를 "반제 국가" 또는 "몸집이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Andrei Kazantsev, Svetlana Medvedeva and Ivan Safranchuk: Between Russia and China: Central Asia in Greater Eurasia, 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021, Vol. 12(1), pp. 57–71; Ariel Cohen and James Grant: Foreign Investment in Central Asia: Actors and Drivers, 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 December 2020

45) Andrei P. Tsygankov: Russia's "Turn to the East", 2012–2018,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477

4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60

큰 식민지" 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자선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는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이윤추구 투자다.

3.2 이주자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끝으로, 유라시아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초과착취에는 이주자에 대한 초과착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47]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이주는 식민지 ·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의 4가지 주요 형태 중 하나로, 피억압국으로부터 억압국으로 상당한 가치 이전을 제공한다. (그 밖의 형태들이 생산적 투자로서의 자본수출,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수출 [차관, 외화보유고, 투기 등], 부등가교환을 통한 가치 이전이다).[48]

우리가 이미 러시아 자본주의에 관한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엄청난 초과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대략 1,160만 명의 합법 이주자들이 러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 공식 통계를 인용한 바 있다. 2019년 6월에 러시아에는 공식적으로 1,013만 명의 외국인 시민이 있었다.[49] 이 숫자가 2020년 코로나19 반혁명에 의한 록다운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말이다.[50] 이러한 합법 이주자의 대다수 (859만 명, 85%)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반식민지 CIS (독립국가연합) 나라들 출신이다. (아래 표 5 참조).

표 5.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CIS 나라 출신 외국인 시민들, 2019년 [51]

아제르바이잔	650,495 명

47) 이주와 초과착취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ο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οbsting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ο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RCIT: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Michael Prο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8.iv) and 14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ο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ugust 2015, Chapter II.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part-5-1/, RCIT-Program,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fight-against-oppression-of-migrants/, RCIT-Manifesto chapter I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chapter-iv/; 그리고 현실 사안 관련 성명과 기사들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ticles-on-refugees/. 다음도 보라. Michael Prο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pp. 329-346,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3017605.2015.1099846.

48) 제국주의 초과착취 형태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Michael Pro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제6장.

49) Wikipedia: Immigration to Russia, https://en.wikipedia.org/wiki/Immigration_to_Russia

50) The Moscow Times: Russia Lost 5M Migrants During Pandemic, Dec. 16, 2020,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12/16/russia-lost-5m-migrants-during-pandemic-a72373

51) Н.Мкртчян, Ю.Флоринская: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АНОМА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in: МОНИТОРИНГ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И ВЫЗОВЫ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12(95) Июль 2019 г, p. 17

아르메니아	491,767
벨라루스	655,846
카자흐스탄	496,096
키르기스스탄	716,118
몰도바	326,178
타지키스탄	1,303,302
우즈베키스탄	2,188,835
우크라이나	1,763,930
CIS 전체	총 8,592,567명

러시아의 1억 4670만 공식 인구 (2019년) 중 6.9%가 합법 이주자다. 이 수치에는 러시아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주자 수를 더해야 한다. 불법 이주자 총 수에 대해서는 150만에서 1500만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몇몇 연구자들의 결론이 불법 이주자 300만~500만 명이라는 수치로 모아지고 있다.[52]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현재 러시아에 약 1300만~1500만 명의 합법 · 불법 이주자 (전체 인구의 약 9~10%)가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 · 불법 이주자들에 더해, 러시아 내부 식민지들에서 온 알려지지 않은 이주자들 수를 추가해야 한다. 오랜 제국으로서 러시아의 인구에는 비 러시아 계 인들이 상당 규모의 소수자 (약 19%)로 존재한다. 이들 비 러시아 계 소수자들은 다수자 인구 층에 비해 대부분 열악한 경제적 · 사회적 조건하에서 살고 있는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인민들이다. 그 결과, 이들 피억압 소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더 큰 도시들 – 러시아의 다수 인구 층이 우세한 지역들인 – 로 이주한다.

5 2)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Innovative Marketing, 15(1), 2019, p. 35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약 10만 명의 체첸 인들이 모스크바 지역으로 이주했다. 나중에 그 수는 약 25,000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체첸 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되지 않았거나 임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또 페테르부르크에도 수만 명의 체첸 인들이 살고 있다.[53] 체첸 인이 단지 120만 명 정도가 체첸에 살고 있는 수적으로 작은 소 민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내부 식민지들에서 온 이주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체첸 인이 두 차례 전쟁 (1994~96년과 1999~2009년)에서 러시아군에게 겪은 무시무시한 억압과 함께 20만 명에 달하는 체첸 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 난민이 된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디아스포라 (집단거주지)에 살고 있는 체첸인 비율은 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54]

당연히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온 것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보다 노동인력 대비 이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반대편에는 원주 러시아 인구의 고령화가 있다. 아래 표 6에서 우리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문들 중 상당 부분이 이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 이주자 수치는 합법 이주자만 집계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5 3) Chech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from Danish Immigration Service's fact finding mission to Moscow and St. Petersburg, the Russian Federation 12 to 29 June 2011, pp. 13-14; 다음도 보라.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Russian Federation. The situation for Chechens in Russia, August 2018, pp. 13-15

5 4) 우리는 그 두 전쟁에서 체첸 인민을 조건 없이 방어했고, 러시아 침략군의 패퇴를 내걸었다.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and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표 6. 2016년 러시아연방 이주자 고용률 [55]

경제 부문	총 고용 수에서 이주자 고용 비율
제조업	14.4%
건설	7.2%
서비스 부문(소매업, 가전 및 기타 기기 정비 등	15.9%
농업	6.5%

향후 몇 년 러시아의 이주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가난한 나라들에 특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빈국들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들로의 이주 행렬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원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장기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백인 다수 인구 층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푸틴 정권은 더 많은 이주자를 유치하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걸로 이에 대응하려고 한다. "푸틴은 2020년 4월 주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가진 나라들로부터 최대 1천만 명의 이주민을 유치한다는 희망 하에 외국인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에 서명했다." [56]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 이주자들은 값싼 노동인력이 되어 초과착취 당한다. 러시아 경제학자 3인의 한 조사연구 팀은 "보통 이주자들의 임금은 러시아인 임금의 약 70% 수준"이라고 계산한다.[57] 이 연구팀은 러시아의 생산량에 대한 이주자들의 기여도를 이렇게 추산한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이 86조 440억 루블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 전체 GDP의 6.5%인 5조 5928억 루블이 외국인 노동의 사용 덕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다."[58] 이 연구팀은 또 이주자의 기여도를 러시아 GDP의 7.56%로 추산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들 세 경제학자의 이 같은 계산은 러시아의 노동인력에서 합법 · 불법 이주자가 점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하다는 가정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은 러시아의 전체 인구 중 합법 이주자의 비율 (즉 불법 이주자를 포함하지 않은)이 6.9%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히 과소평가된 수치다. 나아가 노동인력 대비 이주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보다 언제나 높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자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실제 기여도는 6.5%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처럼 제국주의 러시아도 부르주아지의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값싼 노동인력으로 착취당하는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의 본거지다.

3.3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정치 · 군사 면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뚜렷하다. 러시아 경제는 외국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국 제국주의 기관들에

55)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p. 34

56) Kristyna Foltynova: Migrants Welcome: Is Russia Trying To Solve Its Demographic Crisis By Attracting Foreigners? June 19, 2020, https://www.rferl.org/a/migrants-welcome-is-russia-trying-to-solve-its-demographic-crisis-by-attracting-foreigners-/30677952.html

57)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p. 33

58) 같은 글, p. 35

대한 금융적 종속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내국 독점체들이 지배하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로서, 외채 수준은 낮고 외화보유고는 높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독점자본가들은 강력한 규제 · 조절 역할을 하는 국가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자본수출은 이들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도 국유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 다수가 실제로는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지만 말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반식민지 나라와 제국주의 나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러시아 해외투자가 보다 강력한 비중을 점하는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나라들 같은 구소련의 일부였던 반식민지 나라들이다. 오늘 이들 나라 중 일부는 러시아 주도 버전의 EU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회원국들이다.

러시아를 "반제" 국가 또는 "몸집이 큰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추측과는 반대로, 러시아 독점체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지, 무슨 자선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추상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들 나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수한 성격은 부정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많은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력 · 정치력 · 군사력이 고르게 발전하지 않고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불균등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주의적 정의를 적용하여 정치 · 군사 면을 무시한 적이 없으며, 제국주의 국가를 그 경제 · 정치 · 군사 면의 총체로 파악하는 기초 위에서 평가 분석을 진행한다.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 분쟁에서 사회주의자가 이러한 러시아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를 – "반제 국가"나 "식민지"라며 – 편 든다면 이는 정치적 범죄행위다.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또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사회주의자가 러시아를 지지한다면 이는 곧 사회제국주의다. 사회주의 언사로 가장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제국주의 열강을 섬기는 사회제국주의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이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을 제창한다. 우리는 미국 · 서방과 중 · 러 모두에, 동서 강대국 모두에 반대한다.[59]

동시에, 우리는 이들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우리가 2001년 이래로 미국/나토 점령에 반대하여 아프간 인민의 저항투쟁을 지지해 온 것은 그 때문이다.[60]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 침략[61]에 대항하여 이라크 인민의 저항을,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말리의 아프리카 인민을 편 들었다.[62] 그리고 같은 이유

5 9) 제국주의 간 분쟁에 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법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6 0)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들로는, 다음을 보라. <아프가니스탄: 쥐떼들이 탈출하고 있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92.html; <탈레반 승리: 의미와 전망 (문답식 해설 – 맑스주의 관점에서)>,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25.html; <<탈레반: 이해와 오해 (아프간에서 계급 모순 · 여성 억압 · 반제 저항)>>,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8.html/.

6 1)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 한 다음 책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13장을 보라.

6 2). 프랑스의 말리 개입에 대한 RCIT의 다음 성명들을 보라. RCIT: Expel French Imperialism from West Africa! Macron and his G5 Lackeys plan to intensify their colonialist "Operation Barkhane", 15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xpel-french-imperialism-from-west-africa/; Michael Probsting: Au Revoir, Francais! Popular resistance is forcing

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동맹군들에 대항하여 시리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63] 중국 국가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여 위구르 인민을 방어한다.[64]

모든 강대국 (미 · 중 · 서유럽 · 러 · 일)에 대항하는 비타협적인 반제국주의 투쟁과 모든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서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피억압자여!
미·서방이든 중·러든 '모든' 강대국에 맞서 싸우자!
우리 운동 내에 사회제국주의 마름들을 끊어내자!

French imperialism to reduce its troops in Africa's Sahel, 13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

63) 시리아 혁명에 관한 우리의 입장으로는, 다음을 보라. <<시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html/

64) 위구르 족 억압에 대한 성명과 기사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o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blog.wrpkorea.org/2022/05/37.html/

러시아 독점자본: 제조 기업에서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

- 러시아의 제국주의성을 확인해주는 추가 데이터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4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러시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현재 운동진영 내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는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이며 또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여러 문서를 통해 상세히 밝혀왔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러시아가 정치 또는 군사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 · 비중과 비교해서 훨씬 작다.[2]

그러나 우리는 순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제국주의 규정은 레닌이 제시한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과 완전히 부합한다.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출발점은 독점의 형성 및 경제에서 독점의 지배적 역할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가장 종합적인 논문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正義)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 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①카르텔 · 신디케이트 · 트러스트 - 이러한 독점적 자본가 집단을 낳을 정도로 생산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②대 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 서넛 내지 다섯 개의 거대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③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가 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④국제적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카르텔은 이미 백 개도 넘는데, 이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며, 이 세계시장을 '사이좋게' 분할하고 - 전쟁이 그것을 재분할할 때까지는 '사이좋게' - 있다. 비독점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영토적 정치적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세계의 영토적 분할 (식민지)이 완료되었다."[3]

러시아 경제에서 독점의 지배적 역할

1)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우리의 문서들이 다음의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그리고 본 책자에 함께 실려 있는 다음 논문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2)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담고 있는 다음 Alex Steiner의 새로운 글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Alex Steiner: War in the Ukraine: the socialist response, Part I and II, http://forum.permanent-revolution.org/2022/04/war-in-ukraine-socialist-response-part-i.html 및 http://forum.permanent-revolution.org/2022/04/war-in-ukraine-socialist-response-part.html)

3)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쪽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독점체들의 경제 지배가 해당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말해주는 핵심 지표임을 강조해왔다. 러시아 자본의 독점적 성격을 보여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에서의 자본집중도를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자본집중도와 비교한다. 자본집중을 재는 척도로는, 제조 기업의 고용 규모를 보는데 고용 규모 250인 이상 기업, 50~249인 기업, 50인 미만 기업으로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4]

분석 결과, 러시아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 국가보다도 250인 이상 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80%가 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한다. 이에 비해 미국 63%, 독일 54%, 일본 49%, 프랑스 45%에 불과하다. 두 번째 범주 50−249인 기업까지 포함해서 봐도 러시아가 자본집중도가 훨씬 크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제조업 고용 규모[5]

구분	250인 이상	50~249인	50인 미만
러시아	80%	18%	2%
미국	63%	18%	19%
독일	54%	24%	22%
일본	49%	25%	26%
프랑스	45%	22%	33%

여러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이 러시아를 "종속 자본주의" "주변부 자본주의", 심지어는 “신식민지 경제”로 성격규정 하며,

4) Stephen Crowley: Who’s to Blame? Sanctions, Economic Hardship, and Putin’s Fear of Color Revolutions,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767, April 2022, p. 4

5) 같은 글

러시아가 외국 독점체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6] 물론, 러시아 경제가 (내국 독점체가 아니라) 외국 독점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국주의 국가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논문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실제로는 그 반대다. 러시아 경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러시아의 총 투자액에서 내국 기업, 외국 기업, 합작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86.3%, 7.3%, 6.4%로 지난 5년 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7] 은행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러시아 자본이 지배적인 데 반해 외국인 소유주들은 부차적, 종속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내국 자본의 역할은 더 커졌다. (2014년에 외국 은행의 점유율은 23%였던 것이 2018년 13.44%로 크게 떨어졌다).[8]

요약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적으로 내국 독점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러시아 제조업 부문 (즉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핵심부문)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성을 떠받치는 경제적 토대다. 따라서 이것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하는 RCIT 평가분석의 또 다른 확인이다. 러시아의 제국주의 성은 그 정치적 · 군사적 특징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경제에서도 명백하다.

6) 이에 대해서는, 본 책자에 실린 다음 글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7) Veronika Chernova, Sergey U. Chernikov, Alexander Zobov, and Ekaterina Degtereva: TNCs in Rus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Bruno S. Sergi (Ed.): Exploring the Future of Russia’s Economy and Markets: Toward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2019, p. 188

8) Victor Gorshkov: Fundamentals and Recent Trends in Russian Banking,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1

간략한 역사적 유추

끝으로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 지위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간단히 비교 고찰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레닌을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은 1917년 이전의 러시아를, 그 뒤떨어진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간주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비롯하여 1914년 전후의 글들에서 한결같이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프랑스와 같은 범주에서) 말했다. 레닌은 차르 러시아를 결코 스탈린주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식민지로 (오스만제국, 중국, 페르시아와 같은 범주에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격규정 했다. 레닌은 각 강대국들 간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더 독립적인 열강과 보다 덜 독립적인 열강, 경제적으로 앞서간 열강과 뒤떨어진 열강 등등). 그럼에도 레닌은 러시아를 여타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동일한 범주 속에 넣고 보았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인용구들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러시아에서는 최신 유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페르시아 · 만주 · 몽골에 대한 차리즘의 정책 속에서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사적 봉건적 제국주의가 우세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에서만큼 억압받고 있지는 않다."[9]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은 새로운 시대,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몇몇 – 극소수이긴 하지만 – 강대국의 금융자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군사력의 독점이나 광대한 영토의 독점, 또는 소수 민족들과 중국 등등을 약탈하는 특별 편의에 대한 독점이 현대의, 최신의 금융자본의 독점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체한다.)"[10]

"평화 시에조차 러시아는 훨씬 더 잔인하고 중세적이며 경제적으로 후진적이며 군사-관료적인 제국주의로서 제 민족에 대한 억압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11]

"부르주아적이고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대국들 간의 이 전쟁은, 이들 대국 중 한 나라에서 군사적 · 절대주의적 · 봉건적인 제국주의가 급속히 일소되어 버린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순 부르주아적인 제국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더 세질 뿐이기 때문이다."[12]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며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프루동주의이자, 우매한 속물주의다. 어떠한 분배도 오직 '힘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힘은 경제적 발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한다. 1871년 이후에 독일의 힘의 증강 속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3배, 또는 4배 빨라졌고,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에 비해 10배 정도 빨라졌다. 전쟁 말고 자본주의 나라의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전쟁은 사적소유의 기초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쟁은 그러한 기초에서 자라나온 직접적이고도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 균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산업에서의 공황과 정치에서의 전쟁 말고는 주기적으로 교란되는 균형을 회복할 다른 수단은

9).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0쪽

10)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12-3쪽

11)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103쪽

12) 레닌, <국제주의적 언사로 위장한 사회배외주의 정책>,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294쪽

없다."[13]

레닌은 1915년에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관해 논설 한편 전체를 할애했다. 레닌은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후진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자본수출은 거의 없었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이주자는 아예 없었다. 오히려 자본수입이 더 많았고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제국주의는 나라의 빈곤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극단적인 궁핍으로 인해 '빈민 제국주의 (l'imperialismo della povera gente)'라고 불려왔다."[14]

트로츠키 또한 차르 러시아를 일관되게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했다.

"바보나 약삭빠른 사람만이 러시아 측에서 전쟁이 극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6월 3일의 정치질서 전체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를 관료기구 및 귀족과 결합시키려는 – 관료기구가 러시아 자본의 국제적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성공한다는 조건하에 – 시도였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 그 극히 반혁명적인 성격은 모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 현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15]

"그 의미는 러시아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중 가장 뒤떨어졌고 경제적으로 가장 약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지배계급은 러시아의 불충분한 생산력 위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싣자 붕괴된 첫 주자가 된 것이다. 불균등한, 산발적인 발전은 이리하여 가장 뒤떨어진 제국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권력을 잡는 첫 주자가 되게 했다."[16]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억압 국가의 부르주아지였다. 중국 부르주아지는 피억압 식민지 나라의 부르주아지다."[17]

"그러나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중국 부르주아지보다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독립의 혜택을 누렸다. 러시아 자신이 제국주의 나라였다."[18]

트로츠키는 <<러시아혁명사>>에서 러시아 자본주의 경제의 특색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비상한 자본 집중을 부각시켜 보여주었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준 현 러시아 자본의 배치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결합발전 법칙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혁명 직전까지 러시아 농민의 토지경작은 일반적으로 17세기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업은 기술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을 추월했다.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기업은 1914년 미국의 경우 전체 공업인구의 35%를 차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노동자를 둔 기업들의 상대적 비중은 두 나라가 동일했다.

13) 레닌,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104-5쪽

14) 레닌,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트)>,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144쪽

15) Leon Trotsky: Uber den russischen Imperialismus (1916), in: Leo Trotzki: Europa im Krieg, Arbeiterpresse Verlag, Essen 1998, pp. 203-204 (영역은 저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원서는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다.

16)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56

17)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 17

18) Leon Trotsky: The Chinese Revolution (1938), in: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Vol.6 No.10 (Whole No.59), October 1945, p. 316,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그러나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둔 거대기업은 미국의 경우 전체 공업인구의 17.8%를, 러시아의 경우 41.4%를 차지했다!"[19]

그러나 트로츠키는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도 러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산업의 예속은, 같은 이유 때문에 서유럽 화폐시장에 대한 산업의 예속을 의미한다. 중공업 (금속, 석탄, 석유)은 거의 전부 외국 금융자본이 장악했다. 외국 금융자본은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러시아에 보조적인 중간단계의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경공업도 같은 길을 따르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주식의 약 40%를 소유했다. 주요 산업부문들에서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았다. 과장이 전혀 없이, 러시아의 은행, 공장, 생산설비의 지배적인 주식 지분은 국외에 있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독일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 있었다."[20]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러한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경제는 더 이상 외국 자본이 아니라 내국 독점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1917년 이후 성공적인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폐절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1991년 스탈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복고 이후 새 지배권력이 – 특히 1999년 푸틴 집권 이후로 – 내국 독점 부르주아지를 통합하고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재건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다.[21]

19)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2), Haymarket Books, Chicago, Illinois 2008, p. 8

20) 같은 책

21) 이에 대해서는 2001년에 나온, 러시아의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전화에 대한 우리의 첫 분석을 보라.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Russia") 이 글은 상기한 팜플렛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2014)의 부록으로 재간되어 있다.

우리는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맥락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비중 ·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한다.[22] 푸틴의 반동적인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필수적이다.

22)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RCIT: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oming-inter-imperialist-war-on-taiwan/#anker_2;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anker_3/;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다음 책도 보라. Michael Prȯ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ȯbsting: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III부

전쟁 전야

6. 나토도, 러시아도 다 반대!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도하자!

7.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8.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9 [Q&A]우크라이나와 임박해 있는 러시아의 침공

나토도, 러시아도 다 반대!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도하자!

- 어느 쪽 제국주의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 양측 대리인 우크라이나와 돈바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 피억압자의 단결로 독자 해방투쟁!

RCIT 러시아 & 국제사무국 성명,
2022년 1월 25일
www.vk.com/rcit1917 & www.thecommunists.net

1.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벨라루스에도 군대를 주둔시켰다. 푸틴 정권은 자신의 동맹군들인 소위 도네츠크 · 루한스크 "공화국"들을 지켜주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 나토는 이미 상당수의 병력을 러시아 인접국들에 주둔시켰다. 현재 폴란드에는 약 4,000명의 미군과 1,000명의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다. 발트해 국가들에도 약 4,000명의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는 150명 이상의 미군 "군사고문단"이 배치되어 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새로 침략 행위를 다시 한다면 나토도 계속해서 상당 규모로 증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가 있다. 실제로 푸틴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병력을 증강할 것이다."

3. 현 시기 쇠퇴 ·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이 긴장고조의 객관적 배경이다. 1990년대 이래로 나토는 러시아를 한발 한발 밀어내고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서방 제국주의가 급속히 쇠락하면서 (그 최근 사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역사적인 패배를 맞고 카자흐스탄 민중봉기를 맞아 무력함을 드러낸 데서 보듯), 푸틴 정권은 이제 그 동안의 동유럽 상황을 뒤집고 나토를 다시 밀어낼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통제 하에 두거나, 안되면 최소한 중립적인 "완충국"으로 바꿔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유럽 동맹국들을 떼어놓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월 21일 러-미 양국 대표 간의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자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직원 및 가족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RCIT 러시아 지부는 양측의 반동적 전쟁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토도 러시아도 모두 제국주의로 서로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서방의 사회주의자와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는 모두 각각 '자' 국 정부의 배외주의 캠페인과 전쟁몰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나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신화 같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 나아가 RCIT는 나토 같은 모든 제국주의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지배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대해서도 해체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여 독립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즉 어느 쪽 제국주의 진영에도 지지를 주지 않고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5. 반식민지 자본주의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부르주아 정부나 돈바스 "공화국" 지도부는 독립적인 세력이 아니다. 2014년 내전 이래로 전자는 서방 제국주의의, 후자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각각 대리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러시아 (및 그 대리인 돈바스) 간의 전쟁 경우도 양측 모두 반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6.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를, 피억압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켜야 한다. RCIT는 언제나 러시아의 압제에 대항하는 체첸 인민의 영웅적인 해방투쟁을 지지해왔다. 우리는 또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CSTO 군대와 정권의 보안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한 노동자 · 민중의 봉기를 지지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선호 주민들의 민족자결권도 지지한다. 그러나 러시아든 서방이든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려는 우크라이나 내 세력들 –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들 세력은 강대국의 제국주의 목표에 봉사한다 – 에는 어떠한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1930년대 제4인터내셔널 당시 트로츠키는 히틀러가 나치 독일의 제국주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구실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독일계 소수자들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라시아의 헌병 푸틴도 자신을 구 쏘연방 국가들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구세주로 내세우며 비슷한 데마고기를 펴고 있다. 실제로 루스키 미르는 푸틴 정권이 서방과 더 나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국내 반발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달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7. RCIT는 일관된 반제국주의 ·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나토 점령군 (2021년 8월까지)에 대항하는 아프가니스탄 인민의 투쟁, 또는 스페인 국가에 대항하는 카탈루냐 인민의 투쟁,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투쟁 등에 대해서도 지지해왔다. 야바위 사회주의자 말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해방운동 활동가들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는 – 양 진영 어느 쪽이든 – 안 된다고 말해왔고, 지금도 이 점 분명히 밝힌다. 전진하는 단 하나의 길은 독립적인, 독자의 해방투쟁이며 만국의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단결이다!

8. 우리는 어느 측이든 제국주의 진영을 –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 지지하는 자칭 "사회주의" 당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KPRF(러시아연방 '공산' 당) 국회의원단은 돈바스공화국의 독립을 정식 승인하는 의회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지지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보로다이 전 도네츠크 정치지도자는 현재 푸틴의 통합러시아당 의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의 일부를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이 탈환할 수 있게 러시아가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이 승인될 시, 전쟁은 직접적인 필요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방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도 오랫동안 러시아 ·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해 왔다. 반면 미국에서 민주당 안팎의 소위 "좌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이른바 4인방 스쿼드, 민주사회주의자 [DSA] 내 제 세력)는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해왔다. 서유럽의 "사회주의" 당들, 예를 들어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통합좌파, 스페인공산당이나 그리스의 시리자 등은 나토 국가 정부들에 봉사한다. 또 우크라이나의 몇몇 좌파 단체들은 분명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대국 간의 대립을 이용하겠다고 친러와 친서방 사이를 오가고 있다.

9.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RCIT와 함께 할 것을, 노동자 · 피억압인민의 해방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혁명세계당 창건이 필요하다. 우리와 함께 이 세계당을 만들자!

▷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의 전쟁몰이를 타도하라!
▷ 군사 충돌 시 어느 쪽 제국주의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나토도!
▷ 나토와 CSTO 둘 다 해체!
▷ 일체의 제국주의 제재 반대!
▷ 양대 진영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맞서 노동자·피억압자가 단결하자!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 모든 강대국 및 그들의 대리인을 타도하자!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만세!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성명
2022년 1월 29일
www.thecommunists.net

1. 나토와 러시아 간 현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들 열강의 대리인들 간의 전쟁이든 말이다. 그 본성상 이 사태는 현 세계정세의 주 이슈다. 따라서 혁명가들 – 직접 관련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 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반제국주의에 기초하여 명확한 원칙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2. 이것이 더더군다나 중요한 이유는, 나토와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 간 긴장 고조로 제국주의 간 냉전이 열전으로 전화하는 첫 번째 사태 – 지난 십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가속화가 시작한 이래로 첫 번째 –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제국주의 간 분쟁 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전조다.

3. 게다가 이 분쟁은, 그것이 설사 이번에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하나 또는 복수의 관련국에서 중대한 국내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굴욕적인 결과가 닥칠 경우 젤렌스키 정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또 푸틴 정권의 경우 1999년 출범 이후 최악의 국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 정부들이나 바이든 정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서, 현 나토–러시아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칠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담고 있고, 따라서 혁명가들에게도 긴급한 문제다.

4. 이미 우리가 지난 성명에서 설명했듯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나토와 러시아 양 진영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열강 간의 분쟁을 반동적인 분쟁으로 간주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들"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지배 지역)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양쪽 모두 반동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야 한다.

5. RCIT는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은 3대 기둥에 근거한 강령 · 전술을 제창한다.

i) 모든 진영에서 혁명적 패패주의; 어느 진영이든 일체의 반동 진영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에 반대한다! 평화주의에 반대한다!
ii) 반배외주의
iii) 친해방 반제국주의

6. 나토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둘 다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은 어느 강대국이든 일체 지지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

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조국” 방어를 거부하므로,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근접해 오는”지,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가 위협받는”지,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지, “유럽이 미국과는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지 등에 대해 경계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 오직 사회제국주의적 애국주의자들 – 서방의 애국주의자든 중 · 러의 애국주의자든 – 만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걱정한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이 부닥쳐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그 어떤 일체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조국"만이 있을 뿐이다. 국제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이 혁명가들에게 유일한 조국이다.

7. RCIT는 제국주의전쟁에 대항하는 계급전쟁 정책을 제창한다. 모든 강대국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을 타도하라! 혁명가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한다. 실제 전쟁 시,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의 정식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라"와 카를 리프크네히트의 구호 “주적은 국내에 있다”로 표현된 정책을 제창한다.

8.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서방에서든 중 · 러에서든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개량주의 당들 (예를 들어 스페인의 포데모스, 통합좌파, 스페인공산당) 일체를 비난한다. 그러한 참여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스페인의 당들처럼 그러한 침략에 대해 입으로만 부동의를 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9. 또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정부들에게 어떻게 보다 성공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조언하는 일체의 행동을 비난한다. 이러한 사회제국주의 정책의 예로는,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인 “유럽좌파당” (독일의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의 통합좌파와 공산당, 그리스 시리자 등의 유럽 단위 연합체)이 EU 정부들에게 "유럽은 독립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 (2022년 1월 25일 성명)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탈린주의 당 KPRF (러연방 ‘공산’ 당)가 러시아 두마에 소위 “돈바스 공화국들”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 법안은 푸틴의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10.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한 제국주의 분쟁 · 전쟁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강대국들 간 “평화공존”에 기반한 그 어떤 “새로운 세계질서”도, 수많은 개량주의 · 스탈린주의 당들이 제창하는 그 어떤 "다극 세계질서" 구상도 다 반동적인 공상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라이벌을 희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은, 사회주의자들은 어떠한 강대국도 없는 세계를 위해 싸우지, 각자 자신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늘어선 세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노동자 · 농민공화국 연방의 창설로 결과할 국제 사회주의혁명 과정만이 전쟁과 억압 없는 세계를 수립할 수 있다!

11. 이러한 이유로, RCIT는 모든 형태의 평화주의를 날카롭게 비난한다. 자본가 정부들에게 평화를 선서하게 함으로써 전쟁이 근절될 수 있다고? 천만에, 오직 자본가 정부 자체를 근절함으로써만 전쟁을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맑스주의자들이 "전쟁과의 전쟁"을 말하는 이유다! 국제 사회주의혁명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모두 뒤떨어진 후진적 이데올로기로, 오직 인민대중 속에 환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12. 그러나 이것은 당면한 목표와 개량을 위한 투쟁을 무시하는 일종의 최후통첩주의 정책을 제창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적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 피억압자의 계급의식과 조직화를 높여낸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보다! 그 때문에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열강을 약화시키는 모든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서방 나토나 러시아 지배 CSTO와 같은 제국주의 군사동맹에서 벗어나려는 각국 투쟁을 지지한다. 이러한 발걸음들은 나토와 CSTO를 분쇄하는 목표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자국에서 이러한 동맹들의 모든 군사기지 폐쇄를 위해 싸워야 한다.

13. 같은 맥락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강대국이 상대방 강대국에 가하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제재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반제국주의 정책은 제국주의 열강을 분칠, 미화하는 개량주의적 접근방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이 러시아를 "적법한 국익을 가진 평화 세력"으로 미화하는 것은 그러한 반동적인 정책의 한 예에 불과하다. 각종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EU"를 제창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예다.

14. 모든 강대국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와 경제제재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는 노동자 · 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단결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설파하고, “조국”의 기치를 중심으로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국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정책이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와의 일체의 통일단결에 반대하며, 제국주의 “조국” – 그것이 ‘우리’ 나라든, 다른 나라든 – 을 위한 모든 형태의 “애국주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을 통해서만 국경을 가로질러 아래로부터 노동자 · 피억압자를 통일단결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15.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의 반전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글로벌 행동의 날’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맑스주의자들이 독자적인 강령을 유지하는 한 개량주의 · 평화주의 세력들과의 협력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완전히 적법하다.

16. 모든 강대국 및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비타협적인 반대가 작은 나라들과 피억압 인민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맑스주의는 민족 허무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민족 허무주의는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RCIT가 서방에서든, 중 · 러에서든 일체의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다. 러시아에 대한 체첸 인민의 저항, 도살자 아사드와 러시아 군대에 대한 시리아 인민의 저항, 프랑스/EU 점령군에 대한 말리 인민의 저항, (2021년 8월까지의) 미 점령군에 대한 아프간 인민의 저항,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저항, 토카예프 정권 및 그의 상전 러시아에 대항하는 카자흐스탄 인민의 저항 등은 우리의 반제국주의 강령에 대한 몇 가지 예일 뿐이다. 반제국주의는 친해방주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반제국주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제나 RCIT는 피억압 인민들의 정당한 민주주의투쟁 · 민족해방투쟁을 편 들기를 거부하는 스탈린주의 세력과 각종 중도주의 세력들을 날카롭게 규탄했다.

17. 그러므로 RCIT는 우크라이나 인민이 일체의 외세 개입 ·

지배를 벗겨내고자 하는 정당한 열망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 진정한 독립 우크라이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이 또는 저 강대국과의 어떠한 동맹도 모색해선 안 된다. 하나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을, 그와 경쟁하는 다른 강대국과의 동맹과 연계하는 것은 독립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서방 제국주의 또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화시키는 데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18. 따라서 노동자공화국으로서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가들은 독립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권 주민에게 언어, 종교, 문화 등등의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와 함께 가능한 가장 폭넓은 자치권을 제공할 것이다.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 소수자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다. 즉 그들이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그러한 우크라이나 국가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든, 또는 그들이 그러한 국가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9. 우리는 또 제국주의 러시아의 군사 침략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열망을 존중하며 거기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지난 150년의 시간 대부분 동안 러시아에 의해 억압 받아왔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자유로웠던 것은 오직 레닌과 트로츠키 시절의 소련 초기뿐이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주의 독재 하에서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겪은 뒤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제기한 것이 트로츠키였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무조건 반대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성의 약 3분의 1이 러시아의 침공 시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동시에, 주민 상당 부분이 젤렌스키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젤렌스키 정부의 지휘 하에 집결하길 거부한다.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대리인으로 복무하는, 사기 저하되고 부패한 자본가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독립과 외국 침략자들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한 유일한 길은 키이우의 자본가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20. 우리는 일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유엔 평화유지군 주둔을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본다. 당연히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은 그들의 열망을 존중하고 공유한다. 그러나 역사는 유엔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기관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유엔군은 (예를 들어 아이티에서) 이러한 강도들의 이익을 이행하거나, 주민 보호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빨 없는 마네킹 군대 구실을 한다.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에서 수천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학살을 초래한 네덜란드 유엔 평화유지군의 부끄러운 배신을 상기하라). 객관적으로, 그 같은 좌파 제창자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러한 제안은 외세에 의한 우크라이나 개입의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거부권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엔의 자비로운 역할을 바라는 것은 대 착각이다. 즉 유엔군을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스스로 러시아에의 의존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노동자공화국 수립을 지향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만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수 있다.

21.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 추상적인 요구로 국한할 수 없다. 또는 심지어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에 지지를 보내는 등, 이런 태도 · 입장들은 사회주의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자들은 나라 안팎의 다른 국제 사회주의 세력들과 손잡고 러시아의 전쟁몰이꾼들에 능동적으로 반대해야 하며, 어떤 전쟁에서든 러시아의 패배를 내거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22. 나토–러시아 분쟁의 반동적 성격과 그에 따른 혁명가들의 임무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다고 RCIT는 거듭 강조하는 바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힘을 합쳐,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면서 동시에 피억압 인민들의 정당한 해방투쟁을 무조건 지지하는 국제 조직 건설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혁명세계당을 만들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전진시킬 단 하나의 길이다!

RCIT 국제사무국 & 러시아 RCIT 공동 채택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2월 9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서론
1. 러시아는 아니고 나토가 유일 침략자다! 정말?
2. 누가 침략자인가가 사회주의자에게 기준인가?
3. 무엇이 강대국 간 긴장 고조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인가? 전쟁광 패당인가, 제국주의 체제인가?
4. 강대국의 "적법한 세력권"? 사회주의자가 제국주의 '세력권'을 옹호해도 되나?
5. 푸틴과 대러시아 배외주의: "우크라이나는 독자 민족이 아니다"
6. 스탈린주의 대 볼셰비즘: 우크라이나와 민족자결권
7. 카자흐스탄에서 시리아까지: 스탈린주의는 반혁명 편에 서고 있다
8. 러시아 제국주의는 "사회진보 세력"인가? 한 주목할 만한 스탈린주의 문서에 대한 토론
9. 스탈린주의와 사회제국주의: 맺음말

서론

현 나토–러시아 간 긴장 고조는 지난 10년간 세계정치의 핵심 특징이 된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장 첨예한 표현이다. 이제 이 패권쟁투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들 강대국(및 대리인들)간의 전쟁 위험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은 나토와 러시아 양 진영 모두를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다. 우리가 이들 열강 (및 우크라이나 내 그들 대리인) 간의 분쟁을 철저히 반동적인 분쟁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분쟁에서 양쪽 모두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를, 즉 분쟁 당사국 정부들의 패배와 이 분쟁을 국내의 혁명적 위기로 전화시키는 강령 · 전술을 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1)]

당연히 이러한 사건은 모든 정치조류들을 성분 증명하고 판가름하는 핵심 시험대다. 세계정치의 이 같은 대 사태는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평가분석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투쟁방향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전술적 슬로건을 첨예하게 벼리도록 강요한다. 즉 계급 간 모순, 국가 간 모순의 격화가 어떠한 모호함과 회피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위기 때 정치조류들의 진정한 본질이 밝히 드러나버리는 이유다.

이 정치법칙은 또 하나의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1)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위기 및 그에 따른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의 격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강대국 패권쟁투 가속화는 투쟁하는 계급들 (및 계급 분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 간의 모순을 또한 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 나토–러시아 간 긴장 고조와 같은 위기사태는 불가피하게 맑스주의와 기회주의 간의 분할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성명과 기사를 통해 각종 스탈린주의, 사민주의, 중도주의 당들이 현 사태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평가분석하고 비판해 왔다. 여기서는 러시아 제국주의 진영을 지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편을 드는 스탈린주의 당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토론은 다른 기회주의 세력들의 성명에서도 같은 생각과 견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의 주장을 평가토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반대 논거를 설명할 것이지만, 그 동안 줄곧 제시해왔던 강대국들에 대한 정치 · 경제 · 군사적 평가분석을 상세히 되풀이 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책자[2]와 여러 팜플렛에서 광범위하게 평가분석 했으므로, 독자들에게는 각주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문헌에서 사실들과 수치들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1. 러시아는 아니고 나토가 유일 침략자다! 정말?

2)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드는 스탈린주의 당들 간의 공통 테마는 미 제국주의 및 나토가 현 긴장 고조의 유일 책임 세력이라는 주장이다. 대조적으로, 다른 분쟁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지 서방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일 뿐인, 즉 팽창주의 요구를 갖지 않은 세력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스탈린주의 · 준 스탈린주의 세력들,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합체가 며칠 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분쟁당사자 중 침략자는 오직 미국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 세계는 두 주요 핵 강국 간의 임박한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과거처럼 미국이 나토를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며 전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상당의 무기 및 기타 '치명성 무기 원조'를 공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기 위해 8,500명의 미군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 '비필수' 미 대사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있다. 기업 언론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는 적으로 묘사하는 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기업 언론이 전쟁 불꽃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주둔 확대를 통해 현재 이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도발침략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본격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반전 단체들의 통일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3]

3) Call To Action: No War With Russia Over Ukraine, 29 January 2022, https://popularresistance.org/nowarwithrussia/?link_id=0&can_id=8adf930454a2e45589616230720f774d&source=email-us-peace-council-statement-the-escalating-crisis-in-ukraine-poses-an-imminent-threat-to-world-peace&email_referrer=email_1426203&email_subject=call-to-action-stop-the-war-with-russia-

흥미롭게도 이 성명의 서명자 명단에는 노동자세계당(WWP), 공산주의자당, 자유의길 사회주의조직 (이상 미국), 아일랜드공산당, 뉴질랜드 조선인민공화국 협회 (NZ DPRK Society) 같은 각종 (준)스탈린주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행동당 (만델파 "제4인터내셔널" 내 소위 좌익반대파의 주도 세력) 뉴욕 지부도 포함되었다. 사회주의행동당의 경우, 이 당이 속한 "제4인터내셔널"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편을 들길 거부한다는 사실에 의해 다소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4] 명백하게도, '자'국 일국 사업에서 사회주의행동당이 갖는 기회주의 욕구는 자신의 국제주의 원칙보다 더 크다!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공산당은 자체 성명을 통해 이 분쟁에서 침략자는 오직 미국이라는 생각을 재천명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인명 손실과 환경 파괴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행보가 아니라 나토의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 및 나토의 상설구조협력 (PESCO) 전략에 따른 EU 군사전략 때문임이 분명하다. 나토의 행보는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외국군과 용병의 철수를 명시한 2015년 민스크 평화협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5]

포르투갈공산당(PCP)도 같은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동에서 라틴아메리카에까지,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미 제국주의는 명령에 굴하지 않고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와 국민에 대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아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하며 중국 · 러시아에 대한 대결 정책을 강화한다... 포르투갈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과 나토, EU가 추진하는 대결 고조 정책을 규탄한다. 군사적 · 경제적 · 정치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긴장 고조는 집중적인 역정보 캠페인에 의해 지속되면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6]

캐나다공산당도 같은 생각을 피력한다. "유럽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주된 위험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워싱턴과 나토로부터 온다." [7]

예를 하나 더 제시한다면, 멕시코 인민사회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2021년 말부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두 분리주의 돈바스 공화국에 대한 군사 캠페인이 계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인민사회당은 미국 · 유럽 동맹들의 후원을 받아 무력 사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모한 열망을 가장 강력히 비난하는 바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목표로서,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우크라이나나 역내의 평화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뿐, 오히려 정반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스크 조약을 수없이 위반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인민들과 진보적 단체들에게 이 지역에서 나토군의 도발적인 포위 작전을 경계하고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8]

over-ukraine

4) 다음을 보라. Against NATO and Russian military escalation in Eastern Europe, Statement by the Executive Bureau of the Fourth International, 30 January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503

5) Communist Party of Ireland: The Irish establishment are collaborators in NATO military strategies, 26 January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Ireland-The-Irish-establishment-are-collaborators-in-NATO-military-strategies/

6) PCP: Communique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CP of February 1,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Portuguese-CP-Communique-of-the-Central-Committee-of-the-PCP-of-February-1-2022/

7) CP of Canada: Act now to stop the US-NATO drive to war with Russia! In: PEOPLE'S VOICE - Issue of February 1-14,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Canada-PEOPLES-VOICE-Issue-of-February-1-14-2022/

8) PPS (Mexico) Statement on Ukraine and Kazakhstan, 31.1.2022, http://www.solidnet.

미 제국주의 (및 미제의 유럽 동맹들)가 침략자라는 주장은 물론 옳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승전국이었다. 미국은 제국주의 진영 내 주도세력이자 소련이 이끄는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주 적수가 됐다. 1991년 소련 붕괴 뒤 워싱턴은 10여 년간 패권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진실이다. 미 제국주의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쇠퇴하고 있으며, 지금은 절대 패권을 상실했다. 경제적으로, 미 제국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에 의해 추월되었다. (또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거의 추월 직전이다).[9]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핵 강국이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도전 받지 않는 패권국이 아니다. 미국의 세계질서는 복수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간의 패권경쟁 가속화와 거대한 불안정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정세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문서들에서 광범위하게 설명해왔으므로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자들에게 RCIT의 문헌을 참조하도록 권한다.[10]

org/article/PPS-of-Mexico-Statement-on-Ukraine-and-Kazakhstan/

9) 다음을 보라. Michael Pro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10)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이 문제에 관한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다음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지난 10년간 글로벌 정세의 이러한 변화는 미 제국주의의 몇 차례 굴욕적인 후퇴와 패배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돈에 찬 패배였다. 2001년 11월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하여 전복한, 그리고 20년 동안 서방 점령군에 맞서 영웅적인 게릴라 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세력, 탈레반이 다시 권력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사태발전의 결과물이다.[11]

그러나 미국의 후퇴가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다른 나라들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도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고 중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국으로 들어선 중앙아시아도 같은 경우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영향력을 확장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중국은 모든 대륙에 거대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모든 연안국들의 영유권 주장과 상관없이, 남중국해 (또는 베트남이 주장하는 명칭으로는 "동해") 전체를 장악하려고 한다. 베이징은 또 중국 내전 종식 이래로 미 제국주의의 동맹으로 있는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12]

11) 아프간에서의 제국주의 패배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n-afghanistan/. 특히 다음 두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탈레반: 이해와 오해 – 아프간에서 계급 모순 · 여성 억압 · 반제 저항>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8.html/; Afghanistan and the Left: Closet Social-Imperialism. A critique of reformist and centrist forces which are outraged about the Taliban's victory against the U.S. occupation in Afghanistan, 24 Sept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fghanistan-and-the-left-closet-social-imperialism/.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

중국보다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강한 러시아는 중동과 북 · 동 · 중앙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다른 여러 나라들 및 지역들 (중앙아시아, 동부 우크라이나, 시리아, 리비아, 말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 공식적으로든, 은폐된 형태로든 – 주둔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보여주고 있듯이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제국주의 헌병으로 행세하고 있다.

오늘 이 점은 현 나토 • 러시아 간 분쟁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10만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켜 놓고 이 나라에 대한 침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러시아다. 나토가 지금 동유럽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긴장 고조는 분명히 모스크바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이유만으로도 러시아에 대해 정치 · 군사적 공세를 펼칠 생각이 없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이 지난 10년 동안,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 (및 중국)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해 단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미국만을 침략자로 비난한다면, 그것은 푸틴 정권에 대한 미화이자 면죄부 부여일 뿐이다.

스탈린주의자들 가운데 보다 명민한 관측자들이 세계질서의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탈린주의 당 중 하나인 인도공산당(M)은 나토–러시아 사태와 관련하여 강대국들 간 역관계의 중요한 변화를 지적

post_538.html/.

하는 논설을 최근 발표했다.

> "그러나 러시아가 그 향상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권리 주장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은 경제위기로 약화되었으며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지정학적 현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2008년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맹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레드 라인'을 긋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러한 러시아 침공이라는 생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나토 동맹국들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저항에 부닥쳐 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동맹에 포함시키려는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많은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 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내 신나치 세력의 증대하는 위협과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자국에 미칠 낙진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 러시아 군사적 충돌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결국, 러시아는 여전히 고급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유럽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13]

그러나 이러한 '정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도 스탈린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 이 점을 살펴볼 것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일면적으로 서방 제국주의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러시아 (및 중국) 제국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푸틴의 푸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인 예로 겐나디 주가노프가 이끄는 러시아 KPRF (러시아연방공산당)가 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이 당은 민중봉기를 진

13) R Arun Kumar: Imperialist Designs in Ukraine, CPI(M), January 30, 2022, https://peoplesdemocracy.in/2022/0130_pd/imperialist-designs-ukraine

압하기 위한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군사 개입을 공공연하게 환영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서방이 러시아 접경지 전역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이러한 반혁명 지지를 정당화하고 있다.[14]

이 동일한 사회애국주의 정신이 KPRF를 추동하여 돈바스 "공화국들"의 독립을 정식 승인하는 의회 법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보로다이 – 전 도네츠크 정치지도자이자 지금은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의원인 – 는, 분리주의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영유하고 있는 영토 일부를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러시아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돈바스 공화국들이] 승인될 시에 전쟁은 직접적인 필수가 될 것이다."[15]

우리는 나토 국가들만이 "제국주의"의 자격이 있고 그들의 라이벌 러·중은 그렇지 않다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의 이론적 결과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맺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수정주의적인 "초제국주의" 이론에 영합하는 입장이다. 이 개념은 1914년 카우츠키에 의해 정립됐다. 얄궂게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에!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경제 법칙이 부르주아지를 추동하여 제국주의의 단계를 극복하고 "초제국주의"로 불리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초제국주의 '시대'

14) 인용 출처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카자흐스탄 민중봉기와 푸틴의 애국적 "공산주의자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36.htm/.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PRF: Признаем республики ДНР и ЛНР – остановим войну на Донбассе! 2022-01-25, https://kprf.ru/party-live/opinion/208140.html; Maria Tsvetkova: Ukraine war necessary if Russia recognises breakaway regions – pro-Kremlin MP, Reuters, January 20, 202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war-necessary-if-russia-recognises-breakaway-regions-pro-kremlin-mp-2022-01-20/

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 증가와 함께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착취 증가를 핵심 특징으로 한다.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은 점차 패권경쟁을 극복하고 단일의 제국주의 트러스트나 동맹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역사적 경험이 이 이론을 완전히 논파한 것은 물론이다. 강대국들은 최대 1억 명의 죽음을 야기한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서로 싸웠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패권경쟁이 어느 정도 약해진 시기(1948~91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러한 열강들 간의 모순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스탈린주의 노동자 국가(퇴보 타락한 노동자 국가)에 대한 그들 공통의 적대가 메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일이십년 동안 새로운 강대국들 (러시아와 중국)이 등장했고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이 다시 한 번 세계정세의 핵심 특징이 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며 (서방)제국주의 국가들이 모두 미국의 영도 하에 하나로 뭉친다는 스탈린주의 사상은 이 같은 카우츠키주의 "초제국주의" 론을 리메이크한 것이다. 레닌이 이 개념에 대해 언급했듯이, "여기 있는 제국주의를 무시하려는 이러한 충동에 맑스주의란 티끌만큼도 없다."[16]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룬 우리의 다른 문서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17]

16) V.I.Lenin: Preface to N. Bukharin's Pamphlet,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1915), in: LCW Vol. 22, p. 106

17). 다음을 보라. Michael Pro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5,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2. 누가 침략자인가가 사회주의자에게 기준인가?

러시아는 아니고 나토/미국이 유일 침략자라는 주장은 이와 같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관계에서도 틀렸지만, 정녕 중요한 오류는 '누가 침략자인가' 하는 문제로 쟁점을 몰고 가는 것이다. 현 나토–러시아 대결과 같은 분쟁에서 어느 강대국이 더 강한가, 더 공격적인가에 논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데 봉사한다. 미국이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대하여 분쟁을 유발했는가, 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10만 여 병력을 집결시켜 긴장을 촉발시켰는가 하는 문제들은 결정적인 쟁점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분쟁에 대한 성격규정을 결코 누가 먼저 도발 · 침공을 시작했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 레닌/볼셰비키는 1차 세계대전 개전 몇 달 뒤인 1915년 봄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통칭 '베른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현 전쟁에 대한 태도 ·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정식화했다.

"어느 쪽이 먼저 군사 공격을 가했는가, 혹은 어느 쪽이 최초 선전포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자의 전술 결정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 조국방어, 적의 침략에 대한 반격, 방어전 따위와 같은 쌍방의 문구들은 인민을 기만하는 말에 불과하다."[18]

또 어느 열강이 더 강하고 어느 열강이 더 약한가는 결정적인 쟁점이 아니다. 우리는 더 강한 강도에 대항하여 더 약한 강도를 편 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강도들에 반대한다! 레닌은 이 같은 접근법을 위 볼셰비키 당 재외지부 회의 몇 달 뒤에 발표한 유명한 팜플렛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제시한다.

"1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에 대항하여 보다 '정당한' 노예 재분배를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방어'를 위한 전쟁이란 용어를 이러한 경우에 갖다 붙인다면 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류이며, 현실에서 그것은 교활한 노예주가 평범한 사람들과 속인들,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순전한 사기극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오늘날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현 전쟁, 즉 노예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노예주들 간의 이 전쟁에서 '민족' 이데올로기와 '조국방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인민을 기만하고 있다."[19]

여기서 레닌은 1914년 이전 상황, 즉 영국 (및 프랑스)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상황을 예로 든다. 이 영 · 불과 비교할 때 독일은 약체였다. 영 · 불 대신 미국/나토를, 독일 대신 러시아 (또는 중국)를 각각 대입해보라. 그러면 현 세계정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상이 그려질 것이다.

"부르주아적 정의와 민족적 자유 (또는 민족의 생존권)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식민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의 적들은 독일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독일의 동맹국 오스트리아에게 억압받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그야말로 '민족들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차르 치하 러시아의 슬라브인들보다 의심할 바 없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은 민족들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들의 억압을 위해 싸우고 있다. 보다 젊고 보다 강한 강도 (독일)가 늙고 너무 처먹어서 비만한 강도를 강탈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할 일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강도 모두를 타도하기 위해 이들 간의 싸움을 이용해야 한다."

18)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1쪽

19)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32쪽

[20]

한마디로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크고 강하냐, 또 과거에 더 공격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강대국들에 반대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는 새 도전자가 기존 패권자를 꺾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쟁투를 지지해선 안 된다!

3. 무엇이 강대국 간 긴장 고조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인가? 전쟁광 패당인가, 제국주의 체제인가?

친러 스탈린주의자들의 논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은, 강대국 패권경쟁의 원인을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근본 모순에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전쟁 위험이 미국 지배계급 일각의 비합리적, 군국주의적인 의도의 결과물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 같은 반동적인 집단이 없었다면, 외교 협상과 평화적 해결책이 완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공산당 (CPUSA)의 기관지 <<피플즈 월드>>를 인용하여 예를 들어보자.

> "이 분쟁에서 러시아의 마지노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 접경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 미국이 공격적인 군사 무기를 절대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하고 있다. 그러한 무기를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외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러시아로서는 개입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 기조가 펜타곤 [국방부]과 위험한 군산복합체에 의해 장악되어 있지만 않았더라도 전쟁보다는 외교를 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21]

20) 같은 책, 35-6쪽

21) John Wojcik: Who is invading whom? U.S. forces already in Eastern Europe, CPUSA, January 25,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who-is-invading-whom-u-s-forces-already-in-eastern-europe/

긴장 고조에 대한 이 같은 설명은 우리가 다른 기사에서 분석한 전(前)스탈린주의 유럽좌파당의 나토-러시아 분쟁 관련 최근 성명들과 일치한다.[22] 이 유럽 단위 연합체에는 독일의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의 통합좌파 & 공산당,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당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스페인 당들은 부르주아 정부에 입각해 있는 당들이다. 막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여 러시아와 대치한 나토 회원국 정부, 바로 그 정부의 일부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은 스탈린주의의 특징이 아니다!

제국주의 열강 간의 근본 적대에 눈을 감고 그 대신 특정 정당이나 집단한테서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찾는 이 같은 접근법은 맑스주의와 아무 공통점도 없다.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군국주의 정책, 반동적 전쟁몰이, 전쟁 개시를 여러 번 봐왔다. 돌아가며 자본가 권력을 맡은 보수 정부 하에서도, "진보" 정부 하에서도 모두 일어났던 일들이고, 공화당이 이끄는 미 행정부 하에서도, 민주당이 이끄는 미 행정부 하에서도 모두 일어났던 일들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나아가 "공산"당이 입각해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 일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프랑스공산당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와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토 전쟁에 프랑스가 참가했던 당시에 연립정부 일원이었다).[23]

22) 미하엘 프뢰브스팅, <현 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eu_26.html/.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3 in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제국주의 전쟁몰이가 "나쁜" 정부에 의해, "악의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평화 활동가들 속에서 혼란을 자아낸다. 그 같은 신화는 다른 정당이 집권하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평화적 발전이 완전히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즉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 없이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 즉 지난 120년의 역사는 그 반대를 입증했다. 레닌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분석을 수없이 강조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기독교 목사들 (애국과 인류와 평화를 설교함에 있어 조금도 기회주의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 아니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단계로서, 평화만큼이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의 적법한 형태다."[24]

"... 전 세계적 차원의 현대 독점자본주의의 결과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즉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유지되는 한은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임을 보여준다."[25]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26]

스탈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전쟁 불가피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설교한다. 이러한 평화주의 유토피아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이들 스탈린주의 당은

24) 레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현황과 임무>,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94쪽

25)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레닌전집 63권, 이정인 옮김, 아고라, 12쪽

26)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5쪽

(전쟁몰이에 반대한다고 하는) 부르주아 정당과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자본가 정부에 들어가려 한다. 우리가 전에 보여줬듯이, 당연히 이것은 먹히지 않는다. 그 결과, 스탈린주의 당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지지자가 되었다.

4. 강대국의 "적법한 세력권"? 사회주의자가 제국주의 '세력권'을 옹호해도 되나?

스탈린주의 당들은 이와 같이 부르주아 세력과 동맹을 구축하고 자본가 정부에 참여하는 공상적이고 배반적인 정책을, 글로벌 차원에서도 계속한다. 그들에 따르면, 전쟁몰이는 현재의 역사적 쇠퇴기에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므로 강대국들 간의 평화적 타협은 완전히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스탈린주의자들은 강대국들이 서로의 제국주의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공산당이 낸 또 다른 성명을 인용해보자.

"역사와 최근 사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서방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나토의 침략 정책을 밀고 감으로써 동유럽을 지금 휘감고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것이 침해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하고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확대 배치할 경우 – 현 행정부를 포함하여 그동안 다수의 미 행정부들은 이러한 확대 배치를 위협해 왔다 –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고 실험이 유용하다. 먼로 독트린 선언 이래로 미국은 서반구 전체를 핵심 전략적 이익으로 선포해왔다.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가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이 직접적으로 국경에 닿아 있는 나라에 배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러시아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무기 (미국이 관리하는 독일 주둔 나토 핵무기 같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접경지를 따라 배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5분 만에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27]

일관된 논리가 있다. 미국공산당은 먼로 독트린과 미 제국주의의 세력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대를 표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이 팽창주의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러시아 고유의 세력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공산당은 러시아판 먼로 독트린의 실행을 지지하며, 그리하여 워싱턴과 모스크바 양측 모두가 자신의 세계 분할 몫을 확고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 무역" 유토피아의 지정학적 버전으로, 공상적인 "공정 제국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와 미제의 먼로 독트린을 반대해왔다. 맑스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러제의 푸틴 독트린에도 못지않게 반대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의 접근방식은 실제로 러 · 중 제국주의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 최근 푸틴–시진핑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이 보여주듯이, 이 두 강대국은 "진정한 다극 체제"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제창한다.[28] 미국의 패권은 복수의 강대국들의 패권으로 –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여기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 대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스탈린주의자들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의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1914년 이전에 존재했던 종류의 제국주의 세계질서로 대체하기를 원한다. (밑에서 보겠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다자간 제국주의 질서를 제창, 옹호하는 행보는 유엔과 유엔 정치원칙에 대한 스탈린주의 당들의 되풀이되는 긍정적인 언급에서도 볼 수 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성명 내용을 보라. "우리는 유엔헌장 원칙들과 헬싱키회담 최종의정서에 따라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개입, 나토 확대, 유럽연합의 군국주의화에 반대하며, 평화와 군축을 위한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29]

그리고 위 1장 서두에서 언급한 공동성명에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준수하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현 분쟁을 해결하라"는 요구들이 열거되어 있다.[30]

또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소위 민스크 2차 협정의 이행도 –

27) John Wojcik: The West, not Russia, is responsible for the war danger in Ukraine, CPUSA, January 21,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the-west-not-russia-is-responsible-for-the-war-danger-in-ukraine/

28)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4 February 2022,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푸틴-시진핑 회담에 대한 비판적 평가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시진핑 회담의 의의 –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에 맞서 결속을 과시하다>, 2022년 2월 5일,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63.html/

29) PCP: Communiq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CP of February 1,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Portuguese-CP-Communique-of-the-Central-Committee-of-the-PCP-of-February-1-2022/

30) Call To Action: No War With Russia Over Ukraine, 29 January 2022, https://popularresistance.org/nowarwithrussia/?link_id=0&can_id=8adf930454a2e4558961623072 0f774d&source=email-us-peace-council-statement-the-escalating-crisis-in-ukraine-poses-an-imminent-threat-to-world-peace&email_referrer=email_1426203&email_subject=call-to-action-stop-the-war-with-russia-over-ukraine

푸틴 정권처럼 – 제창한다. (이 협정은 3개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 · 프랑스 · 독일 + 우크라이나가 협상으로 도출한 외교적 해결책이다.)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이 서명한 민스크 협정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31]

공상적이기 짝이 없는 요구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유엔과 같은 제국주의 기관들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만들어내선 안 된다. 유엔은 강대국들, 주로 안보리 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기관이다. 유엔 기구들은 이들 강도들의 공동 이익과 이들 간의 타협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애써 이행하지 않는 무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든가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한 형태의 제국주의 질서를 같은 질서의 다른 버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대국 및 그들 기관들 (유엔과 같은)의 폐지와 세계 사회주의 노동자 · 농민공화국 연방의 수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

5. 푸틴과 대러시아 배외주의: "우크라이나는 독자 민족이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다뤄보자.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요구들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는 종종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러시아 배외주의 관점을 전파하는 것과 병행된다. 잘 알려진 대로 언제나 푸틴 정권은 별개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존재함을 부정해왔다. 또는 우크라이나 민족은 러시아 민족과 "자연적으로" 가깝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인들은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의 일원인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32]

여러 해 전부터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자신의 독립국가를 가질 권리를 사실상 부정해왔다.[33] 2021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일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긴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푸틴 정권 자신이 각국어로 번역, 출판한 일종의 선언문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34]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숨김없는 대러시아 배외주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국민 - 단일한 전체"라고 주장한다. 다른 데서 그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이 "단일한 대 민족, 삼위일체 민족"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긴밀한 통합을 해야 한다, 즉 모스크바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주권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푸틴이 볼 때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의 원흉은 레닌과 볼셰비키

31) R Arun Kumar: Imperialist Designs in Ukraine, CPI(M), January 30, 2022, https://peoplesdemocracy.in/2022/0130_pd/imperialist-designs-ukraine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II in the pamphlet by Michael Pr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33) Bjrn Alexander Dben: "There is no Ukraine": Fact-Checking the Kremlin's Version of Ukrainian History, 1.7.2020, https://blogs.lse.ac.uk/lseih/2020/07/01/there-is-no-ukraine-fact-checking-the-kremlins-version-of-ukrainian-history/

34) Article by Vladimir Putin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12 July 2021,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181.

였다. 푸틴은 특히 코레니사지자(Korenisazija)라고 불린 볼셰비키 정책을 비난한다. (코레니사지자는 "민족적 뿌리를 구축하기"라는 뜻인데, 푸틴 논문의 영문본은 이 개념을 "현지화 정책"으로 그릇되게 번역하여 이 개념에서 민족적 요소를 털어내 버렸다). 이 정책으로 볼셰비키는 비(非)러시아인이 그들의 문화, 언어, 문학 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했다.[35] 후에 스탈린주의는 이러한 개혁 조치들을 밀어내고 대러시아 배외주의/국수주의를 장려했다. 푸틴에게 레닌주의 민족 정책은 해악이다.

"현지화 정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크라이나의 문화, 언어, 정체성의 발전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러시아 대국 배외주의와 싸운다는 미명 아래 우크라이나 화(化)가 자신을 우크라이나인으로 보지 않는 이들에게 강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련의 민족 정책은 세 개의 슬라브 민족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확립했다. 대단위의 러시아 민족 대신에 벨리코러시아인, 말로러시아인, 벨로러시아인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국민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푸틴이 볼 때, 각 민족이 별개의 분리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 볼셰비키의 정책 또한 비슷하게 해악이었다. "1922년 쏘연방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쏘연방 설립국 중 하나가 되면서 볼셰비키 지도자들 사이에 다소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논쟁은 동등한 공화국들의 연방 국가를 형성한다는 레닌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공화국들이 자유롭게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창설 선언' 본문과 이어서 1924년 쏘연방 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선언문과 헌법 작성자들은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을 우리 국가의 토대에 심어놓았다. 소련공산당의 영도 역할이 제공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 이것이 폭발하면서 당 자체가 안으로부터 붕괴했다. 그리고 '국가독립 행렬'이 뒤따랐다."

이와 같이 볼셰비키의 해악적인 정책에 의해 "우리 러시아인들이 강탈당했다". "나라를 토막 낸 건 볼셰비키 지도자들이었다. 우리는 특정 결정 뒤에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나 배경, 논리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한 가지 사실은 명백하다. 실로 러시아는 강탈당했다."

푸틴의 논문에서 발췌한 이 인용문들은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별개의 민족으로 보지 않고 대러시아 "삼위일체 민족"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와 매우 가까울 때만, 즉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의 일부가 될 때만 주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따로 별도의 미래는 없다.

6. 스탈린주의 대 볼셰비즘: 우크라이나와 민족자결권

결국,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실로 푸틴의 정책은 레닌의 접근법과 정반대다! 볼셰비키는 모든 형태의 대러시아 배외주의에 반대하여 일관되게 싸웠다. 볼셰비키는 독자 우크라이나 민족의

35) 초기 소련의 민족 정책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다음 두 책이 가장 훌륭하다. Terry Martin: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2001, 및 Jeremy Smith: Red Nations: The Nationalities Experience in and after the USSR,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3; 많은 정보를 담은 다른 책들도 있다. Richard Pipes: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Communism and Nationalism, 1917-1923, Revis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Hlne Carrre d'Encausse: The Great Challenge. Nationalities and the Bolshevik State, 1917-1930. Holmes and Meier, New York 1992. 다음 우리 팜플렛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National Question. The Marxist Approach to the Struggle of the Oppressed People,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ational-question/

존재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옹호했다.

> "그 어떤 특권도 옹호하지 않는 우리 대러시아인 프롤레타리아는 이 특권 또한 옹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명백한 국가의 지반 위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노동자들을 단결시킨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길을 따라 우리의 계급적 목표를 향해 진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민족적 발전의 길도 보증해줄 수 없다. 우리가 모든 민족주의와 싸우고 다양한 민족들의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냐 여부는 천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쓸데없는 추측을 시도하지 않고,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는 분명한 것, 즉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독립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이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대러시아인의 특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권리를 인정하는 정신으로, 어느 민족에 대해서도 국가 특권을 거부하는 정신으로 대중을 교육한다."[36]

그리하여 볼셰비키는 1919년에 채택한 볼셰비키 당 공식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억압 나라의 노동계급 대중이 그들을 억압하는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느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어느 민족 집단이든 일체의 특권을 폐지하고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을 선언하며 식민지 종속국들의 국가 분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37]

여러 스탈린주의 당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의 정책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러제의 대러시아 이데올로기까지 되뇌고 있는 것은 특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푸틴 정권의 프로파간다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매우 친밀하고 민족 억압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가노프가 이끄는 악명 높은 KPRF(러연방 '공산' 당)를 보자. 주가노프는 2월 초 "형제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38]

먼저, 이 "호소"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인민과 우크라이나 인민의 오랜 역사적 친밀성을 상기시킨다. 주가노프는 "무지한 형제자매들"에게 서방이 항상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설교한다. "우리의 우정은 여러 번 공격받아왔다. 적들이 교활하게 교황 특사로 가장하여 남러시아 공국들을 가톨릭으로 끌어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형제 관계"는 가톨릭 교황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적들에 의해서도 시험되었다. 물론 주가노프는 "반러시아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위험한 도발을 펼치고 있는 '세계 올리가르히 (과두제)"에 의해 조작된 "'모스크바 침공' 연막"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 KPRF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10만의 러시아 병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연막이 펼쳐져 있나보다. 적어도, 그는 그의 긴 공개서한에서 이것을 결코 안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노프는 또 스탈린주의 쏘연방이 아직 존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모스크바의 지혜의 이점을 누렸던 영광스러운 시절을 상기시켜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의 공감을 얻으려고도 한다. "교활한 두뇌들은 쏘연방 우크라이나가 쏘연방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인민의 의식에서 지우기를 꿈꾼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모두가 기뻐했다. 그것은 민족과 언어로 시민들이 나뉘지 않는 위대하고 강한 나라의 공통 유산이 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쏘연방에서 삶이 그렇게 즐거웠다

36) V.I. Lenin: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4), in: LCW Vol. 20, p. 413

37) Program of the RKP(b): adopted March 22, 1919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in: Robert H. McNeal and Richard Gregor: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Vol.2, The Early Soviet Period: 1917-1929,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74, p.61

38) Gennady Zyuganov: To the fraternal people of Ukraine, KPRF, 7.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o-the-fraternal-people-of-Ukraine/

면 왜 대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독립 국가를 갖겠다고 뻗댔고 또 뻗대고 있을까? 왜 우크라이나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는 1991년 이후에 쏘연방을 떠나기로 선택했을까? 그리고 만약 러시아 탱크가 아니었다면, 체첸 인민도 지금은 그들의 독립 국가를 가졌을 것이다.[39]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이 왜 이런 역사적 사실에 신경 쓰겠는가? 그리고, 어쨌든, 만약 배은망덕한 민족들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의 혜택을 망각한다면, 그들에게는 불운이다! 듣지 않는 자는 느껴야 한다. 푸틴은 그들에게 모스크바 지배의 이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않든 간에!

따라서 주가노프가 그의 공개서한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딱 두 번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번은 서방국가들의 음모로서, 두번째는 나치 이론가 알프레드 로젠베르크의 위험한 사상으로서! 만약 KPRF와 그들의 주인 푸틴이 그들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인민은 얼마나 많은 독립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짐작이 되는가?!

그러나 KPRF는 단지 가장 노골적인 대러시아 배외주의 당일 뿐이다. 그들의 국제 맹우들도 기본적으로 이 접근법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미국공산당(CPUA)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한 약간의 역사를 염두하는 것도 유용하다. 우크

39)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다음도 보라. Fight against Russian capitalism and imperialism at home and abroad! Provisional Platform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ussian Federation),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latform-of-rcit-russia/

라아나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왔다. 러시아 국가는 수세기 전,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에는 둘 다 쏘연방의 일부였다. 그 시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쏘연방 공화국들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가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 인구의 40% 남짓이 러시아인이다. 생산적인 공업 지역인 동부 우크라이나는 언어와 민족에서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인이다. 이 나라의 수백만 가정은 서로 다른 민족집단의 부모들을 가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모 중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러시아인이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러시아어를 말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선된 뒤 우크라이나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어떤 민족적 적대의 기초도 없다는 것이다."[40]

다른 스탈린주의 당들의 글들에서도 같은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공산당(맑스주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통의 역사와 가족적 유대를 공유한다"고 말한다.[41] 말 나온 김에 언급하자면, 인도공산당(맑스주의) 자신이 나라 안의 민족·인종 소수자를 향한 인도 배외주의에 영합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 민족들의 자결권을 부정하고 이들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결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42]

40) John Wojcik: The West, not Russia, is responsible for the war danger in Ukraine, CPUSA, January 21,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the-west-not-russia-is-responsible-for-the-war-danger-in-ukraine/

41) R Arun Kumar: Imperialist Designs in Ukraine, CPI(M), January 30, 2022, https://peoplesdemocracy.in/2022/0130_pd/imperialist-designs-ukraine

42)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Kashmir Question and the Indian Left Today. Marxism, Stalinism and centrism on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이 스탈린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이 그 존재 시작 때부터 1991년 소련 해체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러시아에 의해 민족 억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가까운"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억압하여 우크라이나를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벨로루시, 몰다비아, 크림 타타르족 사이에도 역사적인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한 유대관계들 모두가 존재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인민의 통일단결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 민족 간의 어떠한 민족주의적 편견에도 반대하고 그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유대관계는 압력과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의거해야 한다!

둘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민족 억압의 역사적 관계가 우크라이나 인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러시아의 "형제애" 제의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별개의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는 1917년 이전 차르 체제 치하에서 간단히 부정되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모든 공적 표현 시도는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진정한 볼셰비즘의 시대가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발전의 눈부신 개화기를 가져왔지만 (상기한 코레니사지자 정책을 보라), 1920년대에 스탈린주의 관료가 권력을 잡은 후 이 개화는 지속될 수 없었다. 그때부터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인을 포함한 소 민족들을 희생시키면서 대러시아

of the Kashmiri people, 26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ashmir-question-and-indian-left-today/

배외주의를 장려했다.[43]

특히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가난한 농민들과 농업이 생계에 중심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1920년대 말 이래 스탈린주의 강제 집단화 정책이었다. 정확한 수치는 논쟁 중이지만, 1932-33년의 대기근 동안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온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그의 가장 포괄적인 저작인 <<배반당한 혁명>>에서 이 시기에 소련은"다시 내전과 기아와 전염병의 무대가 되었다"고 썼다.[44]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재앙이 외국 침략자들과 백군 반혁명 도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 관료 자신들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트라우마를 낳은 경험이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비극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하는데, 기근이 우크라이나 인민을 복속시키기 위해 스탈린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45]

43) 우크라이나에서의 스탈린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eorge Liber: Soviet nationality policy, urban growth, and identity change in the Ukrainian SSR 1923-1934,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2, pp. 145-174; 다음도 보라. Serhy Yekelchyk: Stalin's Empire of Memory. Russian-Ukrainian Relations in the Soviet Historical Imaginati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2004

44) Leon Trotsky: The Revolution Betrayed. What Is the Soviet Union and Where Is It Going? (1936),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2, p. 190

45) 다음을 보라. Robert Conquest: The Harvest of Sorrow. Soviet Collectivization and the Terror-Famin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6; Anne Applebaum: Red Famine: Stalin's War on Ukraine, Penguin Randomhouse, New York 2017; Andrea Graziosi: The Soviet 1931-1933 Famines and the Ukrainian Holodomor: Is a New Interpretation Possible, and What Would Its Consequences, in: Harvard Ukrainian Studies, Vol. 27, No. 1/4 (2004-2005), pp. 97-115; 맑스주의적 논의를 담고 있는 저작들로는, 러시아의 탁월한 트로츠키주의 역사가 고 Wadim S. Rogowin의 다음 저작을 보라. Stalins Kriegskommunismus, Mehring Verlag, Essen 2010, p. 377-383; 다음도

1923년부터 스탈린주의 지도부에 대항하는 공산당 내 좌익반대파에 기원을 두고 있는 트로츠키 주도의 제4인터내셔널은 언제나 스탈린 관료 정권의 민족 정책에 반대하며 소 민족들의 권리를 방어했다. 1930년대 후반에 트로츠키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억압 경험으로부터, 사회주의자들은 "통일된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자 · 농민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노동자 · 농민 우크라이나"는 한편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모스크바 보나파르트주의에 대항하여" 방어되어야 했다.[46]

현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우크라이나 주민 대다수가 어떤 형태의 러시아의 점령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민의 3분의 1이 러시아의 침공 시에 기꺼이 "무장 저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47]

푸틴을 볼셰비키의 민족자결주의를 거부한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그렇게 자처하지도 않는다. 푸틴은 계급의 적이자 유라시아의 제국주의 헌병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레닌의 전통에 서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칭하는 스탈린

보라. Louis Proyect: Socialism Betrayed? Inside the Ukrainian Holodomor, February 24, 2017, http://www.counterpunch.org/2017/02/24/socialism-betrayed-inside-the-ukrainian-holodomor/

46) Leon Trotsky: The Ukrainian Question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8-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4, p. 304 and 306; 다음도 보라. Trotsky's follow-up article: Independence of the Ukraine and Sectarian Muddleheads (1939),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9-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p. 44-54

47) Dan Sabbagh: What would be Russia's military options in Ukraine? 10 January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an/10/what-would-be-russia-military-options-in-ukraine-invasion

주의자들의 변명은 무엇일까?! 레닌은 배외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데 실패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공산주의자 몇 명을 벗겨 보라. 그러면 대러시아 배외주의자들을 발견할 것이다."[48] 그러나 오늘날의 스탈린주의의 경우, 그들의 반동적인 배외주의 영합을 보기 위해서는 벗길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지배 민족의 배외주의에 영합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49]

요약하자면, 중세의 타락한 주교들이 신약의 가르침을 거의 지키지 않은 만큼이나 스탈린주의자들도 레닌 강령의 원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레닌의 비난은 이들 타락한 모방자들에게 딱 들어맞는다.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등의 분리독립의 자유를 내걸지 못하는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배외주의자들처럼 굴고 있다. 피투성이의 제국주의 군주제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시종들처럼 말이다."[50]

48) V. I. Lenin: Speech Closing The Debate On The Party Programme, Eight Congress of the R.C.P.(B.) March 18-23, 1919, in: LCW Vol. 29, p. 194,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9/rcp8th/04.htm

49)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Stalinists Support Serbian Expansionism against Kosovo Albanians. Another Example of the Flirt of Stalinist Parties with the Plague of Arch-Reactionary Chauvinism, 13 Dec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ts-support-serbian-expansionism-against-kosovo-albanians/; 같은 저자: Stalinist Chauvinism: The Example of the Greek KKE. Is "Defending the Sovereign Rights of Greece" against Turkey and Macedonia Legitimate? Marxist Internationalism versus Bourgeois Social-Chauvinism, 12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greek-kke-and-stalinist-chauvinism/; 인도 스탈린주의자들과 그들의 인도 내 민족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글들을 또한 보라. 무슬림 위구르족과 그 밖의 피억압 인민들을 겨냥한 중국 정권의 한족 배외주의 정책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에서 동일한 배외주의적 오만을 볼 수 있다.

50)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7. 카자흐스탄에서 시리아까지: 스탈린주의는 반혁명 편에 서고 있다

스탈린주의 당들의 러시아 제국주의 지지는 단순히 소련이 아직 초강대국이었을 때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미국 패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다극 질서"로 대체하는 대안적 제국주의 질서를 구축하자는 의제로 이들 당들이 폭넓게 합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워싱턴의 대외정책에 대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대응 행보를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 (및 중국)이 주변 반식민지 · 종속국들 속에서 자신의 제국주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나가는 것도 이들은 지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국 민중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는 반동 독재정권을 밀고 뒷배가 되어줌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이 영향력 확대 몰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지지를 보낸다. 카자흐스탄 민중봉기를 적으로 하여 러시아연방공산당(KPRF)과 이들의 자매 스탈린주의 당들이 취하고 있는 반혁명적 입장은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51]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여주었듯이,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이 토카예프 권위주의-자본가 정권에 맞선 카자흐 노동자 · 빈민들의 반란을 "CIA가 조종하는 색깔혁명"이라고 비방한다. 그에 따라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시위자 수백 명을 학살하고 8,000여 명을 체포한 유혈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러시아 군대의 투입을 지지했다.[52]

인도공산당(M)도 카자흐스탄에서의 푸틴/토카예프 반혁명을 지지하는 반동 스탈린주의 당들 중 하나다. "미국은 자신의 간섭주의적인 태도에서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호전적인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제 또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인 카자흐스탄에 참견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동일하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친미 정부를 심고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사태는 전 세계에 패권을 강요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의 부상도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참을 수 없어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군사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깊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미국과 그 제국주의 동맹들은 다시 한 번 같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53]

>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스탈린주의 당들 주도의 친러 공동성명 서명자 중 하나인 아일랜드 스탈린주의 당의 최근 성명은 푸틴의 푸들들이 다른 많은 나라의 민중운동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서방은] 끊임없이 시리아 반군을 극단 이슬람주의 지하드파 아닌 다른 세력인 것처럼 왜곡 전달하고 있다. 또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홍콩, 니카라과에서처럼 어느 정도 자주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부들에 대항하여 색깔혁명을 조직하고 자금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대는 시도들을 쉬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며, 때로는 성공하기도 한다."[54]

(1916), in: LCW Vol. 22, p. 154

51) 카자흐스탄 민중봉기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mpilation-of-articles-on-the-popular-uprising-in-kazakhstan/

52)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음 글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카자흐스탄 민중봉기와 푸틴의 애국적 "공산주의자들">;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카자흐스탄 봉기에 대한 스탈린주의의 분열: 부부싸움인가, 심각한 분열인가?>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72.html/.

53) R Arun Kumar: Imperialist Designs in Ukraine, CPI(M), January 30, 2022, https://peoplesdemocracy.in/2022/0130_pd/imperialist-designs-ukraine

54) Workers' Party of Ireland: The recent increase in tens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또 포르투갈 스탈린주의 당도 같은 반혁명적 입장을 표한다. "포르루갈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리아와 시리아 국민들의 저항에 연대를 표하며 높이 평가한다."[55]

이와 같이 스탈린주의는 러 · 중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아사드 학살정권을 비롯한 그 밖의 반동 독재정권들을 편 듦으로써 그 철저히 반혁명적인 성격이 거듭 폭로되고 있음을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문서들에서 제시해왔고, 여기서 그러한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56]

8. 러시아 제국주의는 "사회진보 세력"인가? - 한 주목할 만한 스탈린주의 문서에 대한 토론

우리는 상기한 아일랜드 스탈린주의 당이 발표한 흥미로운 문서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우리의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문서는 스탈린주의적 사회제국주의의 이론적 결론을 그들의 자매 스탈린주의 당들이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제시

potential for catastrophic conflict, 26.01.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WP-of-Ireland-WPI-Statement-on-Ukraine/

55) PCP: Communiq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CP of February 1,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Portuguese-CP-Communique-of-the-Central-Committee-of-the-PCP-of-February-1-2022/

56)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아사드의 스탈린주의 치어리더들 – 국제 스탈린주의 당들의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 2019년 7월 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7.html/.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문서의 논리를 최대한 완전하게 제시하기 위해 문서 내용을 광범위하게 인용해 보겠다.[57]

기본적으로,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구소련과 푸틴 러시아 사이에 모종의 역사적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관료 독재가 계획경제를 지배하는 '퇴보 타락한 노동자 국가'[58]인 스탈린주의 소련과 오늘의 제국주의 러시아 사이에 말이다. 이들은 러시아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사회진보 세력"으로 간주한다.

"물론, 신러시아는 구소련과는 전혀 달랐고 지금도 전혀 다르다. 지리적으로나 인구로나 훨씬 줄어들었다. 신 러시아는 1990년대에 급성장한 과두제 경제구조의 일부를 – 훨씬 길들여진 채로지만 –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 러시아는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결여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훨씬 더 소박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계급과 민족의 모든 집단 정체성을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내모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선봉인 미 제국으로부터의 사실상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고집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데올로기적 대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련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말이다.
사회주의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행동이 필요하다. 국가 주권을 미국 지배권에 내맡기거나 그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 관계로 존재하는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매개수단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쿠바 · 베네수엘라 · 시

57) Workers' Party of Ireland: The recent increase in tension in Eastern Europe and the potential for catastrophic conflict, 26.01.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WP-of-Ireland-WPI-Statement-on-Ukraine/

58) 스탈린주의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다음도 보라. Chapter II in Michael Pr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리아 ·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존재는 그들 간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감스러운 사회주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에 질식되지 않는 미래 건설 가능성의 필수적 담지자로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수반하지 않는다.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는 소련을 부활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실제로 그들은 러시아 내에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공산당을 일관되게 방해해 왔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러시아 국내 정치가 아니라, 러시아의 미 제국에 대한 굴복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혈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러시아연방공산당도 못지않게 애국적이다. 그리고 10월 혁명뿐만 아니라 소련 내 러시아와 그 밖의 민족들의 존재 자체를 방어한 것이 바로 붉은군대였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닐 수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그 방어적 지향이 어떤 추상적인 도덕적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입지 약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헤집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러시아 국경에까지 군사 반경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네오나치와 지하드 파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자금을 대는 것은 미국이다. 굳이 러시아인을 무고한 성가대 소년으로 보지 않아도 미 제국주의의 현실과 비교해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온화하고 분별력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식별해낼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이지 러시아연방은 소련이 아니며, 미국/나토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어떤 내재적인 이데올로기적 거리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러시아는 대등한 기초 위에서 협력하기를 바라는 데 반해 미국은 굴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오류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 형성을 시도해왔지만,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미국의 군사적 영역에 편입될 상황을 맞아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약화되면 중기적으로 자주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을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미 제국주의의 절대 패권' 이라는 생각은 스탈린주의 판타지의 영역에 속하며, 오늘날의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다는 우리의 논지를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보다는 이 인용구들에 제시된 논리 (또는 논리의 결여)를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시아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 대담한 발언이고, 축하를 보낸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무엇인가? 러시아가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 스탈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경제가 '올리가르히' 라고 불리는 소수 과두제 대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의 그 같은 회피는 특히 놀랍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 경제는 강력한 내국인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몇 년 전, 한 연구보고서는 상위 32개 러시아 독점체가 러시아 GDP의 약 51%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59]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1%의 인구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 제국주의 나라의 상위 1% 부자들보다 더 높은 소득과 부를 축적했다. (아래 표 1 참조)

59) Who Owns Russia: 32 Largest Business Groups Make 51% of GDP, Emerging Markets Venue, July 12, 2010, http://www.emergingmarketsvenue.com/2010/07/12/russian_business_groups/

표1. 러시아·영국·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집중 (2021년)[60]

구분		소득	부
러시아	상위 10%	46.4%	74.1%
	상위 1%	21.5%	47.7%
영국	상위 10%	35.7%	57.1%
	상위 1%	12.7%	21.3%
미국	상위 10%	45.5%	70.7%
	상위 1%	18.8%	34.9%

물론, 스탈린주의자들이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러시아가 자본주의이고 "미 제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남아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경우, 그들은 왜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미국보다는 약한 열강일지라도) 성격규정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함으로써,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시아를 미국의 도전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항자"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모스크바는 라이벌 미국 독점체들과 세력권을 놓고 경쟁하는 러시아 독점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모스크바를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항자"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주목할 만한 문서의 스탈린주의 저자들은 진실을 감지한다, 현 상황은 서로 다른 계급적 성격의 두 사회–경제체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진실 말이다. 나아가 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가속화가 1914년 이전, 즉 1차 세계대전 이전 상황과 같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감지되기 시작한다.

> "현 위기는 1914년 전야 시기를 연상시킨다. 오랜 평화기가 끊임없는 위기 표출로 무너져가고, 매 위기 표출 때마다 전쟁 가능성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1914년 이전 시기 말이다. 영 미 패권 열강이 당시로선 독일, 지금은 중국 같은 신흥 공업 라이벌들을 경계하며, 이들 라이벌들이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전에 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 그러나 1914년 이후 많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특히 일반화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 그러나 제거하지는 못하는 – 최종적인 핵 충돌의 가능성이다.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러시아와 중국의 성공적인 산업화다. 그리고 그에 따라 도시화와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을 통한 농민 문제의 해결이다. 역사적으로 두 국가 모두 1914년 시기의 혁명에 극도로 취약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국가 형태 –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잔재 – 가 산업 자본주의의 현실 및 그것이 낳은 사회관계와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늘날 "혁명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 맞는지는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 비교에 관한 한 이들은 옳다. 그러나 1914년 전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을 레닌 이하 맑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으로 성격규정 한 것을 이들이 '감지'하지 못해왔다는 것은 특히 놀랍다, 두 제국주의 진영 어느 쪽이든 지지하는 것을 레닌/볼셰비키가 비난한 사실을 이들은 잊은 것인가?!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당시 맑스주의자들은 강대국들이 "대등"하지 않으며, 한 진영 (영국과 프랑스)이 다른 진영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60)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Coordinated by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Lab, wir2022.wid.world, p. 215, 223 and 225

어느 진정한 맑스주의자도 “대영제국”에 대항하여 독일을 편든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이 1914년 이전에 존재했던 상황과 현 상황 간의 유사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역사적 통찰력과 함께 맑스주의의 국제주의적 · 반제국주의적 원칙에 대한 그들의 경멸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끝으로, 이 스탈린주의 당의 문서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들 특유의 또 하나 결론이 있다. 여기서도 다시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끝단까지 밀고 가고 있는 것을 칭찬해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 논리가 스탈린주의의 반동적 성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권력이 자본에 대해 다시 우위에 서는 것은, 설사 비노동계급 정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객관적 조건에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한 걸음 개선은 미국이 더 이상 서방 부르주아지의 헌병으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후퇴를 맞는 것이다. 미국이 내부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대한 군사적 후퇴가 있을 때 해외에서의 그들의 지배력 축소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국가권력이 다시 우위에 설 공간을 창출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소련과 비교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진보의 역군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협소하나마 국가 주권이 다시 우위를 확보한 데 있다.”

그리하여 "비 노동계급 정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우위 재확보"는 "사회주의자들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한 "비 노동계급 정부"란 무엇일 수 있을까? 명백하게도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들이 볼 때 현재 "미 제국"에 도전하고 있는 정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푸틴 정권 같은 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라.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이 푸틴 정권이나 러시아 자체를 그들의 문서에서 "자본주의"로 성격규정 하고 있지 않다. 2,300 단어가 넘는 상당한 장문의 문서임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본주의” 언급이 없다!

결국, 푸틴 형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진보적인 유형의 정권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이 같은 옹호론은 전통적인 스탈린주의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1930년대에 스탈린주의자들은 자본가 당들과 동맹을 맺는 악명 높은 "인민전선" 정책을 제창했다. 그러한 “인민전선” 정부들도 "사회주의자들의 객관적인 조건"을 개선시킨다는 "비 노동계급 정부"였다. 실제로 "인민전선" 정부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구해주는 ‘거국정부’, “국민통합정부”였고, 언제나 노동자계급의 패배로 결과했다. (예를 들어 1936–39년 스페인과 프랑스 인민전선처럼). 보통 스탈린주의자들은 자본가계급에게 그들의 유용성이 다하면 이러한 인민전선 정부들에서 쫓겨나는 것이 통례였다.(예를 들어 1947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이 같은 방식의 국내 계급협조 노선에 기초하여,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 열강들과도 동맹을 추구했다. 1930년대에 모스크바와 그 국제 마름들은 나치 독일에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과의 동맹을 제창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들 열강을 "제국주의"로 지칭하는 것을 극구 삼갔다. 모스크바의 대외정책 이해관계가 바뀌자 위선적인 양두구육 이데올로기 전체가 뒤집어져 물구나무섰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 동안 스탈린주의자들은 "금권정치적" 서방 제국주의에 포화를 집중하는 반면, "평화애호적" 나치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61] 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는 독일 · 오스트리아의 공산주

61)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 당시의 스탈린주의 정책에 관한 다수의 책들이 출판됐다. 다음 책에 많은 문서가 공개되어 있다. Raymond James Sontag and James Stuart Beddie (Ed.): Nazi-Soviet Relations, 1939-1941. Document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Foreign Office, Department of State, 1948. 이 시기 스탈린주의 당들

의자들을 게슈타포에 넘기기까지 했다.[62] 이 시기에 스탈린주의는 영국 · 프랑스를 아시아 · 아프리카 인민들을 억압하는 "잔인한 식민 지배자들"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다 1941년 6월 (스탈린과 몰로토프에게는 대경실색할 일로서) 나치가 소련을 침공하자 다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억압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반파쇼 민주주의 동맹군으로 간주되었다. 동맹군은 바뀌었지만,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를 오가는 스탈린주의자들의 무원칙한 줄타기 책략과 양두구육의 정치노선은 변함없이 같았다!

아일랜드 스탈린주의 당의 문서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바로 그 동일한 방법 노선을 오늘날의 조건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탈린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름들과 국가들은 바뀌었다. "사회주의자들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시켜 주는 것은 이제 루즈벨트, 처칠, 히틀러 대신 푸틴 (및 시진핑)이다. 스탈린주의 논리는 놀랍고 동시에 역겹다. 반제국주의는 숨김없는 사회제국주의로 대체되고, 러시아 제국주의는 "사회진보의 역군"으로 역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아일랜드공산당 문서는 스탈린주의의 논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대부분의 스탈린주의 당들의 방법 노선을 대표한다. 위에 언급한 인도

의 많은 문서들이 1989년 이후에야 공개되었다. 그 중 다수의 문서가 다음의 독일어판 책에 실려 있다. Bernhard H. Bayerlein. Der Verrter, Stalin, bist Du! Vom Ende der linken Solidaritt 1939-1941. Komintern und kommunistische Parteien im Zweiten Weltkrieg, Aufbau Verlag, Berlin 2009; 다른 문서도 있다. J.W.Brgel: Stalin und Hitler. Europaverlag, Wien 1973. 다음도 보라. Bisovsky, Gerhard, Hans Schafranek und Robert Streibel (Ed.): Der Hitler-Stalin-Pakt, Verlag: Picus Verlag;, 1990.

62) 다음을 보라. Margarete Buber-Neumann: Als Gefangene bei Stalin und Hitler, Seewald Verlag, Stuttgart 1985

공산당 문서의 다음 인용문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남아있도록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눈을 돌리는 또 다른 관심사는 전략적 입지 문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나라들의 동맹 형성을 원하고 있고, 그런 동맹에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러시아의 경제적 힘은 확실히 커질 것이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동맹에 가입하거나 이런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완전히 기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은 패배를 고려할 때, 이것은 저들의 패권 구도에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은 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63]

우리는 본다. 푸틴이 전 세계에 많은 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9. 스탈린주의와 사회제국주의: 맺음말

방금 설명했듯이, 스탈린주의는 (개량주의 일반처럼) 언제나 부르주아지 한 분파에 대항하여 다른 한 분파와의 전략적 동맹을 모색해 왔다. 이것은 일국 지형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지형에서도 그러했다. 반면, 맑스 · 레닌주의를 계승한 진정한 트로츠키주의는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모든 분파들 및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언제나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를 규합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현 상황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 스탈린주의 당들은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 또는

63) R Arun Kumar: Imperialist Designs in Ukraine, CPI(M), January 30, 2022, https://peoplesdemocracy.in/2022/0130_pd/imperialist-designs-ukraine

제국주의 한 진영과의 계급협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이러한 계급협조가 "사회주의" 국가 (소련, 중국, 동유럽, 베트남, 북한, 쿠바 등)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은 타락한 노동자 국가의 집권 스탈린주의 관료에 봉사하는 친자본주의적 · 친제국주의적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즉 타락한 노동자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현 상황과는 다르다. 실제로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여전히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그러나 이 사실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말로 보더라도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들의 방법을 오늘날의 달라진 조건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분석으로도 "사회주의"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 푸틴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내건다.

과거에 스탈린주의 당들이 타락한 노동자 국가의 관료층에 봉사하는 하수인으로서 부르주아지 한 분파 또는 제국주의 한 진영을 그와 같이 지지했다면, 오늘날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아예 직접적으로 지배계급 한 분파를, 그리고 제국주의 한 진영을 대놓고 섬긴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사회제국주의는 부르주아 지정학주의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가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사회제국주의가 세계정세와 투쟁의 과제를 노동자 계급 · 피억압인민의 대의를 밀어가는 국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질서 재정렬 (즉 미국 · EU 같은 기존 강대국들에게 불리하게, 중 · 러 같은 신흥 강대국들에게 유리하게)의 관점에서 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부르주아 지정학주의는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모종의 "일국 자본주의"에 만족한다.[64]

이 같은 야바위 사회제국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모든 강대국들에 맞서 싸우고,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노동자 · 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이다.[65] 어느 한 강대국 진영을 지지하는 개량주의 당들, 또 민중봉기 (최근 예로 미얀마나 카자흐스탄 민중봉기) 탄압을 지지하는 개량주의 당들, 이 같은 당들은 민중의 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이들의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강대국들 및 그들의 사회제국주의적 마름들과의 투쟁을 노동자 · 민중조직 내에서 밀어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명적 세력들이 힘을 합치고 강화시켜야 한다. 오늘 혁명가들이 작은 소수파로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창건은 대중 속에 뿌리를 쌓고 기간대오를 교육 육성하고 실천적 검증을 거치는 등의 긴 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려움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면하고 정력적으로 일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RCIT는 그러한 세계당을 만드는 데 몸 바치고 있는 준당(pre-party) 조직이다. 우리는 아직 작은 조직이지만 지난 10

6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65) 다음을 보라. RCIT,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년을 거치며 전 대륙의 이십여 개 나라에 지부와 활동가들이 있는 국제 조직을 만들어 왔다. 우리는 세계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전 세계의 모든 혁명적 조직들과 활동가들에게 손을 뻗는다. 혁명 세계당 건설에 우리와 힘을 합치자! 동서 모든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그리고 강대국 및 그 반동 마름들에 대항하여 노동자 · 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의 국제 조직을 함께 만들자!

[Q&A] 우크라이나와 임박해 있는 러시아의 침공

- 당면 임무 관련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토론에 부쳐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2월 23일
www.thecommunists.ne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회주의자들의 현 단계 임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당연히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활동가들 사이에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이 토론에 참가 · 기여하고자 제출된 글이다. 이 글은 지난 몇 주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전략적 방침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문: RCIT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가?

답: 그렇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억압받아 왔다.[1] 유일한 예외는 레닌 생전의 볼셰비키 정부 초기 연간이었다. 그리고 1941–44년 동안 우크라이나 인민은 독일 나치에 의해 억압받았다. 1991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독립하고 직접적인 차별이 많은 부분 폐지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맑스주의자들이 "반(半)식민지" 라고 부르는 국가로 남았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강대국들에 종속적인 상태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강대국의 우크라이나 지배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할 권리를 의미한다."[2]

문: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은 어디인가?

답: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후, 미 ·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1999년 푸틴이 옐친을 대체하여 집권하고 러시아가 다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2014년 우익 유로마이단 운동과 이어진 내전 이후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들" 은 사실상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자체도 서방 제국주의가 자신의 마름들을 권좌에 앉히면서 서방 제국주의의 강력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문: 우크라이나 내 소수파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답: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차별 받는 정도가 다양하다. 사회

1) 이에 대해서는 본 책자에 실린 <푸틴의 푸들들>을 보라.

2) RCIT, <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2022년 2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18.html/.

주의자는 이들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는 분리 독립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것은, 분리 독립이 아니라 민족 소수자들이 언어, 문화 등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평등이다.

문: 현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현 사태의 근본 배경에는 현 시기 쇠퇴 · 사멸해 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있다. 이것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추동하여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몰고 있다. 지난 10년 미 제국주의가 급격한 쇠퇴를 겪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했다. RCIT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독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광범한 문서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3]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EU 등 제국주의 열강이 세력권 확대를 놓고 다투는 무대 중 하나가 됐다.

문: 그 말은 따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답: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젤렌스키 정부도, 소위 돈바스 "공화국" 지도부도 어느 쪽도 진정한 민족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대표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RCIT 성명에서 설명했듯이, "돈바스 '공화국'은 민족자결권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권리를 수호한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제국주의 나토와 EU 동맹의 일원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EU의 꼭두각시로 복무하고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인민을 별개의 독자 민족으로 정식 승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을 신뢰하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러시아와의 협상카드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스크바와의 유리한 거래를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4]

따라서 나토 제국주의 마름들의 지도하에서 진정한 우크라이나 방어 투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의 그 밖의 친서방 정치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방어한다.

문: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답: 우리가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적 권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 내에 살고 있는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도 또한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의 정치적 · 군사적 행보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해야 한다. 이 투쟁이 강대국 패권경쟁으로부터 분리되고 독자적인 투쟁이 될 경우에만,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노동자 ·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민족 방어는 가능해진다.

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3)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이 문제에 관한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4) RCIT, <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뜻인가.

답: 아니다. RCIT는 젤렌스키나 다른 친서방 마름들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느 강대국이든 강대국과는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 나라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비상 민중공회/민중총회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공회 내에서 지방 행정을 접수하고 나라 방어를 위한 노동자 민병을 구성하는 비상위원회를 선출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범죄자와 파시스트는 이러한 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우리의 적은 러시아 인민이 아니라 푸틴 정권과 그 군대임을 주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러한 민중 기관들에 민족 소수자들의 통합을 제창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반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들 (체첸, 시리아 인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민중공회와 민병의 목표에는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노동자 · 민중 평의회에 기반할 것이며,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로 나아가기 위해 제국주의 기업들과 과두재벌 올리가르히를 몰수 · 수탈할 것이다. 민족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목표를 정식화했다. "노동자공화국으로서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가들은 독립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독립적인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권 주민에게 언어, 종교, 문화 등등의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와 함께 가능한 가장 폭넓은 자치권을 제공할 것이다.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 소수자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다. 즉 그들이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그러한 우크라이나 국가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든, 또는 그들이 그러한 국가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5]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이익을 대표하는 새로운 노동자당을 우크라이나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5) RCIT,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82.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구체적인, 당면의 임무에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은 현장에 있는 혁명적 활동가들에 의해서 오직 올바르게 평가되고 결정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작은 소수파일 뿐이다. 우리가 볼 때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젤렌스키 정권이 내린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위에 제시한 바의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에 기초한 관점을 제창해야 한다고 본다. 젤렌스키 정권이나 나토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동시에 겁쟁이 키예프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 민병 결성의 필요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의 기초 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결집하고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다. 현재의 사실상 비합법 정치활동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선전 · 선동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의 몫이다.

문: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맑스주의자다. 우리는 부르주아 군대의 탈영과 개인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징집되

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입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표명함 없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않고 군대에 입대할 것이다. 이것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착취가 좋아서가 아니라 생계를 벌어야 할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동시에 나토에 반대하여)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을 제창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적은 나라 안에 있다. 즉 주적은 러시아 제국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돈바스 "공화국들"에 대한 푸틴의 승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물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어려운 조건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활동가들을 조직해야 한다. 반전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서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전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미국과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제시한 바의 강령을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서방 열강의 제국주의 전쟁몰이와 러시아에 대한 그들의 경제 전쟁에 대한 반대다. 푸틴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열강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깨뜨리기 위해, 이들 인민의 적들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분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햐 한다!

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을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답: 그렇다. 실로 그렇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현 긴장고조는 향후 몇 년간 일어날 많은 위기와 전쟁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고 있다. 그런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민중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고, 강대국들은 피억압 인민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상대로 침략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통일 단결시키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조직하는 핵심 도구인 혁명세계당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RCIT는 전력을 다해 싸운다!

Ⅳ부

개전 이후 전술과 논쟁

10.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6

11.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12.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13.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14. 대러시아 배외주의 논설이 밝힌 파쇼 프로젝트

15.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16.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17.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18.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19.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20. 러시아와 "차악" 제국주의 이론

21.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22.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23.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10.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 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혁명적 방어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 EU 제국주의 모두에 대항하는 국제주의적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선언문
2022년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1945년 이후로 가장 공업화된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그리고 베트남전 이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이다. 이 전쟁은 대륙의 심장부에서, 유럽–유라시아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다.

동시에,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 위에서 격발된 이 전쟁은 세계정치 역관계에 새로운 시기를 열고 있다. 이 전쟁은 몇 년 전에 시작된 강대국 간 냉전을 3차 세계대전 문턱까지 몰고 가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미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적대를 급격히 심화시켰고, 미국과 EU 간의 관계에도 재정립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전쟁은 유럽의 제국주의 통합과 군사화 몰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나아가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도 어떤 식으로도 지금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 전쟁에서 강화되어 나오거나 아니면 약화, 심지어는 붕괴될 수도 있다!

이것은 형성 중에 있는 역사다! 아무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다. 그 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11월과 같다. 이것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린 알지만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

현 사태의 의미, 전쟁의 성격과 강대국들 간 충돌의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투쟁 방향과 임무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 모두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전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조직들은 이 사태에 대한 태도로 각각 자리매김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기본 방향에서 이 선언문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 조직 및 개별 활동가들에게 우리와 접촉하고, 민족 억압과 제국주의 패권전쟁에 대항하는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협력하자고 요청하는 바다.

현 정세의 이중성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 · 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이탈 –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

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대 강대국 진영 간 긴장 고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 미국 · 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 – 를 이용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복합적 · 모순적 성격과 강대국들 간의 글로벌 긴장이 전쟁의 성격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의의 민족 방어 전쟁에서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성격을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일어나면, 혁명가들은 전술을 바꾸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뿐만 아니라 키에프의 친서방 제국주의 대리인의 패배도 함께 내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고,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

전 세계의 혁명가들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피억압 인민의 모든 정당한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제국주의 적들을 약화시킨다! 미국 · EU든 러시아 · 중국이든 어느 제국주의 강대국 지지에도 반대한다!

그러므로 R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혁명적 방어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시에, 우리는 나토/EU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서 (또 강대국들 간의 다른 모든 분쟁에서도) 혁명적 패배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 하에서 싸울 것을 요청한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사회제국주의와의 투쟁.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내거는 –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 모든 "좌파" 세력과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렴치한 사회제국주의적 투항의 예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들고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을 "나치"라고 비난하는 친러 스탈린주의 · 볼리바르주의 당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KPRF(러시아연방 '공산' 당)와 그들의 국제 맹우들이다. 또 쿠바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도 푸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드는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PO[노동자당]와 그들의 국제 맹우들)도 있다.

사회제국주의의 또 다른 버전은 이른바 "유럽좌파당"의 "좌익" 사민주의자들이다. (예를 들어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의 통합좌파와 공산당). 그들은 EU 정부들에게 "유럽은 독자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EU 제국주의의 독자적 강화를 제창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에서 그들은 나

토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에 입각해 있다!

사이비 "진보" 정책의 또 다른 예는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도 바이든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와 그의 민주사회주의자(DSA) 내 맹우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 민중 조직 내 모든 사회제국주의 세력들의 영향력과 싸워야 한다. 그러한 정당이나 연합체 내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들과의 분립을 제창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라는 원칙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세워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용기 있는 반전 활동들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인민과의 연대를 촉구해야 한다. 푸틴 정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자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총구를 돌릴 것을 촉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푸틴 정권의 혁명적 위기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몇 주 전 토카예프 정권을 도와 카자흐스탄 민중봉기를 진압한 러시아 주도 군사동맹 CSTO의 해체를 요구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과 그 2중대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라는 대러시아 국수주의 · 배외주의 구호가 러시아의 대중을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위험한 덫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RCIT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자결을 위한 체첸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본다. 체첸인들은 그들 자신의 독립 국가를 갖길 원한다는 것을 지난 저항투쟁으로 증명했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여망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또 도살자 아사드와 그의 러시아 상전에 대항하는 시리아 인민의 해방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서방과 중 · 러 제국주의자들은 다양한 무슬림인들과 민족 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억압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슬림인들은 다른 피억압 민족들처럼 모든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동맹군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을 지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나토 제국주의의 시종인 위험한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EU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길 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방향에 반대하여 싸우며 서방 열강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나토나 EU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동맹 가입을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한 민병의 구성을 제창해야 한다. 이 민병은 젤렌스키 정부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민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민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국토방위

군(VTO)에 참여할 것이다. 이 방위군을, 군 지휘부와의 연계를 끊어내고 독립적인 노동자 · 민중 민병으로 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다.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국제 협력을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국제 노동운동이 – 나토/EU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무기 공급을 조직할 것을 제기하고 전파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노동자 · 병사들에게 젤렌스키 정부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민중공회와 민병에 기초한 노동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RCIT는 모든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제창한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방어 전쟁에 연대운동 조직으로 지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저항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창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 방어 입장은 서방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군사주의 정책에 대한 강고한 반대와 결합되어야 한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현 상황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성격규정 했다. 실로 유럽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연합의 군사 예산과 화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도 마찬가지다.

서방 강대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며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지지를 가장하여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이러한 제국주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러시아 인민에게 배외주의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서방 강대국들은 또 젤렌스키 정부에게 무기를 비롯한 그 밖의 지원을 보내는 것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어느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유럽의 지배계급은 그들의 반혁명적 플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 계기를 이용하고자 한다. 지난 2년, 이미 그들은 "공공보건"을 핑계로 한 권위주의 확대와 국내 정책의 군사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하려고 해왔다.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내외에서 군국주의와 배외주의를 밀고 가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20년 봄에, 그리고 오늘 2022년 봄에 이러한 정책을 밀어가는 정부가 동일한 같은 정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방법, 즉 하나의 깃발 아래 전 사회를 결집하기 위한 통일된 메시지와 각계각층의 동원이라는 그 동일한 방법이 여기서도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어제, 그 깃발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다. 오늘, 그것은 푸틴과의 전쟁이다.

RCIT는 서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민족 저항에 대한 국제주의적 지지를, 미국과 EU에 의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공격 · 도발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와 결합시킬 것을 호소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서방 제국주의 국뽕 정신이 지배하는 사이비 "연대" 이벤트를 지지해선 안 된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나토 해체 요구와 함께, 각국에 나토 탈퇴 및 불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토 분쇄! 이에 더해 사회주의자들은 EU의 제국주의적 성격 및 EU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성이 충돌하는 역사적 예들

이와 같이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충돌하는 경우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트로츠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간의 제국주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 (당시에 타락한 노동자 국가)을 방어하고, 제국주의 점령자들에 맞서 싸우는 피억압 인민 (예를 들어, 당시 일본에 대항하는 중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더 최근의 예는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세르비아 점령에 맞서 싸우는 알바니아 인민을 지지했지만,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침략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나토가 코소보를 침공하면서 민중 게릴라 투쟁이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잃고 제국주의 침략의 종속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이 구체적 국면에서 코소보 전사들이 나토와 협력하고 나토의 통제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코소바르 전사들을 편 드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혁명가들은 오늘 국제 노동자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두 악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공’과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전쟁’ – 모두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현 분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발전하는 정세에 전술을 맞추고, 필요할 경우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혁명가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

현 정세는 혼란과 방향 상실,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분쟁 관련국들의 지배계급은 대중을 조종하기 위해 엄청난 미디어 전쟁을 벌인다. 많은 기회주의적 "사회주의" 당들은 이 또는 저 강대국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 사상을 제창하는 것으로, 또는 평화주의 환상 (군축, 유엔을 통한 해결 등)을 제창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방향 상실과 혼란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긴급한 임무다. 이를 위해, 본 선언에 제시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

RCIT는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협력을 시작하자고 요청하는 바다. 그 첫 발걸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공동 작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한다.

▷ 동지들, 형제자매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자! 함께 행동하자!
▷ 사회주의혁명 투쟁으로 전진하자!
▷ 혁명세계당 건설로 전진하자!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 자칭 트로츠키주의 IMT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하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사실상 부인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2일
www.thecommunists.net/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사적 분기점은 모든 사회주의 조직 하나하나에게 결정적 시험대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1]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비타협적 국제주의와 일관된 반제국주의에 기초하여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최대 의무임을 지난 며칠간 발표한 여러 문서들에서 밝혀왔다.

현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두 개의 방향이 충돌하는 이중적 · 복합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최근 선언문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정의전)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전쟁을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 미국 · 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인 – 를 이용하려고 한다."[2]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분석에서 어떠한 전쟁 강령이 나오는가? RCIT는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혁명적 방어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시에, 우리는 서방/나토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서 (강대국 간의 다른 모든 분쟁에서처럼) 혁명적 패배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하여 (위의 우리 선언문에서 다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가?

불행하게도, 트로츠키주의를 자칭하는 "국제맑스주의동맹" (IMT)은 이와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국제맑스주의동맹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한다. 두 장문의 성명 – 하나는 국제맑스주의동맹의 공

1)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2)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본 책자에 수록).

식 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리더 앨런 우즈의 성명으로, 두 성명 모두 같은 날 발표됐다 – 에서 국제맑스주의동맹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민도 마찬가지로 반동으로 간주한다. "이 전쟁은 양측 모두에서 반동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3]

제국주의 강대국과 반식민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중립 입장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반동 행위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반동적인 인물이자 나토의 자발적인 따까리라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전쟁이기보다는 유라시아의 헌병과, 제국주의 식민지화에 맞서 나라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인민대중 간의 전쟁이라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다.

역사는 피억압 인민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 전쟁을 여러 번 봐왔다. 국제맑스주의동맹과 그 런던의 중앙지도부도 명백히 경험했을 몇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1982년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벌인 말비나스 (“포클랜드”) 전쟁[4],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3) IMT: The Ukrainian war: an internationalist class position, 01 March 2022, http://www.marxist.com/the-ukrainian-war-an-internationalist-class-position-imt-statement.htm; Alan Woods: The Ukrainian conflict: is this the start of World War III? 28 February 2022 https://www.marxist.com/the-ukrainian-conflict-is-this-the-start-of-world-war-iii.htm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01년)[5] 및 이라크(2003년) 침공[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인민을 상대로 벌인 4차례 전쟁 (2008, 2012, 2014, 2021년[7], 1999–2008년 체첸에서[8],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9] 러시아의 전쟁이 있다. RCIT가 많은 문서에서 밝혀왔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들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을 – 그 지도부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방어한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반제국주의는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에게는 뿌리 깊이 생소하다. 그들은 말비나스 전쟁에서 제국주의 영국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고, 위에 거명한 그 밖의 전쟁들에서도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지 않았

5)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n-afghanistan/

6)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7) 4차 가자지구 전쟁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8)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다음도 보라. Fight against Russian capitalism and imperialism at home and abroad! Provisional Platform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ussian Federation),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latform-of-rcit-russia/

9) 시리아 혁명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

다.[10]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심지어 2013년 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쿠데타를 환영하기까지 했다![11] 그러므로 그들이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는 현 방어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편들길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제국주의 외세가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투쟁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통, 그러한 강대국이 병력을 해당 나라에 보내거나, 통제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식민지의 정의의 방어전쟁은 정당성을 잃고 제국주의 외세를 위한 대리전으로 전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화를 1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의 경우에서, 또는 보다 최근 사례로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보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위 선언문을 다시 인용하자면,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며,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

10) 각각의 참고문헌을 다음 책의 13장에서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NATO-Russia Conflict: The Anglo-Saxon 'Marxist' Tendency. On the IMT's confusion about the role of Russian imperialism, 31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anglo-saxon-marxist-tendency/; 또 다음도 보라. the critique of our comrades in Occupied Palestine who broke with the IMT: The ISL's Break with the IMT, August 2009, https://the-isleague.com/isl-imt-split/.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Zionist Wars, RCIT Book,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zionist-wars/, Yossi Schwartz: Israel's War of 1948 and the Degener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http://the-isleague.com/1948-war-5-2013/ and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srael-s-war-of-1948/.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Coup d'tat in Egypt and the Bankruptcy of the Left's "Army Socialism", August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gypt-and-left-army-socialism/; Yossi Schwartz: Egypt: The U.S. Support for the Military Coup and the Left's ignorance, 11.7.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us-support-for-military-coup/

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 - 신형 제국주의인가?

반대로 국제맑스주의동맹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한다. 정당한 방어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배신은 오랫동안 국제맑스주의동맹 중앙지도부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12]. 나토-러시아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 조직의 성명들은 이를 완전히 확인해준다. 이 성명들은 미국과 EU를 "제국주의"로 내내 규탄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언급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위에 언급한 조직의 리더 앨런 우즈의 성명을 보라. 장문의 성명에서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규탄 언급은 많은데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말 자체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가속화 하고 있는 패권경쟁 속에 서로 물고 물려 있는 복수의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현 역사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을 RCIT는 줄곧 설명해왔다. 우리가 몇몇 연구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는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이며 이를 부정하는 수많은 수정주의자들은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행히도, 국제맑스주의동맹에는 그러한 반동적 입장에 반대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1장과 28장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위에서 언급한 다음 글도 보라. NATO-Russia Conflict: The Anglo-Saxon 'Marxist' Tendency.

하고 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는 동지들이 – 특히 그 조직의 러시아 지부에 – 있다.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 부의 공식 문서에서는 앨런 우즈를 비롯한 중앙 지도부가 그러한 내부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반대의 결과로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가장 최근의 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하는 것으로 정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 지부는 현 정세에서 약간의 도덕적 무게를 싣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앨런 우즈와 중앙지도부는 그러한 정식 인정에서 나올 그 어떤 구체적인 진보적 결론도 일체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고 부르며 낯선 새 범주를 발명해냈다. 이 정식(定式)이 앞서 언급한 두 성명에서 모두 반복되는 만큼 우즈와 중앙지도부가 이 정식을 특정 의미와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라 할지라도, 미국보다는 "지구상에서 덜 반혁명적인 세력"일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신형 제국주의의 발명은 맑스주의 방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침략전쟁을 벌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이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자들"과 "덜 악랄한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식의 구분법을 쓰진 않는다. 레닌이 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을 차별화했는가? 앨런 우즈의 방법을 따른다면, 레닌은 영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고 불렀어야 했다. 반대로 독일은 식민지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독일을 영국보다는 "덜 반혁명적인 세력"이 되게 했는가? 레닌은 제국주의 강도들을 그런 식으로 구분한 적이 없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는 정식은 일관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길 거부하는 구실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기 위한 구실이다. 러시아를 미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제시하고, 푸틴의 모든 정치적 행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이며 주 도발자는 미국과 나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구실인 것이다.

명확히 하자.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국제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했다. 국제맑스주의동맹 내 진짜 맑스주의자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영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실로 중요한 이유다. RCIT는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고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둘 다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힘을 합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국주의 차악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배신자 논리

- 세계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익을 고려에 넣는 남반구 · 북반구의 전 지구적 관점으로부터 입장과 전술을 내야 한다!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2022년 6월 24일

[편집자 주] 위 기사가 이번에 새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러시아어로 재간됐다. 다음은 이 재간본에 붙이는 저자의 소개 글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공격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편 들길 거부하는 국제맑스주의동맹 (IMT) 지도부의 기회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느 측도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양측 모두 반동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이후로, IMT 지도부 (정확히 말하면 앨런 우즈 일파)의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

이후 발표된 그들의 모든 성명/논설/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일 뿐이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 제국주의의 대리전쟁"이라고 우즈 일파는 주장한다.[13] 여기서 더 나아가 우즈 일파는 계급협조 스탈린주의 세력들과 입을 맞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감히 편드는 모든 좌파들을 비난한다.[14]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사실상 우즈 일파는 러시아를 미국에 비해 "해악이 덜한" 측, 즉 '차악'으로 본다. 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미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으로 성격규정 하면서도, 이와는 달리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간혹 "러시아의 지역 제국주의 야망" 또는 "푸틴의 제국주의적 모험"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15]

이와 같이 IMT 지도부의 현 세계정세 인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인 미 제국주의 대(對) "제국주의적 야망"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제국주의 열강은 아닌 러시아 간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차악 논리를 통해 우즈 일파가 객관적으로 러시아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결국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IMT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제국주의 열강들 간 고조되는 패권쟁투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 세계정세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고의적으로 한쪽 눈을 감고 기회주의로 동요하다가 결국 반혁명 진영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3). Jorge Martn: Western imperialism turns to pessimism in Ukraine, IMT, 13 June 2022, https://www.marxist.com/western-imperialism-turns-to-pessimism-in-ukraine.htm

14) 같은글

15) Jorge Martin: US imperialism's proxy war: fighting Russia to the last drop of Ukrainian blood, IMT , 13 May 2022 https://www.marxist.com/us-imperialism-s-proxy-war-fighting-russia-to-the-last-drop-of-ukrainian-blood.htm/

역설적으로 IMT 지도부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자신들은 런던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논리는 앨런 우즈 식의 타락한 "맑스주의"를 정확히 보여준다.

IMT 지도부가 세계정세에 대한 입장과 전술을 자신들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제기할 거면 조직 이름을 "국제맑스주의동맹"에서 '런던맑스주의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은 그들의 강령을 지리적 입지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기초하여 정립한다.

그리하여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관점 · 전망으로부터 평가분석을 내고 강령 · 전술을 제출해야 할 것인가? 런던타워의 제한된 관점 · 전망으로부터는 아니다! 세계적 규모의 관점, 일차적으로 세계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이익을 고려에 넣는 남반구/북반구의 전 지구적 관점 · 전망으로부터 태도와 입장과 전술을 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의 노동자 · 민중 대다수가 살고 노동하고 투쟁하는 피억압 남반구를 빼놓고 런던 같은 부유한 서방 나라 중심부를 기준으로 입장과 전술을 내겠다는 것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진정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인 슬로건과 아무 공통점도 없다.

우리가 다른 기사에서 제시했듯이, 1930년대에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당시 중일전쟁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다. 중국의 항일 해방전쟁에 대한 그들의 연대는 장개석 지도부의 (젤렌스키 못지않은) 반동성에 의해서도, 중국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전술적 지지에 의해서도,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얼룩지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그들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미제와 일제 간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에서 양 진영 모두에 일관되게 반대했다.[16]

이런 상황에서 우즈 일파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들은 중국 인민의 해방투쟁을 배신하고는 미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은밀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모험"에 동조했을 것이다!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열강 (미국, 러시아, 중국, 서유럽, 일본)과 그들의 배외주의 정책 (제재를 포함하여)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방위전쟁을 지지하는 수미일관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과 전술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이 IMT 지도부의 친러 사회제국주의에의 조직적 투항과는 완전히 대조된다는 것을 알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IMT 내 동지들은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 기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우즈 일파는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반제국주의 강령 · 전술로 싸우고자 하는 동지들은 이러한 기회주의 전통과 단절하고 사회제국주의의 해악을 끊어내야 한다.

16)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ISA, by opposing the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to fight Russian imperialism, serves Russian imperialism, 14.04.2022, https://the-isleague.com/the-isa-by-opposing-the-delivery-of-weapons-to-ukraine-to-fight-russian-imperialism-serves-russian-imperialism/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10일, www.thecommunists.net/

급격히 고조되고 있던 서방 대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과 맞물려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칭 맑스주의 세력들 사이에 광범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지자들 – 공공연한 지지자들이든 은폐된 샤이 지지자들이든 – 을 제쳐둔다면, 현 분쟁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오해/몰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은 무시하는 (또는 관련 없다고 보는) 흐름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 간 정치적 · 경제적 전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의 정당성은 무시하거나 부차화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조류들과는 대조적으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은 이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전략의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과 그들의 저항투쟁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강대국들 – 러시아와 서방 –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을 다음 슬로건으로 요약한 바 있다.[1)]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기계적 단순화를 피하고 충돌 · 분쟁의 변증법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며칠 전 낸 RCIT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 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일탈 –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2)]

1)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2)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본 책자에도 수록).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되풀이지 않을 것이며, 각종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역사적 유추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유추는 현 충돌 · 분쟁의 모순적 성격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 전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3]

2차 중일전쟁 1937-41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840년대의 소위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강대국 침략의 제물이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나중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벌였고,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항구와 도시들을 점령했으며, 매우 불리한 조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 나서며 중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자 시도했다.

이 침략의 첫 단계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군은 패배했고 일본은 괴뢰 국가(만주국)를 세웠다. 그러나 주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일본이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한 1937년 7월이다. 이후 몇 달 만에 일본은 베이징, 상하이, 난징을 점령했다. 일본군이 주요 도시를 점령하긴 했지만, 중국의 광대한 농촌 지역을 장악하진 못했고, 그에 따라 수년 동안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며 전쟁이 계속됐다.[4]

이 시기에 미 제국주의는 중국 편을 들었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동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 라이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을 지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 걸친 경제제재를 가했다. "1939년 미국은 일본과의 1911년 통상조약을 파기했다. 1940년 7월 2일, 루즈벨트는 수출통제법에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필수 방위 물자의 수출을 허가 또는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에 따라 7월 31일에는 항공모터연료와 윤활유, 1급 중유 강, 중철 스크랩의 수출이 제한됐다. 다음으로, 루즈벨트는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 영국과 서반구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든 고철 및 철강 수출에 대해 10월 16일부로 금지령을 내렸다. 마침내 1941년 7월 26일, 루즈벨트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 자산을 동결했고, 따라서 양국 간의 상업 관계는 사실상 중단됐다.1주일 후 루즈벨트는 여전히 상업적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것과 같은 등급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5]나아가 미국은 미국 용병과 전투기 (예를 들어 플라잉 타이거)를 파견함으로써 중국 항일군에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정치 · 경제적 공격은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이로써 중일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3)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 분쟁에서의 이중 전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2장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pp. 321-330,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4) 2차 중일전쟁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chapter 10-12 in John K.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492-722; 다음도 보라. Akira Iriye and Warren Cohen (Eds.):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Wartime Asia, 1931-1949, Scholarly Resources Imprint, Wilmington 1990. 간략한 개괄로는, 다음을 보라. Wikipedia: Second Sino-Japanese War, https://en.wikipedia.org/wiki/Second_Sino-Japanese_War/.

5) Robert Higgs: How U.S. Economic Warfare Provoked Japan's Attack on Pearl Harbor, 1 May 2006,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930

2차 중일전쟁에 대한 제4인터내셔널의 방침

당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제4인터내셔널로 조직되었다. 10월 혁명의 조직자인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이 운동은 소련의 – 그리고 제3인터내셔널의 – 스탈린주의적 타락 이후 사회주의 세계혁명 투쟁을 이어갔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중국 방어전쟁을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1938년 9월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모든 혁명 전위의 필수 의무다... 위에 서술된 정세인식에 입각하여 만국의 노동자와 특히 혁명 전위는 모든 수단을 다해 중국의 항일 투쟁을 지지할 의무를 진다."[6]

중국 혁명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1925~27년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살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항일 투쟁의 지배적 세력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일 투쟁을 지지했다. 국민당은 노동자계급과 빈농의 혁명적 진출이 두려워 미 · 영 제국주의에 강하게 의존했다. "국민당은 피억압 대중을 억누르며 일본 침략자들을 앞에 두고 한 발 한 발 후퇴하면서 영 · 미 제국주의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들 열강이 자신들의 중국 내 이익을 지키고자 일본의 진군을 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또 이 문서에서 미 제국주의의 중국 개입은 강대국 이익의 관철에 그 동기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미 제국주의는 영국에 비해 중국 내 실제 이해관계는 더 작지만,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더 짧아져 가는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미국 경제의 반복적인 붕괴는, 미국 자본주의가 살아남아 확장되려면 빠르게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보다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1937년 10월 루즈벨트의 '침략자'를 겨냥한 시카고 연설은 미 제국주의의 미래 정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나아가 제4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몇 년도 안 되어 현실로 확인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약탈 목적을 추구하여 제국주의 간 적대를 첨예화함으로써 인류를 새로운 세계대전의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더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 임무를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맡길 경우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맞서 개입할 경우는 오직 극동에서 자신의 강도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혁명적 대중이 아닌 라이벌 제국주의들에 의해 중국에서 패배한다면, 이것은 영 · 미 자본에 의한 중국의 노예화를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민족해방과 중국 인민의 모든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중국 인민대중 자신에 의해서만,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 피억압인민과 연합한 중국 인민대중 스스로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일련의 대 일본 제재를 가했다. 우리는 다른 기사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제재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항상 반대했음을 설명했다.[7] 1936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관련하여 미

6) Fourth International: The War in the Far East and the Revolutionary Perspectives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fi-1stcongress/ch08.htm. 이 장에서의 모든 제4인터내셔널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Can Socialists Support Imperialist

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제재에 대해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힘주어 설명하는 팜플렛을 발간했다.

"제재는 전쟁 수단이다. 제재에는 금융 공여 철회, 무역 금지, 다양한 형태의 보이콧이 포함된다.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발동된 나라에 대한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역사가 자주 증명해왔듯이, 그러한 봉쇄의 거의 확실한 결과는 전쟁이다. 봉쇄된 국가가 정치적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러한 조치를 평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부들 (이 정부들이 국제연맹 가맹국 정부들이건 아니건 간에)의 제재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 자본주의 정부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지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 대한 배신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혁명적 방어 - 언제나 자본주의 정부들과 부르주아지에 맞선 투쟁인 - 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이나 자본주의 정부의 '제재'에 대한 그 어떤 옹호도 배신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폭로한다."[8]

동시에 맑스주의자들은 피억압 인민의 정의전에서는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자에게 노동자 자신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위에 언급한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팜플렛을 다시 인용해보자. "맑스주의자들은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패배와 제국주의의 타격 - 그러한 이탈리아의 패배는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 을, 그리고 그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승리를 제창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정부들과 제국주의 국제연맹에 원조와 제재를 호소함으로써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 '제재'를 취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그러한 이탈리아 패배와 에티오피아 승리를 도울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의 결과물로서의 제재만이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만이 노동자계급을 국가와 노동자계급 적들로부터 분리시켜주며, 노동자권력과 혁명적 패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노동자의 투쟁 역량을 구축해주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위, 파업, 노동 거부, 에티오피아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위한 방위 기금, 이탈리아로 가는 군수품 선적 거부, 전쟁 위기 관련 맑스주의의 혁명적 선동 등이 바로 그러한 제재, 즉 노동자계급이 활용해야 할 제재 조치들이다."

제4인터내셔널도 2차 중일전쟁에서 같은 접근태도를 취했다. 위에서 언급한 1938년 문서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혁명적 원조 캠페인은 일본에 대한 노동자 제재의 기치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촉진에서 완전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

교훈적 유추

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1937~41년 중일전쟁 간의 유사성을 인식하기란 어렵지 않다. 두 경우 모두 반식민지 나라 (각각 우크라이나와 중국)가 제국주의 열강 (각각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공격받았다. 두 경우 모두 피억압국의 저항이 배신적 부르주아 세력 (각각 젤렌스키와 장제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두 경우 모두 민족해방전쟁이, 긴장 고조와 경제 제재를 가져온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각각 나토 대 러시아와 미국 대 일본)과 결합되었다.

Sanctions? The "Fourth International" in the tradition of Pablo and Mandel supports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4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socialists-support-imperialist-sanctions/; 같은 저자, <우크라이나 전쟁: 부두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441.html/.

8)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다음도 보라. Maurice Spector: Sanctions and the Coming War (1935), New International, Vol.2 No.7, December 193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spector/1935/12/sanctions.htm/

두 경우 모두 맑스주의자들은 강대국들 간의 충돌에서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방어 전쟁을 지지했다. 두 경우 모두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제재에 반대했지만 침략자에 대한 노동자 제재를 제창했다.

RCIT는 제4인터내셔널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관점에 동의하는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에게 러시아의 침략과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혁명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하자!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26일

차례

1. 들어가며
2. 과거 반동 세력에 의해 주도된 진보적 전쟁들
3. PTS/FT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 반대한다
4. … PTS/FT가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보이콧은 지지한다!
5.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기

1. 들어가며

전쟁과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장 첨예한 시험대다. 전쟁과 혁명은 모든 노동자 · 민중운동 조직을 강제한다. 자신의 강령 · 전술을 가장 구체적으로 벼려내고, 계급 간, 국가 간의 극적인 충돌 앞에서 그 실천적 결론을 가장 예각화 된 형태로 제출토록 강요받는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는 이 오랜 맑스주의 진실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을 비롯한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시작 때부터 현 분쟁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에 따라 우리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하며, 동시에 지금 고조되고 있는 서방–러시아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우리의 입장을 요약했다.[1)]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의 시험에 실패하여 혼란된, 심지어는 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행히도, FT (Fracción Trotskista; ‘트로츠키주의분파’)/ PTS (FT의 최대 지부인 아르헨티나 사회주의노동자당) 동지들도 혁명적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한 조직들 중 하나다.

PTS/FT 동지들이 각종 친러 스탈린주의자들 및 사이비 트로

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츠키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푸틴의 침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2] FT는 전쟁에 관한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며,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사 점령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3]

그러나 동시에 PTS/FT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즉 점령에는 반대하지만 점령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다! PTS/FT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반동적 성격으로 이것을 설명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적해 왔듯이, 철두철미 부르주아적인 친(親)나토 인사인 젤렌스키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비타협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맞다. 그러나 전쟁은 젤렌스키와 그의 바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대중을 동원한 인민 전쟁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무기를 들거나, 다른 수단으로 저항을 지지한다는 많은 보도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동지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어온 바다. 애초에 친러 성향이 강했던 정치 세력들조차 침략을 비난했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본 책자에도 수록); 같은 저자: A Progressive Step Towards Anti-Imperialism. Some Stalinist parties refuse to support Russian or EU imperialism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7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ke-and-nato-russia-conflict/; 다음도 보라. NATO-Russia Conflict: "Trotskyists" in the Camp of Russian Imperialism. The Argentinean "Partido Obrero" calls for "national emancipation and integrity" of the Eastern Great Powers, 26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rotskyists-in-the-camp-of-russian-imperialism/

3) FT: No to the War! Russian Troops Out of Ukraine! NATO Out of Eastern Europe! No to Imperialist Rearmament! 3 March 2022, https://www.leftvoice.org/no-to-the-war-russian-troops-out-of-ukraine-nato-out-of-eastern-europe-no-to-imperialist-rearmament/

의심할 여지없이,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을 위한 전쟁, 제국주의 외세의 점령에 대항하는 전쟁이다!

물론 젤렌스키는 부르주아적 · 친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한다. 나토가 라이벌 러시아를 상대로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항투쟁을 나토 전쟁기구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빗나가도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전쟁의 성격을 전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은 실제로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군이 개입하여 알바니아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나토 제국주의 목표에 사실상 종속시킨 사태를 우리는 본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니며, 맑스주의자들은 미래의 가능한 사태 발전이 아닌 현재의 현실에 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은 나토–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즉 러시아 제국주의가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완전히 예속시키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나토는 이 상황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 한다. 강대국들이 항상 경쟁국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 전쟁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싸우며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나토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을 성격규정 하는 가장 일차적인 지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답을 주어야 하며, 이것은 나라의 방어와 러시아 침략자들의 패퇴를 지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2. 과거 반동 세력에 의해 주도된 진보적 전쟁들

정치적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 때문에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의 정당한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재와 외국 점령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 · 민족해방투쟁이 부르주아 세력의 주도 하에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가 많은 평가 문서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피억압 인민을 – 정치 지도부가 현재 누구냐에 관계없이 – 편들고 억압자의 패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필수 의무다.[4)]

이것은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의 접근태도였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1937–45년 일본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장개석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죽인)에 의해 주도된 중국 항일투쟁이 있다. 또 1935–37년 이탈리아 점령에 대항하여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절대주의 정권에 의해 주도된 에티오피아 저항투쟁이 있다. 보다 최근의 예는 두 차례 미국의 침략전쟁 (1991년과 2003년)에 대항하여 사담 후세인 바트당 독재정권에 의해 주도된 이라크의 투쟁과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선 탈레반의 저항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1994–96년 러시아 침공에 맞선 체첸 해방전쟁이 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이 투쟁의 지도부의 부르주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반동 침략자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을 지지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들 주도 세력은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때로는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최근 기사에서 우리는 장제스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5)] 또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와의 전쟁 중에 나치 독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 한 전쟁사 역사가가 지적했듯이,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 점령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비행기 3대, 마우저 소총 1만 정, 탄약 1천만 발 등 군사 원조를 비밀리에 보냈다."[6)]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중국 인민과 에티오피아 인민의 정당한 저항투쟁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여기서 지도부의 반동적 성격 때문에 지지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트로츠키는 중국 투쟁 지지에 반대하는 초좌익 종파주의자들을 반박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장제스는? 우리는 장제스나 그의 당, 또는 중국 지배계급 전체에 대해 아무 환상도 가질 필요가 없다. 맑스와 엥겔스가 아일랜드와 폴란드의 지배계급에 대해 아무 환상도 가지지 않았듯이 말이다. 장제스는 중국 노동자 농민의 처형자다. 그러나 오늘 그는 엉겁결에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 독립의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내일 그는 다시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이 있다. 그럴 것 같다. 심지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분투하고 있다. 비겁자, 악당, 완전한 얼간이만이 이 투쟁에 참가하길 거부할 수 있다... 장제스의 명령 하에 군사 투쟁에 참가함에 있어, 불행히도 독립 전쟁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2장 및 13장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5)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6) Timothy J. Stapelton: A Military History of Africa, Vol. 2 Praeger ABC-CLIO, Santa Barbara 2013, p. 203; see also Wikipedia: Second Italo-Ethiopian War, https://en.wikipedia.org/wiki/Second_Italo-Ethiopian_War/

것은 장제스이므로 장제스의 타도를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단 하나 혁명적 정책이다."[7]

트로츠키는 1936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의 경우에도 같은 접근태도를 취했다. 트로츠키는 사회주의자들이 에티오피아 군에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원조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우리는 이탈리아의 패배와 에티오피아의 승리를 지지하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이탈리아 제국주의 지원을 방해하고 동시에 에티오피아에 무기 등의 전달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8]

3. PTS/FT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 반대한다 …

PTS/FT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길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FT 동지들은 3월 3일 위의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시에 우리는 점령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주민 내 독자적 입장의 출현을 고무해야 한다. 즉 나토에 종속된 친 제국주의 젤렌스키 정부 및 반동 민족주의 세력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독자 입장 말이다...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해서는, 러시아 점령에 대한 저항투쟁은 젤렌스키가 설교하는 나토 종속 방향과는 독립된 길을 취해야 한다고 우리는 제안한다." 좋다. 그러나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방어 전쟁은 기존 군대와 국토방위시민군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PTS/FT는 미래의 추상적인 이상적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만, 오늘 현 조건의 우크라이나는 방어하지 않는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 않는다.

외국 침략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전쟁에서 중립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맑스주의의 진실이다. 불행하게도, PTS/F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제국주의 · 국제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

설상가상으로, PTS/FT는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전술을 장려한다. 노동자 제재에 관한 이 조직의 입장을 보자.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노동자계급의 행동을 제창했다. 그러한 행동들 중에는 **"노동자 제재 (또는 노동자 보이콧)"**가 있었다. 이것은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원조하기 위해 침략 국가의 전쟁기구와 경제를 타격하는 보이콧 행동을 말한다. 화물 하역, 항구 봉쇄, 해당 국가 제품 유통 등에 대한 거부가 그러한 행동들이다. 한편 맑스주의자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적 제재 –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같은 – 에 반대했다. 우리의 반대는 러시아에 대한 동정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경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하길 거부하는 입장에서 비롯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른 글들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주장과 제4인터내셔널의 언명을 반복하기 보다는 독자에게 관련 기사들을 추천한다.[9]

7) Leon Trotsky: On the Sino-Japanese War (1937), in: Leon Trotsky on China,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6, p. 723 resp. 726

8) Leon Trotsky: The Italo-Ethiopian Conflict (1935),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5-36),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41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Can Socialists Support Imperialist Sanctions? The "Fourth International" in the tradition of Pablo and Mandel supports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4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socialists-support-imperialist-sanctions/; 같은 저자, <우크라이나 전쟁: 부두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https://blog.wrpkorea.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래로, 부두 · 항만 노동자들이 러시아 화물을 보이콧 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련의 행동들을 펼쳐왔다.[10] 부끄럽게도 PTS/FT는 이러한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 행동을 "제국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부두 · 항만 노동자들이 러시아 화물을 막고 있다 – 무심결에 제국주의 이익을 강화해주고 있다"는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PTS/FT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달, 전 세계 각국의 부두 항만 노동자들이 러시아 선박과 화물에 대해 항구 봉쇄를 결정했다. 가장 최근에는 스웨덴 항만노동조합이 러시아 및 러시아 계열 선박의 하역, 선적, 예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요일에 발표했다. 이들 나라에서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러시아 혐오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노동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전쟁몰이 지도자들에게보다는 글로벌 노동자계급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11]

그리하여 PTS/FT는 이러한 노동자 보이콧 행동들을 "반동적"이라고 비난한다. "부두 · 항만 노동자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아무리 칭찬할 만한 것이라도 그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일련의 제재는 – 비록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 진보적이지 않고 반동적이다... 부두 · 항만 노동자들의 러시아 선박 및 상품 봉쇄 결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이익에 봉사하며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org/2022/05/blog-post_441.html; 상기한 다음 기사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10) 상기한 다음 기사를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부두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11) Otto Fors: Dock Workers Are Blocking Russian Cargo — and Inadvertently Bolstering Imperialist Interests. In solidarity with Ukraine, dock workers around the world are refusing to unload Russian ships. Such actions, however, will only hurt working class Russians and wind up supporting the interests of U.S. imperialism, 21 March 2022, https://www.leftvoice.org/dock-workers-are-blocking-russian-cargo-and-inadvertently-bolstering-imperialist-interests/

4. … PTS/FT가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보이콧은 지지한다!

한편, PTS/FT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저항 능력을 해치는 보이콧 행동들을 제창한다! 위의 같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이탈리아 공항 노동자들의 선례를 따라 무기 선적 및 수송을 거부해야 한다."

PTS/FT는 또 다른 기사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을 중지시킨 이탈리아 노조 간부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들 무기가 살인에 사용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단으로 전쟁과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그 밖의 나라의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이탈리아 동료들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파업 또는 무기 선적 차단과 같은 그들 자신의 수단으로 전쟁과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12]

보다시피 PTS/FT는 이 한 차례 행동을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2) Simon Zinnstein: Italian Airport Workers Stop Arms Shipment to Ukraine Under Guise of "Humanitarian Aid". In Italy, workers discovered that weapons were being shipped to Ukraine under the pretense of sending "humanitarian aid" and have refused to hand them over. Their example should serve as a model for all workers on how to take action against the war, 17 March 2022, https://www.leftvoice.org/italian-airport-workers-stop-arms-shipment-to-ukraine-under-guise-of-humanitarian-aid/; German: https://www.klassegegenklasse.org/als-humanitaere-hilfe-getarnt-flughafenarbeiterinnen-verhindern-waffenlieferung-in-die-ukraine/

분명하다. PTS/FT는 국제 노동자운동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전달을 방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열세로 계속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데도 말이다.

PTS/FT 동지들은 자신의 정책에 내포된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PTS/FT 동지들 스스로도 위 성명에서 러시아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대와 핵무기를 가진 열강"으로 성격규정 했다. 따라서 동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른 체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력을 약체로 묶어두는 것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끊임없이 폭격하는 탱크, 전투기, 군용 헬리콥터에 대적할 우크라이나 무력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무력이 러시아 점령에 저항할 능력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군사적으로 우세한 세력, 즉 러시아 제국주의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유감스럽게도 PTS/FT 동지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PTS/FT 동지들은 반식민지 약소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노동자 제재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재가 이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바로 그 인민을 겨누고 있는 데서는 그러한 제재 행동을 환영한다! 이것은 반제국주의 및 노동계급 국제주의와는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객관적으로, PTS/FT 동지들이 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친러 사회제국주의로 가는 한 걸음에 다름 아니다.

PTS/FT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이 객관적으로 러시아를 돕는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 제재는 양 진영 모두 반동적인 전쟁에서는 (따라서 사회주의자들로서는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는 전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수단이다. 이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리다. 노동자 제재는 그와는 달리 다른 진영에 대항하여 한 진영의 승리를 돕기 위한 수단이다. 제4인터내셔널이 위의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과 2차 중일전쟁에서 위와 같은 전술을 제기한 이유다. 두 경우 모두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와 중국 인민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했다.

따라서 PTS/FT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동자 제재를 제창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PTS/FT가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다!

PTS/FT가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한 모범"이라고 칭찬한 그 이탈리아 노조 간부들의 행동을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대변지 환구시보도 응원한 것은 상징적인 일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다.[13] 환구시보의 경우 러시아가 중국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PTS/FT의 변명은 무엇일까?!

5.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기

PTS/FT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길 거부하고 객관적으로 러시아를 편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를 비롯한 그 밖의 저작들에서 썼듯이, PTS/FT는 오늘까지도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

1 3) Zhao Yusha: Italian union protests against sending weapons to Ukraine in humanitarian cargo – 'We risk WWIII', 21 March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3/1256446.shtml

정하길 거부한다.[14]

이 동지들의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는 그 자체로 제국주의 강대국이다. 우리가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 제국주의는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 · 중보다 약하다. (하지만 이 점은 다른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지점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내국 독점체들이 경제를 지배하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을 초과착취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나라에 군대를 두고 개입하고 있다.

몇 년 전 RCIT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일본 EU만이 아니라 신흥 대국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인정할 때만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추동하는 모순을 이해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오직 그러한 기초 위에서만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하게 올바른 반제국주의 강령에 이를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만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 · 전술을 담보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간 대립 충돌에서 어느 제국주의 국가도 지지하길 거부한다.. 이들 강대국들의 반동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일관된 반제국주의, 즉 맑스주의 노선을 취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 제국주의 진영을 '차악'이라며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15]

PTS/FT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이 같은 행보는 그 동안 우리가

14)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의 10장을 보라.

15) RCIT,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드리는 제안, 2018년 2월>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6-points-for-revolutionary-unity/

천명해 온 입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또 다른 현실 증거다. 러시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야말로 현 전쟁에 관한 PTS/FT의 모든 실천적 오류의 근원이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지만 '아직' 제국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사회구성체 인식이 바로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한 노동자 제재에 PTS/FT가 반대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또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노동자 제재를 PTS/FT가 제창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끝으로, PTS/FT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배경에는 지도부의 심각한 우경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배신적 입장이 이 조직의 초기 시절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분쟁과 많은 점에서 중요한 유사점을 가진 전쟁들에 대해 PTS/FT가 우리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1996년 러시아의 체첸 전쟁에 관한 공동성명[16]과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공동성명[17]이 그것이다. 사실, 이것은 오래 전 일, 의회 의원직을 얻는 것이 동지들의 전략적 고려에 아무 중요성도 가지지 않았던 오래 전 일이다.

우리는 PTS/FT가 당시와 같은 일관된 반제국주의/ 비타협적 국제주의 강령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16)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Statement of the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LRCI) and the Trotskyist Faction, 30.06.199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nker_17

17) Defend Afghanistan! Defeat Imperialism! Stop Bush and Blair's Bloody War! (2001), Joint Statement by: League for a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Fraccon Trotskysta and Communist League – Workers Power (Greec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fghanistan-invasion-2001/#anker_3

대러시아 배외주의 논설이 밝힌 파쇼 프로젝트

-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의 논설기사에 대한 논평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4월 7일

푸틴 정권은 극 반동적인 대러시아 배외주의(쇼비니즘) 물결을 부추김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 푸틴 정권은 나토에 대항해서만 "조국 방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도 "조국 방어"를 외친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해 맹독성 프로파간다를 퍼트린다. 실제로 푸틴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에 따라 분리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한다. 소비에트 러시아 초기에 레닌의 민족 정책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비 러시아계 인민의 민족자결과 분리독립을 초래하게 한 "원흉"이라며 레닌에 대한 거친 비난을 퍼붓는 것도 푸틴 정권의 이러한 대러시아 배외주의 선동의 한 테마다.[1)]

1)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의 5장 및 6장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본 책자에 수록).

예상 밖으로 러시아 군대가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푸틴 정권이 대러시아 배외주의 몰이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몇몇 지점에서는 이것이 파시스트 집단학살 (제노사이드) 프로파간다 수준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4월 3일에 발표한 장문의 기사를 보면 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논설기사는 그저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2)]

이 기사는 한 걸음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나치, 반데라주의 우크라이나"로 성격규정 한다. 기사는 젤렌스키 정부와 모든 국가기관, 군대를 비롯한 모든 무장 대오들을 "나치"라고 지칭한다. 현재 로선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그 정부와 군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사의 "나치" 주장은 우크라이나 주민 다수가 러시아군이 적으로 취급해야 할 "나치"라는 얘기다. "국민의 상당 부분이 - 아마도 그 다수가 - 나치 정권에 의해 나치 정치를 익히고 나치 정치로 이끌려 들어갈 때는 탈나치화가 필요하다. 즉 '국민은 선한데 정부가 나쁘다'는 가설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이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탈나치화 정책의 기초이며, 그 사실 자체가 탈나치화 정책의 주제를 이룬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군대를 비롯한 모든 우크라이나 무장 대오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하게 죽일 것을 촉구한다.

> "무기를 든 나치는 가능한 최대로 전장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AFU [우크라이나군]와 소위 나츠바트, 그리고 이 두 유형의 군사 대오에 합류한 국토방위대 등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들 모두는 민간인에 대한 잔악무도함에 똑같이 연

2) Тимофей Сергейцев: Что Россия должна сделать с Украиной, 03.04.2022, https://ria.ru/20220403/ukraina-1781469605.html; 논설기사 영어본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s://cryptodrftng.substack.com/p/day-40-what-Russia-should-do-with?s=r&fbclid=IwAR1P1VbCQvQlQcBKupt2KEKXOnc7EGihI9oyWm3qTccJiKRUzmB60fMnpxc. 모든 인용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영어본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루되어 있고, 러시아 국민의 대량학살에서도 똑같이 범죄자들이며, 전쟁 법과 관습을 준수하지 않는다."

리아 노보스티는 또 우크라이나 주민을 "탈나치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정권의 수립을 제창한다. "이러한 주민 집단의 추가적 탈나치화는 재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재교육은 나치 태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금압과 엄격한 검열로 성취된다.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이들 대러시아 광신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지배 하의 미래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완전히 탈나치화 된 국가의 명칭으로 쓸 수 없다."

대러시아 프로파간다의 감춰진 목표는 우크라이나 민족 의식의 청산이다. "형제 국민"은 자신이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탈나치화는 필연적으로 탈우크라이나화일 것이다. 과거 소련 당국은 역사적 소러시아 · 노보로시아 영토 주민의 민족적 자기 정체성 부분을 대규모 인위적으로 부양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탈우크라이나화다...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경계로 복귀하여 그 정치적 기능이 제거돼야 한다. 말하자면, 그루지야나 발트해 국가들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족 국가로서 가능하지 않으며, 민족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나치즘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주의는 인위적인 반러시아주의적 구성물로, 아무 독자적인 문명적 내용도 없으며 이방적인 외국 문명의 종속 요소다. 탈반델라화 그 자체만으로는 탈나치화를 하는 데 충분치 못할 것이다. 반델라적 요소는 유럽의 나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위장하고 연막을 피우는 광대일 뿐이므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는 필연적으로 탈유럽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탈나치화", "탈유럽화" 프로젝트가 그 성격에서 파쇼 전체주의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크라이나 인민에게서 "우크라이나적인" 것은 일체 절멸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노사이드 정책의 길을 열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논설기사에서 놀라운 것은 숨김없는 파쇼 전체주의 관점뿐만이 아니다. 이 논설이 특히 경보 벨을 울리는 것은 러시아 파시즘 대부 알렉산드르 듀긴의 전통에 있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낸 논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부 주변 요소들의 견해가 아니라 러시아 정권 자체의 견해를 반영한다!

대러시아 배외주의 프로젝트의 공모자 – 스탈린주의 KPRF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겐나디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은 푸틴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시작 시점부터 전면 지지해왔다. KPRF는 푸틴의 극단적 배외주의 대러시아 언사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우크라이나 "탈나치화"를 운운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초기에 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당국은 돈바스 인민공화국들 지도부의 호소를 좇아, 나치 도발자들을 강제하여 평화로 몰아넣기 위한 군사-정치적 작전을 감행했다. 이 조치들은 돈바스의 평화를 보장하고 미국과 나토 측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러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전체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3)]

3) KPRF: The People of Ukraine Must Not Be a Victim of World Capital and Oligarchic Clans, 25.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People-of-Ukraine-Must-Not-Be-a-Victim-of-World-Capital-and-Oligarchic-Clans.-Statement-of-the-CPRF-CC-Presidium/; 다음도 보라. KPRF: What is happening in and around Ukraine, 11.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What-is-happening-in-and-around-Ukraine/; KPRF: The war

KPRF는 또 다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가 나치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하고 탈나치화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적인 제국주의 미-나토 동맹의 교두보로 유라시아 나라들을 겨누는 나치 국가로 되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 정치세력들에게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우의를 위해 인민외교 메커니즘을 사용해줄 것을 촉구한다."[4]

이와 같이 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에서 "조국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숨김없이 공공연하게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나치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무기로 채택하기까지 한다!

오늘 전 세계의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의 동지 주가노프의 숨김없는 러시아 배외주의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사양반은 자신이 배외주의 "루스키 미르" 개념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결코 비밀로 감춘 적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KPRF와 손 맞잡고 러시아 (및 중국)에 사회제국주의적 지지를 바치고 있다.[5]

RCIT는 RCIT 러시아 동지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배외주의 프로파간다에 맞서는 강고한 반대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함께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내건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서방 양 제국주의 진영 둘 다에 반대한다.

crimes of Nazi-Bandera nationalists must be condemned by the whole world, 2.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war-crimes-of-Nazi-Bandera-nationalists-must-be-condemned-by-the-whole-world/; V.N.Tetekin: Hostilities in Ukraine. What is happening and why? 21.3.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Hostilities-in-Ukraine.-What-is-happening-and-why/; KPRF: Fascists from Europe and terrorists from the Middle East support Nazis and Bandera nationalists, 8.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Fascists-from-Europe-and-terrorists-from-the-Middle-East-support-Nazis-and-Bandera-nationalists/; Gennady Zyuganov: The Heinous Provocation of Bandera Nazis Requires Investigation, 5.4.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HEINOUS-PROVOCATION-OF-BANDERA-NAZIS-REQUIRES-INVESTIGATION/; Vyacheslav Tetekin, Nazism – Ukraine's Deadly Disease, 26.3.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Nazism-Ukraines-Deadly-Disease/.

4) KPRF Position concerning the special operation of the RF in Ukraine, 4.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CPRF-Position-concerning-the-special-operation-of-the-RF-in-Ukraine/

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푸틴의 푸들들> 이외에 같은 저자의 다음 팜플렛도 보라.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또 다음 글들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5.html;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 샌더스, 룰라, 바루파키스, 코빈의 “진보인터내셔널”이 낸 성명 비판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5월 17일

며칠 전 개량주의 국제조직 "진보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을 발의했다. 이른바 "아테네 선언"이다. 선언의 주제와 내용, 발의자들의 정치적 성격으로 봐서 이 성명은 사회주의자들이 지나칠 수 없는, 꼭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담고 있다.

제레미 코빈, 야니스 바루파키스 등이 “진보인터내셔널”을 대표하여 공식 발의한 선언문 전체를 여기에 옮겨 놓고 시작해보자.[1)]

1) Yanis Varoufakis, Jeremy Corbyn and Ece Temelkuran present the Athens Declaration, DiEM25 Communications, 13/05/2022, https://progressive.international/wire/2022-05-13-corbyn-temelkuran-varoufakis-the-athens-declaration/en 및 https://diem25.org/yanis-varoufakis-jeremy-corbyn-and-ece-temelkuran-present-the-athens-declaration/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비동맹 운동이 요구된다.

*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편에 선다. 우리는 침략과 추방과 점령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선다.
* 우리는 즉각적인 정전과 러시아군의 철수, 그리고 유엔의 틀 속에서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가 보장하는 포괄적 평화조약을 요구한다.
* 우리는 국제법과 모는 난민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난민들은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안전 장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우리는 만연한 군사주의와 초현대식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신 냉전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경쟁 블록으로 세계가 분열하는 것에 반대한다.
* 우리는 모든 군사 블록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착취를 제한하고 사회 환경 정의를 추구하고 한 나라에 의한 다른 나라의 지배를 종결시키는 포괄적인 국제 안보 틀로 대체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새로운 비동맹 운동’ (New Non-Aligned Movement)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비동맹 · 민주 · 자주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길이자 기후 재앙을 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된 번영의 여건을 조성할 적절한 기회로 본다.”

부르주아 평화주의 빈말

먼저 선언의 내용부터 보자. 기본적으로 아무 구체적인 결론도 도출함이 없는 공허한 평화주의 언사의 반복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편에 선다. 우리는 침략과 추방과 점령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선다"고 진보인터내셔널은 말한다. 훌륭하다.

많은 부르주아 정부와 언론들도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두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 진보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의 민족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편에 선다"는 것인가? 성명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보인터내셔널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5월 초, 미국 타임지는 룰라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2002–10년 브라질 대통령이었고 올해 10월에 있을 대선에 다시 출마할 브라질 PT("노동자당")의 역사적인 지도자 룰라와의 인터뷰다. (PT는 진보인터내셔널 내 주도 세력 중 하나다.) 이 인터뷰에서 룰라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편 들길 거부한다. 그리고 양측 모두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룰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푸틴에게 '당신은 무기가 많지만,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필요는 없소. 얘기 좀 해봅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동시에 룰라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실제 원했다"고 말한다. "정말 젤렌스키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면, 좀 더 협상을 했을 텐데요."[2)]

이와 같이 진보인터내셔널은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편 들길 거부하고 이 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이들 자유주의 개량주의자들은 피억압 인민과 억압자를 구분하길 거부한다. 희생자와 침략자를,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를 구분하길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원칙과, 아니 민주주의 원칙과도 전혀 공통점이 없다!

2) Lula Talks to TIME About Ukraine, Bolsonaro, and Brazil's Fragile Democracy, by Ciara Nugent, May 4, 2022, https://time.com/6173232/lula-da-silva-transcript/

아테네 선언은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한다. 물론, 약자의 입지에서 피억압자 진영이 "즉각적인 정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요구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각적인 정전" 요구는 오직 침략자 편에만 유리한 요구일 것이다. 침략자가 정복한 것을 굳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즉각적인 정전" 이란 러시아가 동 우크라이나와 남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장악한다는 뜻이다.

진보인터내셔널 지지자들은 아테네 선언에는 "러시아군 철수"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이는 진보인터내셔널이 보기에도 우크라이나가 외국 침략자에 의한 불법 점령의 희생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물론, 결론을 도출해서 피억압 인민을 지지하는 것 없이) 느낀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보인터내셔널은 무력에 의한 침략자의 축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이것이 푸틴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해준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푸틴의 군대가 이미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을 점령한 상태라는 점에서 말이다.

글로벌 사회제국주의와 결합된 평화주의

진보인터내셔널은 어떻게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가? 사실상, 이들 리버럴 개량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 즉 "유엔 틀 속에서의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 이 보장하는, 협상을 통한 평화조약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유럽제국주의 · 미제국주의 · 러제국주의 + UN (안보리 거부권 행사 5개 열강이 지배하

는 그 UN)에 의한 평화 실현 요구다.

진보인터내셔널이 이 요구의 명백한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설적이다. 서두에 소개한 다음 발언을 보라. "우리는 만연한 군사주의와 초현대식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신냉전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경쟁 블록으로 세계가 분열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군사 블록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유권을 확대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착취를 제한하고 사회 환경 정의를 추구하고 한 나라에 의한 다른 나라의 지배를 종결시키는 포괄적인 국제 안보 틀로 대체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 우크라이나의 평화조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진보인터내셔널이 말하는 그 강대국들 – 이 계속 존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빈곤 없는, 평화로운,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자본주의 독점체들의 혁명적 전복 없이 평화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글로벌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평화와 사회적 정의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진보인터내셔널은 강대국들이 계속 존재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라는 공상적인 관점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와 CSTO 같은 정식의 군사동맹이 없더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 열강이다. 제국주의 열강을 그대로 둔 채 단지 이러한 "군사 블록"을 다른 무슨 "국제 안보 틀"로 대체한다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이 제거될 것인가? 가당치 않은 얘기다.

두루 알다시피, 나토와 CSTO와 같은 기존 군사동맹체는 1945년 이후에야 생겨난 것들이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동맹체의 존재 없이도,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존재와 이들 강대국 패권쟁투는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1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가 아래에서 보겠지만, "아테네 선언"의 이러한 모순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교 언어를 부르주아 현실권력정치 (레알폴리틱)에 결합시킨 리버럴 개량주의 정치가들의 양두구육적 위선 정책에 기인한다.

"새로운 비동맹 운동"?

진보인터내셔널 성명은 이처럼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보장할 "새로운 비동맹 운동"의 창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비동맹 운동"은 어떠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다.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일 것이다.

아테네 선언이 나온 같은 날 영국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신문 모닝스타가 "새로운 비동맹 운동"을 다룬 인도 언론인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저자는 지역 열강이 된 그의 모국의 자랑스러운 애국자라서 기사 제목을 "가능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담당할 핵심 역할이 인도에게 있다"로 달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탈린주의의 사회애국주의적 특성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비동맹 운동"의 성격을 구체화하려는 기사 저자의 시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오늘의 비동맹은 세계은행과 IMF의 독재 및 지속되는 부채의 악영향을 거부하고 전쟁 도구로서의 제재를 폐지하고 유엔을 보다 공평하게 재정립하는 등의 세계질서 전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례가 있는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브릭스 국가들은 미래 블록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브릭스 개발은행(BRICS Development Bank)이라고 불리는 신 개발은행에 대한 올바른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3)]

이와 같이 자유주의 개량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브릭스와 그 기구들을 "새로운 비동맹 운동"이 좇아야 할 본보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브릭스가 무엇인가? 주요 제국주의 열강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그 밖의 자본주의 지역열강 (브라질, 인도, 남아공)의 동맹이다. 브릭스의 은행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 금융기구 이상이 아니다. IMF나 세계은행보다 낫지 않고, 단지 지배하는 강대국이 다를 뿐이다! 중국 대출을 받고 그 결과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에게 물어보라!

한마디로, 소위 "새로운 비동맹 운동"은 중 · 러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나라의 그들 동맹 지배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슬로건으로서 또 다른 혼성괴물 키메라일 뿐이다.

맑스주의와 평화주의

우리는 이참에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현재 평화주의를 전도하는 세력들은 이들 자유주의 개량주의자들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부르주아 정부들

3) Prasanth Radhakrishnan: India has a key role to play in a possible new world order. A non-aligned future for the global South raises immense challenges and glimpses of hope for India and other nations, 13th May 2022,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f/india-has-key-role-play-possible-new-world-order

(중국 정부를 포함한)과 "좌파" 세력들도 평화주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의 위선적이지 않은 정직한 평화주의와 직업 정치가들 및 그들에게 고용된 전문가 · 학자들의 꾸며낸 위선적인 평화주의를 구분한다. 전자는 대중의 혼동된 의식을 표현하지만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의 역병을 없애려는 진보적 소망을 담고 있다. 당연히 혁명가들은 그러한 관점의 결함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희망과 연결을 갖고, 그것을 대중의 집단적 투쟁의 전진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르주아 정치가들과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좌파" 지식인들의 평화주의는 이와는 다르다. 혁명가들은 이들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인민대중에게 이 양두구육 사기극의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진보인터내셔널의 아테네 선언은 그러한 양두구육 위선의 좋은 예다. 그들은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내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명백히, 권력과 무기를 쥔 자들이다. 정확히 말해서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열강과 그들의 군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진보인터내셔널은 이른바 평화조약을 보장한다고 하는 자본주의 열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엔 틀 속에서의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즉, 제국주의 열강들과 그들이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보장되는 '평화'다.

이와 같이 평화주의는 피억압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자본주의 열강과 그들의 군대를 그대로 두는, 나아가 이 강

도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다.

실제로 역사를 통틀어 피억압자는 결코 폭력 없이는 어떤 의미 있는 진보도 이룰 수 없었다. 노예제의 폐지와 식민지 억압자의 축출, 파시즘이나 독재 정권의 타도 등, 이 모든 성취는 폭력과 무장투쟁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것은 오늘 잔학한 외세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방위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다르지 않다.

물론 사회주의자들도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을 낳은 원인이 제거, 폐절된 사회적 기초 위에서 세워진 평화의 질서를 의미한다. 계급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 말이다. 따라서 단 하나 의미 있는 평화 전략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데서는 어디서든 억압자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투쟁 수단을 제창,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주의는 피억압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투쟁 방향을 잃게 만드는 반동적이고 해악적인 이데올로기다. 맑스주의 운동이 이 허튼소리에 언제나 적개심을 내려놓지 않아온 이유다. 물론,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평화주의자들과 제한적인 실천적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본가계급에 의한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여 개량주의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고, 인종주의와 식민지 점령에 대항하여 피억압 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이나 이슬람주의자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로서, 정치세력으로서 평화주의는 사회주의의 적이다.

1917년 최초의 성공적인 노동자계급 혁명을 조직한 당인 볼셰비키는 언제나 평화주의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1915년 2월 당 재외지부 회의 (일명 "베른 회의")에서 볼셰비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 "평화주의, 즉 평화를 추상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속이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전쟁이 아닌, 혁명적 전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789년에서 1871년 사이에 치러진 전쟁들, 민족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그리고 분산된 봉건적 소국가들로부터 자본주의적 민족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전쟁들, 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성과물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쟁들이 그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러한 혁명적 전쟁의 적극적 의의를 놓칠 수 없다."[4]

> "현 시기에 혁명적 대중행동에 대한 요구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 선전은 단지 환상을 유포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혼란과 사기저하로 몰아넣을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화 선전은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부르주아지가 인도적이라고 믿게 만들고, 교전국의 비밀외교의 수중에서 놀아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일련의 혁명이 없이도 이른바 민주주의적 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철두철미 오류다."[5]

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과 함께 공저자로 <<사회주의와 전쟁>> 팜플렛을 국제 사회주의자 대회에 배부한 볼셰비키 지노비에프도 이 사상을 다음과 같이 아주 요령 있게 설명했다.

> "'우리 슬로건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평화 사상'?!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고

4)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5쪽

5) 같은 글, 116쪽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제국주의 전쟁이 터진 뒤에 말이다! 이게 당신들이 사건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평화 사상이 아니라 내란 사상', 이것이 우리가 그런 보잘 것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이들 위대한 유토피아 공상가들에게 외치고 싶은 유혹이다. 시민 아들러여! 평화 사상이 아니라 내란 사상, 이것이 우리 강령의 중심 포인트다.

문제는 우리가 전쟁 전에 평화 사상을 충분히 전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계급투쟁 사상, 내란 사상을 충분히 또는 진실로 충분히 전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전시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급투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허한 수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속이는 것이다."[6]

"그렇다. 우리는 결코 원리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억압자들의 전쟁에, 제국주의 전쟁에, 수백 수천만 노동자들을 노예의 처지로 떨어뜨리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적 전쟁들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7]

몇 년 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화주의의 위험을 요약정리 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현실이다. 부르주아 평화주의는 자본주의적 환상이다. 평화주의는 부르주아 사회개혁만큼이나 자본주의의 모순과 해악과 범죄를 극복하는 데 무능하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부르주아지, 중소 부르주아지의 대열 속으로 불화와 불확실성을 도입할 것이고,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적

6) Gregory Zinoviev: Pazifismus oder Marxismus (B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116 (In English: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7) 같은 글, 119쪽

을 약화시킬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적이 약화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모든 부르주아적 평화주의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기회를, 노동자계급을 투쟁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투쟁의 도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군사주의와 제국주의가 이성과 평화 애호의 점진적인 승리에 의해 철폐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 에너지에 평화주의가 미치는 그 어떤 무력화 약화 효과 - 부르주아 평화주의적 선전과 연결된 위험 - 에 대해서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해줄 것이다... 평화주의적인 감상적 희망의 안개로 인해, 부르주아지가 삶의 생산수단과 죽음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덕에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두 생산수단 모두를 거머쥐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무력에 의해 자유를 빼앗겼으므로 무력에 의해 자유를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8]

이 말들은 오늘에도 그 의의를 잃지 않았다. 우리가 더 많은 전쟁과 혁명 · 반혁명으로 점철되는 시기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누가 "진보인터내셔널"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테네 선언" 은 모종의 평화주의 언사를,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자본주의 독점체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새로운 평화적 세계 질서라는 부르주아 공상주의 개념에 결합시킨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음의 결과라기보다는 부르주아 · 사회제국주의 전략을 덮어 가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8)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p. 331-332

이는 이 “인터내셔널” 중앙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면면을 보면 명백해진다.[9] 위원회 구성원은 상기한 룰라, 버니 샌더스, 제레미 코빈, 바루파키스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이 자본가국가의 전현직 수반들, 국회의원들, 장관들로 복무한 자유주의/개량주의/볼리바르주의 당들의 대표자들이다.

평화주의 언사에다 모호한 "대안적 신 세계질서" 제안을 양두구육 적으로 섞어놓은 이 위선적인 조합이 철저히 부르주아적인 정책을 대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실상 이것은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그 억압 · 착취적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 개량하자는 제안이다. 진보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이 이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잘 어울리는 자본가국가 공직자로 수년간 복무했다는 점에서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 진보인터내셔널은 대중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힘은 있지만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바꿀 힘은 없는 무력한 느슨한 연합체다. 실제로 이 “인터내셔널”의 구성을 보면, 언제나 중 · 러 제국주의와의 협력을 모색해 온 중남미 개량주의 · 볼리바르주의 세력들과, EU 제국주의 정부들에서 각료 등 정부 직책을 갈망하는 유럽의 개량주의 당 지도부들과, 현재 바이든 정부의 군국주의 대외정책의 지지자들인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 동맹세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이들 세력은 일종의 글로벌 사회제국주의 (또는 범 사회제국주의)를 전도한다. 개량된, 평화적인 제국주의 세계질서라는 공상적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현실에서, 진보인터내셔널은 언제든 동서 강대국들 간 심각한 대결 시에는 바로 붕괴되거나 마비될 수밖에 없는 느슨한 연합체다.

9) 다음을 보라. https://progressive.international/council

맺음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은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해서나,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해서나 아무 전망도 밝혀주지 않는다. 오히려 투쟁의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만 있을 뿐인 정치적 연막탄이다.

이러한 류의 평화주의와 글로벌 사회제국주의로부터 스스로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의무다. 사회주의자들은 "진보인터내셔널"의, 그리고 노동자 · 민중 조직 내 그 비슷한 세력들의 유해한 영향력과 싸워야 한다.

리버럴 개량주의 “진보인터내셔널”의 부르주아 정책과는 반대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그 밖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개전 당초부터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정책을 제창해왔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전쟁, 방위 전쟁의 진보적 정당성을 인식하며, 따라서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반동적 성격을 인식하며, 따라서 러시아와 나토 양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우리의 입장을 요약해놓았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

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강대국들 없는, 자본주의 독점체들 없는 세계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호소한다. 그러한 사회질서 속에서만 전쟁과 폭력이 제거될 것이다. 그러한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진보인터내셔널"과 같은 세력들이 제창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와 자유주의 개량주의의 유해한 영향력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임무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야만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과 전망에 동의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이 투쟁에서 RCIT와 함께 하고 공동으로 혁명세계당을 만들 것을 요청한다!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6월 10일

<차례>

들어가며
“대리전”에 불과하다?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의 빈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퇴보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은 무장할 권리가 있다!" 오, 감사합니다!
반제국주의 없는 맑스주의?

들어가며

“국제사회주의대안” (ISA)은 트로츠키주의 조직을 자임하면서 부끄럽게도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세력 중 하나다.[1] 설상가상으로 ISA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군사 원조에 대해서도 엄히 반대한다. 이러한 반동적 기권주의 입장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대리전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대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RCIT)을 비롯한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현 충돌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수많은 개량주의 · 중도주의 좌파 단위들이 반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우리는 개전 며칠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 · 세계적 모순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이탈 -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양대 강대국 진영 간 긴장 고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키기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risis in the CWI: For a Marxist Way Out! A proposal to all current members and former members of the CWI to discuss the way forward in these tumultuous times, 29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to-cwi/

위해 젤렌스키 – 미국/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인 – 를 이용하려고 한다."[2]

현 충돌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 이중 전술을 제창하는 근거다. RCIT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방위 전쟁을 진보적이고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반동적 성격 또한 인식한다. 이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와 나토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해 놓았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대리전"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ISA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개전 당초부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이 어떠한 독립적인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는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해 왔다. 이는 우크라이나 인민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IS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민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일 뿐이다. 실제로 ISA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방위 전쟁은 아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부차적인 지엽말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ISA는 기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에 대한 어떠한 지지에도 반대한다.[3]

3월 말 ISA 지도부가 채택한 공식 성명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비롯하는데, 세계가 급격히 두 진영으로 나뉘는 맥락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20세기 초의 전쟁과 더 닮았다. 경쟁하는 두 자본주의 블록 간에 일어나는 제국주의 간 충돌 말이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지를 – 외견상으로는 처음에 다소 잠정적인 지지였지만 – 업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역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지지를 업고 있다. 특히 그 첫 단계에서 이 전쟁의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성격은, 앞서 많은 최근의 충돌들에 직면하여 발생했던 의식상의 혼란과 복잡성보다 더 큰 수준의 혼란과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이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두 제국주의 블록 간의 이 대결이 러시아에 의한 잔혹한 제국주의 침공과 점령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대중에 대한 정당한 동정심으로 인해 다소 흐려져 버린 때문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과 이 전쟁을 일부로 하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 계급 모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4]

ISA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한 민족 방어 투쟁이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일 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얻으려는 시도에 엄격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

2)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3) 비판적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ISA, by opposing the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to fight Russian imperialism, serves Russian imperialism, 14.04.2022, https://the-isleague.com/the-isa-by-opposing-the-delivery-of-weapons-to-ukraine-to-fight-russian-imperialism-serves-russian-imperialism/

4) ISA: War in Ukraine. The New Era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1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4/isa-international-committee-statement

서방 제국주의의 모든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여기에는 나토 열강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확전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ISA 지도부는 이 성명 이래로 이 같은 반동적 기권주의 노선을 지켜왔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다 장문의 문서에서도, 이 충돌이 "제국주의 간 대리전"에 불과하다는 테제를 되풀이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지 반대/ 군사 원조 반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를 적극적으로 사보타지 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한다!

"'대리전'으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토 팽창에 맞서 싸운다고 자처하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결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고통에 연대를 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점령에 맞서고 있는 것도 정당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에 동정적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 공급을 늘리고 제재를 증가시키고 나토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는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것일 뿐이며 전쟁의 잔혹성만 더 커질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행동만이, 즉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이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병사들에게 전쟁에 반대할 것을 호소하고,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전쟁 동원에 반대하고, 국제 노동자계급이 연대하여 무기 수송을 차단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행동만이 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민족주의적 군국주의를 대체하는 노동자계급 연대가, 즉 자본가, 독재자, 전쟁광들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점령에 전면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또한 나토와 군국주의화의 기승, 무기 공급과 제재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강화도, 서방 제국주의의 강화도,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며, 전쟁, 국가 분단, 착취,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와 연대에 찬성한다."[5]

그리고 며칠 뒤, ISA의 가장 큰 주도적 지부인 미국의 사회주의 대안(SA)은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또 다른 논설을 발표했다.

"서방 열강은 결코 우크라이나 인민의 고통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일부 자본주의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충돌은 '전제정과 민주주의' 간, 또는 '개방사회와 폐쇄사회' 간의 투쟁이 아니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와 일부 아시아 나라들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 중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제국주의 블록들 간의 글로벌 지배를 위한 투쟁의 일부다. 서로 겨루는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이익은, 자원 접근과 세계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고 일반적으로 자국의 '세력권'을 창출, 강화하려는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인민이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신냉전의 확전에 반대하는 데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내 지지가 약화되고 동맹들이 끝없는 분쟁에 불안해하자, 바이든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타임스에 밝힌 기명 논평에서 목표는 러시아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끝없는 무기 공급은 이것이 다 말뿐임을 보여준다. 서방은 여전히 확전을 밀고 가고 있다."[6]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의 빈곤

5) Walter Chambers: War in Ukraine — a New Drawn-Out Phase, ISA, 18 May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5/war-in-ukraine-2

6) Tom Crean: Bipartisan Support for Militarism: Imperialist Conflict Sharpens in Ukraine, Socialist Alternative, 7 June 2022, https://www.socialistalternative.org/2022/06/07/bipartisan-support-for-militarism-imperialist-conflict-sharpens-in-ukraine/

위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ISA는 우크라이나 방위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지가 "확전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하는 데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군사적 지지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정당화한다.

인용문은 ISA의 철두철미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적인 시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한 접근태도는 오류로 점철된, 맑스주의와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 태도다. 맑스주의자는 원리적인 전쟁 반대자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전쟁에 다 반대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확전"에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반동적인 전쟁에 반대하며, 그러한 류의 전쟁을 확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피억압자의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며, 그러한 전쟁을 확전하는 데 찬성한다!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폭력 일반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 남성의 폭력을, 난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노예에 대한 노예주의 폭력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학대자에 대항하는 여성의 폭력을, 국가 탄압에 대항하는 이주 청년의 폭력을, 노예주에 대항하는 노예의 폭력을 제창, 옹호한다.

이것이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의 접근태도였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주요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평화주의, 즉 추상 속의 평화를 전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속이는 수단 중 하나다.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그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적 전쟁, 즉 제국주의적 전쟁이 아닌 혁명 전쟁의 긍정적인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7]

7)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5쪽

레온 트로츠키의 제4인터내셔널이 전쟁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 강령의 방어를 이어갔다. 트로츠키/제4인터는 반동 전쟁에 반대하고 피억압자의 해방 전쟁에 지지를 보냈다. 1930년대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 에티오피아 인민의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전쟁, 공화주의 스페인의 전쟁 등이 당시 그러한 전쟁이었다. "전쟁이 한 측에만 제국주의 전쟁이고 다른 한 측에는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는 비제국주의 민족의 또는 사회주의 나라의 해방 전쟁인 경우에, 그리고 계급 간 또는 민주주의와 파시즘 간 국내전인 경우에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양 측 모두에 같은 전술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해서도 안 된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해방 전쟁의 진보적 성격을 인식하여 주적 (반동 제국주의, 또는 국내전의 경우 반동 진영)과 단호히 싸워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피억압 측 또는 피억압 직전에 있는 측 (소련, 식민지 · 반식민지 나라들, 에티오피아나 중국, 공화주의 스페인 등과 같은)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8]

맑스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반동적 전쟁과 진보적 전쟁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접근법에 근거해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른 전술을 제창한다. 우리는 반동적 전쟁의 확전에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전쟁에 무기를 전달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해방 전쟁에서는 아주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무기 전달을 지지한다! 트로츠키는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과 같이 썼다. "물론 우리는 이탈리아의 패배와 에티오피아의 승리에 찬성이며, 따라서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탈리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에티오피아에 무기 전달을 최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

8)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The New International, May 1938, Theoretical Journal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US-Sec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lement-war/

다"[9]

불행히도, ISA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노예화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진보적 의미를 온전하게 인식하질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설상가상으로, 무기 전달에 반대함으로써 투쟁 지지에 대한 사보타지를 촉구한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에 다름 아닌데, 왜냐하면 러시아 제국주의가 이 전쟁에서 더 강한, 더 잘 무장된 진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ISA는 모든 "전쟁 반대"와 무기 전달 반대 입장을 전도한다. 트로츠키는 평화주의가 억압자의 대의에 봉사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ISA의 강령에 해당되는 지적이다. "평화주의의 본질은 폭력 사용 일반에 대한 비난 - 위선적인 비난이든 그렇지 않은 비난이든 - 이다. 평화주의는 피억압자의 의지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억압자의 대의에 봉사한다. 이상주의적 평화주의는 도덕적 분개로 전쟁에 맞선다. 어린 양이 도축사의 칼에 애처로운 울음소리로 맞서는 식으로 말이다."[10]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퇴보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라는, ISA의 우크라이나 전쟁 성격 규정에 대한 우리의 거부는 최근 몇 달간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전쟁 초기부터 말했듯이, 이러한 우리의 거부가 그 같은 유형의 전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배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부르주아적 · 친

9) Leon Trotsky: The Italo-Ethiopian Conflict (1935),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5-36),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41

10)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S. 150

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로 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길 바란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은 무엇보다도 민족자결을 위한 전쟁, 제국주의 외세의 점령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지난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전쟁의 성격을 전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토가 개입할 가능성은 실제로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나토군이 개입하여 알바니아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나토 제국주의 목표에 사실상 종속시킨 사태를 우리는 본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니며, 맑스주의자들은 미래의 가능한 사태발전이 아닌 현재의 현실에 전술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11]

ISA 동지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서방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제국주의 강도들에 반대하며, 동서 강대국들 모두에 대항하여 모든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따라서 RCIT는 일차적으로 해방전쟁의 대의에 봉사하는 방책과 일차적으로 강대국 배외주의의 대의에 봉사하는 방책을 전술상에서 구분한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겨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력에 봉사한다. 서방의 대러 제재와 자산 몰수는 일차적으로 미국 · EU 지

11) 미하엘 프뢰브스팅,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ts-ft-workers-sanctions-against-ukraine/#anker_5/

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 우리가 군사 원조를 지지하지만, 금융 · 경제 제재 정책에는 반대하는 이유다.[1 2)]

"노동자들은 무장할 권리가 있다!" 오, 감사합니다!

ISA가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에 강한 동조감을 가진 사람들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보려고 시도하는 대목들이 성명서에는 있다. 성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이고 있는 대목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자주적 조직을 통해 무장할 권리를 옹호한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노동자계급 무력이 조직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단지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침략군의 병사 대열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급적 호소에 기반해야 한다), 반동 젤렌스키 정권 및 그 이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극우 그룹들과 민병대들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것은 미사여구 놀음이다. 확실히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ISA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주적 조직을 통해 무장할 권리"를 부여해준 것에 감사할 것이다. 오, 감사합니다! 불행히도, ISA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 그들이 국외로부터 현대 무기를 얻을 권리를 부여해주지는 않는다! ISA 지도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겐 불운이네! 그러나 어쩌랴,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일 뿐인데!"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자주적 조직을 통해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말도 반가운 말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민병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ISA

1 2) 우리의 논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절박하다고 제국주의 제재나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2022년 4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47.html/

지도부들에게 비밀일 수 없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 반식민지로서 반동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다.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잔학한 공격을 맞고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없애지 못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민족 방어 투쟁은 현재 반동 젤렌스키 정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분명히 그것은 반동적인 허튼소리일 것이고 이 나라에서 아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 하에 떨어지면 노동자정부 쟁취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조건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다!

많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젤렌스키 정부에 불만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침략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방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위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식민지 노예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선택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방위 전쟁에 대해, 즉 반동 젤렌스키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위 전쟁에 대해 지지인가, 아닌가? RCIT는 그렇다고 말하고 ISA는 아니라고 말한다. 현 세계정세에서 맑스주의와 수정주의 사이에 놓여 있는 심연이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무비판적으로 이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투쟁 속에서 젤렌스키 정부를 노동자 정부로 대체해야 할 필요를 노동자들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민병을 건설하여 노동자 · 민중을 젤렌스키 타도로 준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책은 현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실제 투쟁 밖에서, 그와 별개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사회주의 선전은 사회주의 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노동자 · 청년들과 함께 어깨 걸고 해야 한다! 반대로 ISA 지도부의 정책은 이러한 맑스주의적 투쟁방침과 정면 대립한다.

반제국주의 없는 맑스주의?

반식민지 자본주의 나라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맞은 최근 예를 들어보자.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말비나스 전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2001년) 및 이라크 침공(2003년), 러시아의 체첸 군사개입 (1994–96년, 1999–2004년), 시리아 군사개입 (2015년 이래) 등이 있다. 이 모든 반식민지 나라들은 '진보적 지도부 없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했다. 그럼에도 이 나라들이 민족 억압에 직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식민주의 압제 · 수탈에 대항하는 민중 투쟁은 객관적으로 진보적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투쟁이 부르주아 지도부 하에서 일어나더라도 그렇다.

언제나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접근태도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19세기에 러시아에 대항하여 폴란드 인민의 투쟁을, 영국에 대항하여 아일랜드 인민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들 투쟁 지도부의 종교적 · 봉건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이탈리아에 대항하여 에티오피아를,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을 지지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절대왕정을 지도부로 하여, 중국의 경우 반동 독재 장개석을 지도부로 하여 각각 투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미 잘 알려진 이들 사례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더 많이 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문서들을 참조하길 독자들께 권한다.)[13] 그러나 ISA는 언제나 이러한 맑스주의적 반제국주의 강령에 반대해 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영국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미국에 대항하여 아프간과 이라크를,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마스[14]를 방어하는 데 실패한 이유다.[15]

요약하자면, ISA는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하고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에 영합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반제국주의 없는 맑스주의를 전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맑스주의는 아무 혁명적 내용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맑시즘의 사회제국주의적 희화를 보여준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것의 위치는 이 반(反) 맑스주의 전통의 계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ISA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태도,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공허한 동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조를 선언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건 실제 파업투쟁에 대해서는 지지하길 거부하는, 즉 파업자들에게 파업기금을 보내고 연대 행동을 조직하는 등 실질적인 연대와 동조를 거부하는 조합 관료들의 정책과 닮았다.

오늘 ISA는 우크라이나 민족해방전쟁을 "제국주의 간 대리전"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Michael Pr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soft and not so soft Zionism of the ISA, 25.05.2022, https://the-isleague.com/the-soft-and-not-so-soft-zionism-of-the-isa/; 다음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i-and-israel/

15) 위에서 언급한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이라고 비난하고 군사원조에 반대하며, 나아가 이를 사보타지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러시아의 "사회주의동맹"(CT) 동지들과 함께 한 공동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주의동맹과 RCIT는 푸틴 정권의 침략 전쟁을 – 공공연하게든, 은밀하게든 – 지지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을 비롯한 그 밖의 스탈린주의 당들의 파렴치한 배반을 규탄한다. 그들은 친러 사회제국주의 당들이다. 불행하게도, 레닌과 트로츠키의 전통에 서 있다고 자처하면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조직들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들 세력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는 강대국 간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하고 자신들의 반동적인 중립 기권주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레온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은 한 반전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전쟁과 전쟁의 사회적 근원인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은 피억압 식민지 인민의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 전쟁에서 이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직접적인, 적극적인, 한 점 모호함 없는 명백한 지지를 전제로 한다. '중립' 입장은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와 같다."[16] 이러한 규탄의 말은 오늘 많은 "트로츠키주의" 인터내셔널들에게 정확히 해당된다."[17]

ISA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동지들은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ISA 지도부는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 다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했다. 반제국주의 강령을 걸고 싸우기를 원하는 동지들은 ISA의 정책과 단절해야 하며, 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정책을 전파해온 지도부와도 단절해야 한다.

16)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99

17)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타도!>,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22년 6월 4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rcit.html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 왜 이 슬로건이 맑스주의 민족자결 강령에 반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현 민족해방투쟁의 이익에도 반하는지, 그 역사적 · 이론적 정치적 이유에 대하여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테제

2022년 6월 27일

* 다음 테제는 러시아 동지들 및 우크라이나 동지들과의 토론에 힘입었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는 “돈바스 자결” 슬로건의 반동적 · 친제국주의적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1.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푸틴 옹호자들 사이에서 푸틴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핵심 이데올로기 기제로 복무하고 있다. 돈바스에 살고 있는 "억압 받는 러시아 인민"의 "해방"을 위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슬로건은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스탈린주의자들과 좌익 민중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나아가 이 슬로건은,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반대하지만 우크라이나 방위 전쟁을 편 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각종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정당성을 얻기까지 하고 있다. 이 푸틴주의 슬로건과 연결된 것이, 돈바스가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 – 즉 악명 높은 “루스키 미르”의 일부로서 – 이며, 따라서 “천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에 속한다는 이데올로기다.

2. 맑스주의자들은 "돈바스 자결" 슬로건에 엄중히 반대한다.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정립된 바의 사회주의적 민족자결 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그 슬로건은 2014년 러시아의 돈바스 개입 시작 이래로 친제국주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요약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적 이유를 근거로 "돈바스 자결" 슬로건을 배격한다.

i) 그 같은 푸틴주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인이 다수자인 지역이어 왔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인은 언제나 소수자를 구성해왔을 뿐이다.

ii) 돈바스의 러시아 인민은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 따라서 맑스주의적 민족자결 원칙 – 오직 피억압 인민에게만 해당되는 해방 강령인 – 은 돈바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돈바스 자결"을 위해 싸우는 독립적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슬로건을 내거는 돈바스 지역의 모든 세력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지자들이다. 즉 푸틴 정권의 하수인 · 대리인들이지, 피억압 인민의 대표자들이 아니다.

다음에서 이 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돈바스: 20세기 내내 우크라이나인이 주민의 다수를 이룬 지역

4. 돈바스의 이전 역사에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중 어느 쪽이 먼저 이 지역에 정주했느냐는 문제를 놓고 친러시아 역사가들과 친우크라이나 역사가들 간에 오랜 논쟁이 존재한다. 맑스주의자들에게 이 논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른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존재해온 몰역사적 현상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근대 민족의 출현은 자본주의 확대발전 및 국내시장 창출의 필요, 공통어의 확립 등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경우 차르 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다소 뒤늦었고 1861년 농노 해방 이후에야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됨으로 인해 민족들의 형성 과정이 서유럽 나라들보다 나중에 일어났다. 그 때문에 돈바스의 민족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전개를 고려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5. 민족 형성기 시작 이래로 언제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이 다수자를 이루었고, 러시아인은 상대적으로 수적 소수자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기에 걸쳐 이러했는데, 19세기 후반의 차르 제국 때부터 1920년대 초반의 혁명적 쏘연방 시기와 이후 스탈린주의 쏘연방 시기까지, 그리고 1989년 이후의 자본주의 우크라이나 시기까지 내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인이 다수자가 아닌 적은 없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897년/1926년/1959년/1989년/2001년 인구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은 지속적으로 다수자로서 돈바스 주민의 51∽60%를 점했다. 반면 러시아인은 26∽44%로 같은 시기 동안 줄곧 소수자였다. (아래 표 참조)

6. 1945년 이후 러시아인의 비율이 (다수자로 된 적은 없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1930년대 이래로 스탈린주의 관료층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된 대러시아 배외주의 정책의 결과물이었다. 이 정책의 결과로 모든 비러시아계 인민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이 이루어졌고, 그 최악의 결과물로 1937년부터 여러 소민족 (크림타타르인, 체첸인, 칼미크인, 잉구시인, 고려인 등)에 대한 범죄적인 집단추방이 자행됐다.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쏘연방 제(諸)인민의 독립적인 민족적 발전 일체를 대놓고 교살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그 시작 시점부터 이 반동적 정책과 싸웠다. 스탈린주의의 반인민적 만행을 경험한 결과,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쏘연방에서 사회주의적 민족자결 강령의 구체적인 적용을 제창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통일/해방/독립 노동자 · 농민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내걸었다.

7. 친러 프로파간다 논자들은 돈바스 지역의 인민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흔히 든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돈바스 지역이 민족적으로 러시아 지역이라는 주장의 정당화 논거는 되지 못한다. 실제로는, 사용 언어가 자동으로 해당 인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돈바스에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인민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러시아인 아닌) 우크라이나인으로 내세운다. 러시아어를 말하는 것이 자동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에 속한다는 뜻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위험한 오류인 이유다. 이러한 몰역사적이고 기계적인 민족 개념을 가지고서, 프랑스어 사용 스위스인과 왈롱계 벨기에인이 프랑스 민족에 속하고 아일랜드인과 스코

틀랜드인이 영국 민족에 속하며 오스트리아인과 독일어 사용 스위스인이 독일 민족에 속하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이 스페인 민족에 속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결론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8. 여기에 덧붙여, 2014년 이래로 러시아의 침략이, 나아가 2022년 2월 24일 이래로는 더더욱 러시아의 침략이 러시아어 사용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 속에서 민족 정체성과 자의식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해야 한다. 이는 돈바스와 헤르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러시아의 점령에 용기 있게 반대하는 많은 러시아어 사용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한 수많은 애국주의적 표현물 속에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오늘 단 하나 진실된 "돈바스 자결"은 러시아 제국주의 및 러제의 현지 대리인들의 점령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역사적으로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은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였던 적이 없다

9.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은 피억압 민족 소수자였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다. 1917년까지의 차르 제국 시기와 1991년까지의 스탈린주의 독재기에 러시아인은 지배 · 억압 민족이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인은 차별받는 피억압 민족이었다.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것은 바뀌었지만, 러시아인은 여전히 일련의 특권적 권리를 유지했으며 피억압 인민이 되지 않았다. 2014년 마이단 운동이 다양한 형태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조장하여 러시아어 사용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들 간의 평등한 권리와 평화로운 공존을 침해하는 일체의 민족주의적 공격에 반대한다. RCIT는 모든 민족 · 인종 집단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언어 및 문화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폐지할 것을 포함한다.

10.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러시아에 의한 역사적인 우크라이나 종속 및 억압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인민이 보유한 역사적인 특권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4년에 나타난 이러한 첫 번째 반러시아 차별 요소가 즉각적으로 돈바스의 러시아계 인민을 피억압 민족 소수자로 전화시킨 것이 아니다. 이 점은 마이단 사태 직후인 2014년 봄과 여름 러시아 군대와 현지 동맹군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이후로 러시아 자본가국가는 현지 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 돈바스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어서 대리인들은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돈바스에서 추방했다). 간단히 말해서, 반동적인 우크라이나 배외주의자들이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을 차별할 기세를 보이자 곧바로 러시아 제국주의가 군대를 보내 현지 대리인들의 조력 하에 이 지역 일부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억압자로 행세하며 많은 사람을 고향에서 추방시킨 것이다.

11. 레닌/볼셰비키가 제창한 맑스주의 민족자결 강령은 언제나 억압에 대항하는 강령이었다. 이 강령은 개개의 모든 인민에게, 즉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적 강령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RCIT는 이 강령을 피억압 인민을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해방 강령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 · 피억압자를 단결시키는 데 복무하는 해방 강령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볼셰비즘의 혁명적 해방주의 전통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족들에 대한 모든 억압에 맞선 투쟁 없이는 자신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억압국들의 (특히 이른바 '강대'국들의) 사회민주주의 당들이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 다름 아닌 그 말의 정치적 의미에서 - 즉 정치적 분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할 것을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 이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지배국 또는 식민지 보유국의 사회주의자는 배외주의자다."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1915년])

"승리한 사회주의는 반드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을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 즉 자유로운 정치적 분리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1916년])

"전적으로, 민족자결권이란 정치적 의미에서의 독립할 권리, 즉 억압 민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분리의 권리를 말한다... 오로지 모든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관된 표현을 말한다."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바로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바로 이 구분으로부터 '민족자결권'에 대한 우리의 규정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고 혁명적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당면 투쟁의 일반 임무와 부합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1915년])

"돈바스 자결" 슬로건: 러시아 제국주의의 팽창주의 정책을 위한 프로파간다 도구

12. 이러한 역사적 · 이론적 고찰 외에도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현 국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러시아 군대는 2014년 여름 돈바스를 침공해 두 개의 대리인 공화국을 세웠다. 가장 광신적인 푸틴주의자만이 이들 "공화국"이 푸틴 정권이 꽂아놓고 통제하는 꼭두각시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화국"이 조금도 "자결권"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a) 돈바스 주민의 다수자가 우크라이나인이라는 것, b) 돈바스의 많은 러시아계 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c) 제국주의적 점령을 "자결" 행위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이다.

13. 전쟁 시작 전부터 돈바스 주민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 점은 민족주의 마이단 운동이 권력에 오르고 동부의 많은 사람들이 언어 · 문화적 권리에 미칠 결과에 대해 걱정하던 날들에도 그러했다. 2014년 4월에 실시된 3개 여론조사 (도네츠크 사회정치연구소, 키이우 사회연구소, 퓨 연구센터)에 따르면, 18–27%의 소수만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에 찬성했고, 나머지 70–80% 다수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일부로 – 현재의 형태로든, 다양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토대로 해서든 – 남기를 원했다. (위키피디아: 2014년 돈바스 지위에 대한 주민투표: https://en.wikipedia.org/wiki/2014_Donbas_status_referendums)

14. 나아가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소위 "제노사이드 (대량학살)"에 관한 푸틴 정권과 전 세계의 푸틴주의 벗들이 홍보한 신화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돈바스에서 14,000명의 러시아계 사람들을 죽였다. 이 푸틴주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다. 첫째, 14,000이라는 사망자 수치는 피해자들에게는 분명 비극이지만 여기에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제노사이드" 범주를 평범화, 진부화 시키는 것은 실로 최근 몇

십 년 체첸인이나 보스니아인처럼 형언하기 힘들만치 끔찍한 전쟁범죄로 고통 받은 피억압 인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들 1-2백만 수준의 소 민족이 그 중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강간당하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집에서 쫓겨났다. 이른바 "인종청소"다. 더욱이 돈바스의 14,000명 사망자 중 거의 모두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중반까지의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즉 그 때 이후의 몇 년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14,000의 수치가 모든 사망자 수, 즉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사망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14,000명의 대다수는 군인 (우크라이나군 4,400명, 러시아군 및 그 동맹군 6,500명)이었고, 민간인은 3.404명 "뿐"이었다. 여기서도 다시 이 민간인 사망자 수에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모두가 포함되었다. (모든 수치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민간인 사상자, 2022년 1월 27일자). 한 마디로, 돈바스에서의 "반러시아 제노사이드" 주장은 푸틴주의적 날조 프로파간다다!

15. 요약하자면,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맑스주의 민족자결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푸틴의 대러시아 배외주의 정책과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싸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구실로 봉사한다. 그 슬로건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위한 프로파간다 도구다. 오늘, "돈바스 자결" 슬로건은 사실상 "러시아 제국주의의 자결"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완전히 반동적인 슬로건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슬로건을 옹호하고 푸틴의 프로파간다를 앵무새처럼 되뇌는 저들 스탈린주의/볼리바르주의/사이비 트로츠키주의 당들을 규탄한다. 푸틴 정권에 대한 이와 같은 정치적 영합은 이 당들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의 발현이다.

16. 현 상황에서,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투쟁을 지지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일체의 종속에 반대한다. 또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서유럽, 중국, 일본) 간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에서 편을 들거나 그들의 배외주의 대외정책 (제재 같은)을 지지하는 것을 배격한다. 우리는 '독립 · 해방의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내건다. 모든 민족 소수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제창한다. 그 민족 혼합 구성과 함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해결책 (예를 들어, 자치 형태를 포함하여)도 지역 인민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또는 중앙정부들 간의 협상 결과물로 내려꽂히는 것이어선 안 된다.

표: 20세기에 돈바스 지역의 민족 구성

구분	1897년	1926년	1959년	1989년	2001년
우크라이나인	379,000명	1,222,000명	3,784,000명	4,176,000명	-
	55.2% 60%	60%	56.4%	51.1%	58% (루한스크 주)
					56.9% (도네츠크 주)
러시아인	180,000명	639,000명	2,551,000명	3,595,000명	-
	26.2%	31.4%	38%	44%	39% (루한스크 주
					38.2% (도네츠크 주

출처: 1897년-1989년 기간: Andrew Wilson: The Donbas between Ukraine and Russia: The Use of History in Political, i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30, No. 2 (April 1995), p. 275; for 2001: State Statistics Committee of Ukraine: About number and composition population of UKRAINE by data All-Ukrainian population census'2001 data, https://web.archive.org/web/20111217151026/http://2001.ukrcensus.gov.ua/eng/results/general/nationality/

＊＊＊＊＊＊＊＊＊＊＊＊＊＊＊＊＊＊＊＊＊＊＊＊＊＊＊＊＊＊＊＊＊＊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토대 위에서 동·서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하여!>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간 자매 조직 선언, 2022년 6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rcit_12.html/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타도!>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22년 6월 4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rcit.html/.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라며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자칭 사회주의 세력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7월 29일

국제사회주의대안 (ISA)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다시 "제국주의 간 대리전쟁"으로 성격규정 하는 편집위원회 성명을 냈다. 그에 따라 ISA는 2월 24일 개전 이래로 주창하고 있는 정치노선 – 즉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하는 반동적 기권주의 정책 – 을 재확인했다.[1]

1) Five Months After the Invasion of Ukraine. An epoch defininig war and its effects, Editorial statement from issue 8 of Socialist World, ISA theoretical journal, 26 July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7/war-and-its-consequences. 모든 인용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성명에서 인용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 낸 논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SA의 입장을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2] 요약하자면, ISA는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인민 측의 정당한 투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으로 성격규정 한다. 그에 따라 ISA는 침략자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달에도 반대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식 ISA 성명은 이 조직이 지난 5개월 간 걸어온 노선을 완전하게 확인시켜준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이라는 독자적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오직 강대국 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자신의 공격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의제다. 실제로도 그러한데, 미국 및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글로벌 분쟁의 볼모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한 또 다른 ISA 기사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전쟁은 신 냉전 및 제국주의 간 상호 갈등의 일부다. 결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 승리하든 반동적인 제국주의 블록이 강화되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3]

2) 미하엘 프뢰브스팅,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2022년 6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16.html

3) Per Ake Westerlund: Mass Revolts Against Morbid Capitalism. ISA cadre school discusses world events, ISA, 28 July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7/isa-world-cadre-school-2022

이로써 ISA는 새로운 성명에서 러시아를 편 드는 측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측들 모두를 비난한다. "국제적으로 좌파 일부는 푸틴 정권이 보다 약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근거로 그릇되게도 푸틴 정권에 지지를 주며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되뇌고 있다. 그러나 서방에는 훨씬 더 만연한 그릇된 입장이 범 좌파에 존재한다. 나토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조 바이든의 주장에 신임장을 주고 있는 스페인의 포데모스에서 미국의 AOC [민주사회주의자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에까지 이르는 범 좌파들이 그러하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대규모 군사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또 서방의 군비 증강에 대한 지지를 일반적 반제국주의 언사와 결합시키는 극좌파 일부 —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한 — 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실에서 군비 증강은 더 광범위한 서방 제국주의 의제와 분리될 수 없다. 전자를 지지함으로써 후자를 지지하게 된다. 우리 ISA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전면 반대한다."

친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포데모스와 AOC 같은)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반제국주의자들(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일관된 맑스주의자들 같은)을 도매금으로 한 데 묶는 것이 참주선동이라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는 ISA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지지하는 것을 서방 제국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또는 심지어 포데모스처럼 그러한 서방 정부에 입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느 경우든 그러한 동일시는 ISA가 우크라이나 방위 전쟁에 대한 어떤 지지에도 광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4)]

4)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점령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

그에 따라 ISA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 우크라이나는 오래 지속되는 소모전에 직면해 있다. 젤렌스키의 접근방식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돈바스로부터 몰아내기를 바라며 서방에 점점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수준의 사상자와 집, 학교, 병원, 그리고 일터의 막대한 파괴를 대가로 치른 성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나토의 훨씬 더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충돌을 촉발할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 것이며, 이로써 서방 제국주의는 언제든 접근방식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인민으로서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의 속국으로 끝나느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의 일이라는 듯 완전히 냉소적인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인민이 러시아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ISA 지도부도 우크라이나 인민이 (레닌 당시의 소비에트 러시아 시절을 잠시 제외하고) 지난 150년 동안 러시아에 의해 억압받았고 따라서 그러한 점령을 뿌리 깊이 증오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적어도 말로는)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푸틴의 약탈 군대에 의해 거리가 장악된 채 살든 말든 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오만하게 주장하는 ISA 지도부는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인가?! 러시아의 점령이 상관없는 문제인지 부차(Bucha)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논리 곳곳에서 ISA 노선의 핵심 성격이 드러난다. 민족 · 식민지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배외주의적 무지! 미래에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 때문에 ISA는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잃어도 괜찮다! 제국주의 러시아의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침략을, 현재로선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전면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과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은 무슨 태도인가? 내 일 아니므로 알 바 없다는 식의 냉소주의 그 자체다. 어떤 계급 투사가 공격 그 첫 순간에 바리케이드를 포기하고 기권하는가?!

우크라이나 인민이 러시아의 침공 그 첫 날부터 열렬히 나라를 방위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개전 당초부터 엄청난 인원이 지원병을 신청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러시아에 장악되어 있지 않으며, 푸틴의 전격전 계획은 전쟁 첫 몇 주 만에 이미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외국의 개입 없이 일어난 일이다. 대대적인 인민 저항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우크라이나를 민족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푸틴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 그러므로 이제는 러시아의 점령이나 직접적인 나토 개입 이외에 이 전쟁의 다른 가능한 결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무지와 오만

위 인용문은 ISA 접근방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ISA는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느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에 더 종속적으로 되느냐,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전자의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즉시 러시아 제국주의의 피점령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아인슈타인이 필요할까. 후자의 시나리오에서는 비록 나토 제국주의에 간접적으로 종속적일지라도 형식상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다. 언제부터 맑스주의자들이 식민지 지위가 반식민지와 같다고 믿었는가?!

권력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독립 사회주의 나라로 전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 주도의 투쟁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 시작 몇 시간 뒤에 발표한 첫 번째 RCIT 성명에서 우리는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를 내걸었다.[5] 그러나 노동자가 이를 성취할 만큼 (아직) 강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전쟁의 결말에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가 노동자에게는 있다.

그것은 경제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자본가를 몰수 · 수탈하고 이윤 몰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직 이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임금, 고용, 노동기본권 향상 등) 최대한 입지를 강화시킬 이해관계가 노동자에게는 있다.

정치에서도 비슷하다. 노동자 · 피억압자가 당장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최대한 민주적 권리 확대와 민족 억압 철폐를 위해 싸울 이해관계가 노동자 · 피억압자에게는 있다.

5)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 러시아도, 나토도 다 반대, 제국주의 열강 모두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독자 민중투쟁 찬성! 노동자정부 수립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제국주의 제재 반대!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 2022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17.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피점령 식민지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에 종속적이지만 피점령은 아닌 반식민지냐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질 나쁜 형태의 사회배외주의다. 이것은 1950년대 및 60년대에 아프리카 · 아시아 인민들이 영 · 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비록 여전히 종속적 (주로 미 제국주의에)이지만 형식상 독립 국가가 되느냐는 아무 차이도 없다고 주장한 당시 제국주의적 인종주의 논리의 복제품이다.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의 독자 · 독립적인 투쟁을 제창하는 것이다. RCIT가 민중공회와 노동자 민병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우리의 관점은 자본주의 타도와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의 수립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 싸운다. 노동자 민병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군대 속에서 민족방위전쟁에 참전하며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활동수행을 한다. 오늘 당면 임무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식민지화를 막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방향을 나토에 의한 우크라이나 예속 시도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는지 여부에 사회주의자들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혁명적 냉소주의 정책으로, 맑스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6)]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 현 사태는 오는 시기 혁명 전략의 핵심 시험대다>, 2022년 5월 25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80.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다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무장할 권리”를 하사하시다. 그런데....

지난 문서들에서처럼 이번 ISA 성명도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무장할 권리"를 내려준다. "우리 ISA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 물론 군사적으로도 포함하여 –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이 실제로 ISA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긍정적" 슬로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아무 현실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슬로건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공식 군대 또는 국토방위군에서 우세한 적에 맞서 결사적인 방위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병 요구는 올바른 선전 슬로건으로, RCIT는 이미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 슬로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방위전쟁을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하고, (가능한 데서는) 참전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그 슬로건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하다. 달리 말하면, 현재 부르주아 정부와 군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족방위전쟁을 사회주의자들은 지지해야 하는가? RCIT는 그러한 지지를 한 치의 유보 없이 단언한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여러 정당한 해방투쟁에서 지지를 분명히 했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1982년 영국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미국에 대항하여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2003년 이라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항하여 체첸과 시리아를,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가자지구를).

이와는 달리, ISA는 우크라이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식민 점령 문제와 관련한 ISA의 사회배외주의적 무지를 다시 떠올려보면, 우리는 ISA가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한 피억압 인민의 여러 정당한 주요 투쟁들을 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ISA (그리고 그들의 전신 조직인 CWI)는 1982년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고, 양키에 대항하여 탈레반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마스의 방위전쟁을, 아사드와 그의 러시아 상전에 대항하여 시리아 반군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다 거부했다.[7]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지금의 배신은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ISA/CWI의 사회배외주의 전통의 논리적 결과다!

ISA의 사회주의자들은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해방투쟁을 편 들길 완강히 거부하는 것에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반동적 기권주의 정책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는 동지들은 정치적 억류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력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의 28장도 보라.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soft and not so soft Zionism of the ISA, 25.05.2022, https://the-isleague.com/the-soft-and-not-so-soft-zionism-of-the-isa/; Michael Prbsting: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i-and-israel/; 같은 저자의 팜플렛: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다음은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제시했던 우리의 제안 (당시 사회주의동맹 동지들과 RCIT의 공동 제안)이다.[8]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모든 혁명가들은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을 기반으로 힘을 합치자.

1)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인정.

2) 비타협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모든 분쟁·충돌에서 러시아 제국주의 타도!

3)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 체첸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러시아 내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 (독립국가 창설권 포함) 지지! 시리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

4) 동서 어느 강대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다 반대한다! 일체의 제국주의 제재 반대!

5) 전쟁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반대! 계급협조, 계급휴전 반대! 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방어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자!

동지들,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단결 투쟁!

8)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단결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우자!>,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공개서한, 2022년 7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html/.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사태의 맥락 속에서 이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왜곡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8월 17일

<차례>

1. 들어가며
2.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의 역사적 맥락
3. 이 슬로건의 의미
4. 이 슬로건이 의미하지 않는 것: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를 돕는 것
5.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이 슬로건을 적용해선 안 된다
6. 이 슬로건이 의미하지 않는 것: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전술적 지지를 받는 피억압 인민을 지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
7. 이 슬로건이 일국적 편협함의 구실로 오용되어선 안 된다
8. 맺음말

1. 들어가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사태, 이 양대 충돌이 현 세계정세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은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새 국면의 시작, 즉 3차 세계대전의 ‘프리시즌’ 내지 서막을 열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을 비롯한 그 밖의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충돌에서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러시아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한다. 우리가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며, 동시에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양측 모두에 반대하는 이유다.[1)]

대만해협 사태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중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이 경우에 대만 민족 문제, 즉 대만 인민의 민족자결권은 지금까지는 단지 부차적 종속적 지위만을 점하고 있다.[2)]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서유럽 · 일본 등

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2) 대만해협 사태에 대한 RCIT의 입장으로는, 다음을 보라.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다음 글들도 보라.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2021년 10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38.html/; Michael Pr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RCIT Pamphlet,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적용한다. 피억압 인민이 정당한 방위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 (오늘 우크라이나 · 시리아 · 팔레스타인이나, 직전에 이라크 · 아프간 · 체첸처럼)에서 우리는 혁명적 방위주의 입장을 취한다. 즉 피억압 인민의 군사적 투쟁을 편 든다. 그 투쟁의 (부르주아) 지도부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그 투쟁을 편 든다.[3]

많은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이 이러한 접근태도를 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며, 나아가서는 러시아를, 중국을 편 든다.[4] 공공연하게 러시아나 중국을 편들지는 않지만, 중 · 러는 "차악"이라며 오직 서방 열강만을 향해 정치적 포화를 쏟는 조직들도 있다.[5] “사회주의” 운동을 가장하고 제국주의 열강을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 조직들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조직들이다.

3) 맑스주의 강령 혁명적 패전주의 및 방위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특히 12장과 13장을 보라.

4)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든 문서가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다음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본 책자에도 수록).

5) RCIT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문서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다음도 보라.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RCIT는 이 문제들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 사민주의자들, 볼리바르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의 정책을 여러 문서 (성명/논설/팜플렛/책자)를 통해 비판해왔다. 우리는 진정한 맑스주의 강령과 이들 세력에 의한 그것의 왜곡 사이에 놓인 심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여기서는 이 비판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이들 사회제국주의 주창자들 및 협조자들이 자주 끌어대는 한 슬로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들 조직은 잘 알려진 맑스주의 슬로건 "주적은 국내에 있다"를 들어 자신들의 기회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자신의 중앙 · 본부가 서반구에 (통상 서유럽, 북미,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의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 즉 서반구의 –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접근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맑스주의의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원칙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2.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의 역사적 맥락

이 슬로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슬로건 자체와 그것의 역사적 맥락 둘 다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지도자 칼 리프크네히트는 1915년 메이데이 유인물에서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규탄하며 이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을 처음 썼다.

이 슬로건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유인물의 전체 구절을 재현

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국제 제국주의 대량학살에 대항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이 오늘 사회주의 최고 임무다. 모든 인민의 주적은 자국에 있다! 독일 인민의 주적은 독일에 있다. 독일 제국주의, 독일 전쟁정당, 독일 비밀외교가 그것이다. 국내의 이 적에 대해서는 독일 인민이 정치투쟁에서 싸워야 한다. 자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 프롤레타리아트와 협력하면서 싸워야 한다... 제국주의 도박꾼들은 언제까지 인민의 인내심을 남용할 것인가? 살육은 이제 그만! 국내외의 전쟁 선동자들을 타도하라!"[6]

이 문구를 처음 쓴 것은 칼 리프크네히트 – 1919년 1월,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산당을 창건한 직후 순교자가 된 그 리프크네히트 – 였지만, 기본 개념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이미 정립되었다. 1914년 8월 초 개전 직후,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은 선언문을 내고 제국주의 살육에 대한 반대를 선포하며 동시에 계급투쟁 전진과 지배계급 타도를 위해 전쟁의 조건들을 이용할 것을 제창했다. 이 개념이 슬로건으로 처음 표현된 것이 바로 "자국의 패배가 해악이 가장 덜하다" 슬로건과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라" 슬로건이다.

> "각각의 나라에서 혁명적 선전의 결과로 그 나라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 군대의 패배는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 정부가 억압하는 민족들의 해방을 촉진하며,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을 용이하게 한다.
> 이 명제는 러시아와 관련하여 특히 진실이다. 러시아의 승리는 그에 따라 반동의 강화 – 전 세계에서나 러시아 내에서나 모두 – 를 가져올 것이고, 이미 점령된 지역들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완전한 예속을 동반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패배하는 쪽이 모든 조건에서 해악이 가장 작은 길이라고 생각한다."[7]

> "현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는 단 하나의 올바른 프롤레타리아 슬로건이다. 코뮌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고 바젤 결의(1912년)에서 그 윤곽이 제시된 바, 이 슬로건은 고도로 발달한 부르주아 국가들 간에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의 모든 조건들이 지시하는 결론이다. 내란으로의 그러한 전화가 주어진 시점에서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이 사실로 된 이상, 이러한 방향으로의 체계적이고 집요하고 흔들림 없는 준비 작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8]

레닌은 이후 여러 논문, 특히 팜플렛 <사회주의와 전쟁>에서 이 사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팜플렛에 볼셰비키 당 전쟁 강령의 기본 원칙이 총괄 제시되어 있다). "현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승리를 주창하는 자들과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다' 슬로건을 주창하는 자들 모두 똑같이 사회배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혁명적 계급은 반동적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랄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군사적 패배는 반드시 정부의 타도를 용이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정부에 의해 시작된 전쟁은 반드시 정부 간의 전쟁으로 끝나야 한다고 믿고, 또한 그처럼 끝나기를 바라는 부르주아만이,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야 하고 이 바람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엉뚱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야말로 모든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들이 품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일치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과 합치한다."[9]

6) Karl Liebknecht: Der Hauptfeind steht im eigenen Land! (May 1915), in: Karl Liebknecht: Gesammelte Reden und Schriften, Dietz Verlag, Berlin 1974, pp. 229–230; in English: Karl Liebknecht: The Main Enemy Is At Home!, https://www.marxists.org/archive/liebknecht-k/works/1915/05/main-enemy-home.htm

7)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6쪽.

8) 레닌, <전쟁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42쪽

9)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55-6쪽

3. 이 슬로건의 의미

이 개념의 의미는 무엇인가?[10] 첫째, 맥락 –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쟁은 당시 거의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이 시작하고 벌여낸 거대한 살육전이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 헝가리,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1917년 4월 이후로는 미국이 그러한 제국주의 열강들이다.

둘째, 레닌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는 프로이센 군사 이론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정식에 여러 차례 주목했다.[11] 맑스주의 정치의 근본은 부르주아지 및 노동운동 공식 조직 내 부르주아지 시종들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독립이다. 이 원칙은 전쟁 조건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레닌이 말했듯이, "전쟁과 관련하여… 변증법의 근본 명제는 '전쟁은 단지 다른 (즉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사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 중 한 사람인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맑스와 엥겔스의 입장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어떠한 전쟁도 주어진 시기에 관련 강대국들의 – 그리고 이들 나라 내부의 각 계급들의 – 정치의 계속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12]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 평화 시에든, 전쟁 시에든 – '자'국 지배계급의 정치를 지지해선 안 되며, '자'국 지배계급에 대적하는 외국 라이벌에 대한 어떤 형태의 정치 · 경제 · 군사 전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자본가 계급과의 "민족 대단결"이든 "거국일치"든 "인민전선"이든 일체의 계급협조 제도를 지지 또는 참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부르주아지와 공통의 "조국"이 있다는 사상에 지지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내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제시해내야 한다.

지배계급 및 그 개량주의 시종들과는 달리,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가 전쟁 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오히려 평화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시대에도 계급투쟁은 – 경제적 요구 투쟁과 정치투쟁 모두 – 이어져야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한 투쟁이 '자'국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투쟁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어떠한 어려움도 환영하며,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을 부르주아지 타도로까지 밀어가는 데 그러한 어려움을 최대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조국"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완강한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미 평화 시에, 지금 그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자가 지배계급과 공통으로 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배계급 문화와 "가치"도 그렇다. 의회 및 노동운동 내 부패한 부르주아지 시종들과도 공통으로 가지는 것은 없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같은 국적을 가진 부자들이 아니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지역공동체에서 착취 (그리고 초과착취)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다. 우리의 형제자매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 · 피억압자들이며, "우리 나라" 부르주

10) 이에 대한 요약정리로는 다음을 보라. RCIT: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2018년 9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11) Carl von Clausewitz: On War, Vol. 1,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 1908, p. 23

12) 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227쪽. (강조는 원저자).

아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 국의 노동자 · 피억압자들이다. 결정적인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국경을 가로질러, 그리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으로서의 우리의 공통의 본성이다! 요컨대, 노동자 · 피억압자를 반(反)배외주의 정신으로 교육하여 제국주의 "조국"을 향한 애국주의가 발을 못 붙이게 면역력을 갖도록 하고, 제국주의 민족국가와 스스로를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시하는 일체의 민족주의와 단절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필수 임무다! 이것이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유명한 말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의 진정한 의미다.[13]

요약하자면, 혁명적 패전주의 원칙은 2차 세계대전 시작 직전에 트로츠키가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총괄 정리할 수 있다. "패전주의는 전쟁 중에도 국내에서 주적을, 제국주의 '우리'나라 내에서 주적을 식별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정치다. 반면에 애국주의는 자국 밖에서 주적을 찾는 정치다. 패전주의 사상은 현실에서 다음을 의미한다. 자국 부르주아지를 주적으로 하여 화해할 수 없는 혁명적 투쟁을 수행한다. 이 투쟁이 자국 정부의 패배로 결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지받지 않고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한다. 혁명적 운동을 고려할 때, 자국 정부가 패배하는 것이 해악이 덜하다."[14]

4. 이 슬로건이 의미하지 않는 것: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를 돕는 것

"주적은 국내에 있다" 개념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사태의 맥락에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왜곡을 겪었다. 그러한 왜곡들을 다뤄보자.

13) 별도로, 반식민지 피억압국에서는 이 임무가 다른데, 여기서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는 정당할 뿐 아니라 진보적이다.

14) 별도로, 반식민지 피억압국에서는 이 임무가 다른데, 여기서는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는 정당할 뿐 아니라 진보적이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 나라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경쟁하는 상대방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해악이 덜한 "차악"임을 뜻하지 않는다.[15] 실제로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볼셰비키가 적국의 승리를 돕는다며 볼셰비키를 공격한 여러 정파들이 종종 제기하던 중상비방이었다. 즉 볼셰비키가 '자' 국 러시아와 싸우는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의 승리를 바라고 거기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각종 멘셰비키 파벌들은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이 해악이 덜하다"라는 슬로건은 독일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레닌을 비난했다. 한 때 "러시아 맑스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플레하노프는 말년에 제국주의 조국의 추악한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가 되면서, 국제주의 반전 정강(플랫폼)을 "독일 제국주의의 최소강령"이라고 비방했다.[16]

한 때 볼셰비키 두마 의원이었다가 1914년에 플레하노프의 측근으로 변신한 알렉신스키는 국제주의자들을 "독일이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라고 비난했다.[17] 개전 직후, 알렉신스키는 러시아 국제주의자들이 "조국"에 대항하여 독일 총참모부와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18] (나중에, 1917년 2월 혁명 이후 알렉신스키는 레닌을 "독일의 첩자"로 몰며 볼셰비키에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와 "차악" 제국주의 이론>, 2022년 7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7.html/. (본 책자에도 수록).

16) Georgi W. Plechanow: Zwischen Revolution und Demokratie. Artikel und Reden 1917-1918, BasisDruck, Berlin 2016, pp. 188-198. 다음도 보라. Samuel H. Baron: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63, pp. 317-336

17) Gregor Alexinsky: Russia and the Great War, T. Fisher Unwin, London 1915, p. 240

18) Alfred Erich Senn: The Russian Revolution in Switzerland, 1914-1917,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1971, pp. 103-114; 다음도 보라. Ian D. Thatcher: Leon Trotsky and World War One. August 1914-February 1917, Macmillan Press, London 2000, pp. 111-132

대한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알렉신스키의 비방 성명을 게재한 한 반동 신문의 헤드라인이 "레닌, 독일의 첩자"였다.)[19]

당시 여전히 반 볼셰비키 편견과 단절하지 못한 트로츠키도 레닌의 패전주의 강령을 "사회애국주의의 본질인 일국적 제한성에 갇혀 그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20]

이러한 비판자들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트로츠키는 자기 말에 도취되어 단순한 문제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러시아의 패배를 바란다는 것이 그에게는 독일의 승리를 바란다는 의미로 보이는가 보다. (부크보예드와 셈코프스키는 트로츠키와 공유하고 있는 '생각' - 아니, 생각의 짧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 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트로츠키는 이를 '사회애국주의의 방법론'이라고 간주한다! 자신의 머리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베른 결의가 명확히 천명한 명제를 환기해 보자. 모든 제국주의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 부크보예드와 트로츠키는 이 진실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셈코프스키 (부르주아적 지혜를 순진하리만치 솔직하게 그대로 옮기는 덕분에 노동자계급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유용한 기회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버렸다. '이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독일이든 러시아든 둘 중에 하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21]

당시 레닌은 비열한 중상비방들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예 그러한 반동적 헛소리를 자신들의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수많은 스탈린주의자, 민중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있다!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의식적으로 외국 제국주의 열강을 지지함으로써 그러한 반동적 중상비방을 자신들의 강령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레닌의 전략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1917년 볼셰비키 당에 가입한 이후의 트로츠키의 전략과도 아무 유사성이 없다. 레닌과 트로츠키 모두 제국주의 상호 간의 전쟁 동안에 혁명가들은 개개의 모든 나라에서 패전주의 강령 — "주적은 국내에 있다", "패배가 해악이 덜하다", "내란 전화" 등 — 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위에서 인용했듯이, 1915년 봄 볼셰비키 당 재외지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각각의 나라에서 혁명적 선전의 결과로 그 나라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 군대의 패배는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부가 억압하는 민족들의 해방을 촉진하며,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을 용이하게 한다."[22]

트로츠키는 1934년에 발표한 테제 《전쟁과 제4인터내셔널》 중 "'패전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의 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문제가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충돌인 경우, 그 중 어느 나라든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의 군사적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사적인 이익 -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인 이익은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인류의 이익과 일치한다 - 을 희생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패배가 해악이 덜하다'라는 레닌의 정식은 적국의 패배에 비하여 자국의 패배가 해악이 덜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혁명적 운동의 성장으로 인한 결과물로서의 군사적 패배는 '국내평화' [계급휴전]로 확보된 군사적 승리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체 인민에게 수천 배는 더 이롭다는 의미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exander Rabinowitch: The Bolsheviks Come to Power, NLB, London 1979, pp. 15-20

20) 다음에서 인용. Ian D. Thatcher: Trotskii, Lenin and the Bolsheviks, August 1914-February 1917, in: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72, No. 1 (1994), p. 107

21) 레닌, <제국주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에 대하여>,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336-7쪽

22)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116쪽.

다. 칼 리프크네히트는 전쟁 시의 프롤레타리아 정책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정식화했다. '인민의 주적은 자국에 있다.' 승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패전으로 야기된 해악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쟁과 패배를 막을 최종적 보장책도 만들어낼 것이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변증법적 태도는 혁명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따라서 전쟁에 맞선 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는, 전쟁 동안에 프롤레타리아 당의 모든 사업이 거기에 종속되어야 하는 총괄적인 전략적 임무다."[23]

요약하자면, 맑스주의 개념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를 돕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개념은 제국주의 상호간 충돌에서 관련 모든 개개의 강대국들에게 적용되는 국제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를테면 서방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이름으로 나토에 대항하여 러시아를 – 직접적으든, 간접적으로든 – 지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진영에 대해서만 정치적 포화를 쏟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서방의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의 대(對) 나토 조치 (에너지 수출 중단 같은)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것 역시도 오류다.

5.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이 슬로건을 적용해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으로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은 사회주의자들이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두 반동 진영 간의 충돌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자와 피억압 인민

23) Leon Trotsky: War and the Fourth International (June 10, 1934),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3-34, p. 320

(반식민지 나라) 간의 충돌에서는 이 슬로건이 끼일 자리가 없다.

이와 같이 "주적은 국내에 있다" 는 원칙은 제국주의 열강에게만 적용되고 비제국주의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원칙은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 반식민지 – 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억압국과 피억압국 간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피억압국을 편 들어야 한다.

이러한 충돌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은 관련 제국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은 '자' 국 부르주아지를 지지하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억압 인민의 승리를 내걸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고 사보타지 하는 한편, 모든 수단을 통해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피억압 인민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다른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군사 원조든 그것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한다.

이미 레닌은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제출한 글들에서 제국주의 상호 간의 충돌과 제국주의 열강 對 (반)식민지 간의 전쟁을 이와 같이 구별할 것을 강조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반식민지가 민족전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식민지와 반식민지(중국, 터키, 페르시아)는 인구가 거의 십억 가까이 된다. 즉, 지구 인구의 반이 넘는다. 이들 나라에서 민족해방 운동은 이미 매우 강력하거나, 성장해서 성숙해 가고 있다. 모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식민지의 민족해방 정치는 불가피하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식민지의 민족전쟁으로 계속될 것이다."[24]

24) 레닌, <유니우스 팜플렛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이 원칙은 그 뒤에 스탈린주의 관료에 대항하여 트로츠키/좌익반대파가 옹호하고 지켜나갔다. "'조국 방어' 슬로건은 모든 부르주아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짓 위장막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민족혁명전쟁을 밀어가고 있는 식민지 · 반식민지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25]

나중에 소련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박해 받고 절멸 당한 이후, 제4인터내셔널이 이러한 원칙과 강령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전쟁과의 투쟁은, 제대로 이해되고 실행될 경우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조직들의,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향한 비타협적인 적대를 - 언제, 어디에서나 - 전제로 한다... 전쟁과의 투쟁 및 전쟁의 사회적 근원인 자본주의와의 투쟁은 피억압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지지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들의 투쟁과 전쟁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분명한 지지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중립' 입장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26]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독립 민족국가를 위한 투쟁과 그에 따른 '조국방어'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그것과 원칙에서 다르다. 전 세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중국 또는 인도의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준다. 이 투쟁은 '후진국 인민을 아시아주의, 지방적 편견, 외국의 속박으로부터 떼어냄으로써... 제국주의 국가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27]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9쪽

25) The Platform of the Opposition (1927), in: Leon Trotsky: The Challenge of the Left Opposition (1926-27), pp. 367-368

26)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99

27) Manifesto of the Fourth International on Imperialist War.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pp. 330-331;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제국주의는 우리 지구상에 후진국,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은, 한편으로는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진보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문명화된 제국주의 민주공화제와 식민지 나라의 후진적인 야만적 군주제 간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그 군주제에도 불구하고 피억압국의 편에 설 것이며,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억압국에 맞설 것이다."[28]

요약하자면,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반식민지 나라의 투쟁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 슬로건은 제국주의 열강에만 적용된다.

6. 이 슬로건이 의미하지 않는 것: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전술적 지지를 받는 피억압 인민을 지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편 드는 것에 반대하는 서방의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구실로 대는 것이 나토 제국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단지 부차적 종속적인 역할만을 갖는 민족 투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의 세르비아, 1999년 나토 침공 이후의 코소보).

그러나 제국주의 간 상호충돌과 섞였지만 거기에 종속적 부차

28) Leon Trotsky: Stalin - An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1940), Chapter VI: War and Exile,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40/xx/stalin/ch06.htm

적으로 되지는 않은 정당한 민족해방투쟁도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민족 투쟁의 예로는 1차 세계대전 동안의 여러 투쟁 (예를 들어 1916년 독일의 지지를 받은 아일랜드 부활절 봉기)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다양한 민족해방전쟁이 있다. 이 민족해방전쟁의 예로는, 1935-36년 에티오피아의 대(對)이탈리아 전쟁 (여기서 국제연맹이 이탈리아에 제재를 가하고, 나치 독일을 포함한 몇몇 국가가 에티오피아에 군사 원조를 보낸 전쟁)[29], 1937-45년 중국의 항일 전쟁 (미국의 지지를 받은 전쟁)[30],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와 발칸반도에서 파르티잔의 독일 점령군과의 전쟁 (서방 열강의 원조를 받은 전쟁), 아랍 인민들과 인도 인민의 대영(對英) 항쟁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항쟁) 등이 있다.

거듭 지적해왔다시피, 스탈린주의자들, 사민주의자들,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경향의 '좌' 익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다. 이들이 그러한 지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늘 내세우는 구실이, 그러한 민족해방투쟁이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해 지지 · 지원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 이래 맑스주의 고전 스승들은 진보적 해방투쟁에 대한 그러한 반동적 배신을 배격했다. 고전 스승들은 사회주의자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영향력에 반대하는 한편, 그러한 해방투쟁 자체를 지지하는 것을 자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레닌은 제국주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피억압자의 해방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접근태도를 잘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 "현 전쟁에서 교전국 총참모부들은 적 진영의 어떠한 민족혁명적 운동이라도 이용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이용하고 프랑스인들은 체코의 운동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가장 사소한 약점까지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굴러 들어오는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이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말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힘으로 화약고가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가 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불러오는 단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모든 인민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혁명가일 것이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수천 가지 어조로 모든 민족 억압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되풀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억압 민족의 어떤 계급의 가장 기동성 있고 계몽된 부분이 그 억압자들에 대항하여 일어선 영웅적인 반란을 '폭동'이라고 묘사한다면, 우리는 카우츠키주의자들과 같은 수준의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릴 것이다."[31]

이후 레닌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전쟁들이 섞일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회의 탄생에 폭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이 폭력이 세계사의 한 시기를 구성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 국내전, 그 둘의 혼합,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에 의

29) Michael Probsting: Ukraine War: Revolutionary Defensism and Non-Revolutionary Defens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which falsely combines its defence of the Ukraine with support for Western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Russia, 15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revolutionary-defensism-and-non-revolutionary-defensism/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본 책자에도 수록).

31)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99-100쪽.

해 억압 받는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 전쟁 (거대한 국가자본주의 군사 트러스와 신디케이트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동맹에 들어갈 제국주의 열강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억압 받는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민족 전쟁) 등 다종다양한 전쟁들의 한 시대 전체를 구성할 것이다."[32]

트로츠키의 제4인터내셔널이 전쟁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 강령의 방어를 이어갔다. 제4인터내셔널은 반동적 전쟁에 반대했지만, 1930년대 중국 인민이나 에티오피아 인민의 해방투쟁, 또는 공화주의 스페인의 해방투쟁 같은 피억압자의 해방투쟁을 지지했다.

"한 측에서만 제국주의 전쟁이고, 다른 측에서는 비제국주의 민족의 해방전쟁이거나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나라의 전쟁인 경우에는, 그리고 계급 간 또는 민주주의 대 파시즘 간의 국내전에서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는 양측에 동일한 전술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 이 해방전쟁의 진보적 성격을 인식하여 주적, 즉 반동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또는 내전의 경우 반동 진영에 대항하여) 단호히 싸워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억압당할 위기에 처한 에티오피아나 중국 같은 식민지 · 반식민지 나라들, 공화주의 스페인, 소련 등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33]

반동적 전쟁과 진보적 전쟁 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구별에 입각하여 맑스주의자들은 두 전쟁 각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창한다. 우리는 반동적 전쟁의 확전에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전쟁에서는 무기 전달에 반대한다. 그러나 해방 전쟁에서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그러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무기

32) V. I. Lenin: Report on the Review of the Programme and on Changing the Name of the Party, March 8 (1918), in: LCW Vol. 27, p.130

33) Rudolf Klement: Principles and Tactics in War, The New International, May 1938, Theoretical Journal of the Socialist Workers Party (US-Sec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klement-war/

전달을 지지한다! 트로츠키는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우리는 이탈리아의 패배/에티오피아의 승리에 찬성하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탈리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방해하고, 동시에 에티오피아에 무기 등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34]

비슷한 경우로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중국의 방위전쟁을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제4인터내셔널은 1938년 9월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중국의 항일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혁명적 전위의 당연한 의무다... 상술한 방침에 따라 모든 나라의 노동자와 특히 혁명적 전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국의 항일투쟁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35]

제4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저항이 장제스의 반동 국민당에 의해 주도되었고 미 · 영 제국주의에 강하게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일 투쟁을 지지했다. "국민당은 피억압 대중을 억제하고 일본 침략자들 앞에서 한발 한발 후퇴하면서 한편으론, 영 미 제국주의가 중국 내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당할까 우려 속에서 일본의 진군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들 열강에 더 밀착했다."

또 제4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불과 몇 년 후에 현실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에서 그들의 약탈적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제국주의 간 상호적대를 격화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세계대전의 벼랑 끝으

34) Leon Trotsky: The Italo-Ethiopian Conflict (1935),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5-36),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41

35) Fourth International: The War in the Far East and the Revolutionary Perspectives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fi-1stcongress/ch08.htm.

로 몰아넣고 있다."

나아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이 임무를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맡긴다면 중국은 결국 그들의 식민지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은 극동에서 자신들의 강도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일본에 맞서 개입할 것이다. 만약 일본 제국주의가 혁명적 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제국주의들에 의해 중국에서 패배한다면, 이것은 영미 자본에 의한 중국의 노예화를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민족해방, 그리고 모든 착취로부터 중국 대중의 해방은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 및 피억압 인민들과의 동맹 속에서 중국 대중 자신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모든 곤란과 위험은 제4인터내셔널이 중국 인민의 민족해방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제4인터내셔널은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하여,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면서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반대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는 '자'국 [이를테면 서방 나라]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피억압 인민 [이를 테면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해 군사 원조를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을 희화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티오피아를 위한 독일 무기에, 중국을 위한 미국 무기에,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파르티잔들을 위한 서방 원조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반제국주의"는 맑스주의의 희화로서, 변주된 사회제국주의다!

트로츠키는 그런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과의 투쟁 및 전쟁의 사회적 근원인 자본주의와의 투쟁은 피억압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지지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들의 투쟁과 전쟁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분명한 지지를 전제로 한다. '중립' 입장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런던사무국 대회 지지 선언자들 가운데는 약탈자 이탈리아 파시즘에 대항하는 용기 있는 에티오피아 전사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중립' 논리로 지지하는 독립노동당원들도 있으며, 아랍 농민들의 정당한 – 비록 혼란되어 있긴 하지만 정당한 – 투쟁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공격에 이 순간까지도 기대고 있는 좌파 시온주의자들도 있다."[36]

7. 이 슬로건이 사회제국주의적인 일국적 편협함의 구실로 오용되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의 또 다른 왜곡을 지적해야 하겠다. 일국적 편협함이다. 각종 스탈린주의자들, 민중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이 '자'국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국 외의 나머지 세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접근태도가 그것이다! 서방 외의 타 열강들 (말하자면 러시아와 중국)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인가? 민족해방투쟁이 또 다른 나라에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분쟁 지역에 (말하자면 대만에) 복잡한 민족 문제가 존재하는가? 등등. 이 모든 것이 많은 서방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별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나라 지배계급에 반대하고, 우리나라 외의 나머지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 복잡하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한 접근태도는 맑스주의의 국제주의 원칙에 정면 대립한다. 실제로는, 나머지 세계에 대한 평가분석 없이는 '우리나라'

36) Leon Trotsky: Resolution on the Antiwar Congress of the London Bureau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99

부르주아지와 싸울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세계정치/국제 계급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평가분석 없이는 ‘우리나라’ 부르주아지의 어느 적이 지지해야 할 적이고, 어느 적이 지지하지 말아야 할 적인지 알 수 없다. 그러한 평가분석 없이는 국제 계급투쟁에 결합하는 것도, 국제 연대와 국제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도,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런 일국적 정치 편협성의 진짜 이유는 지적 '나태'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한 세력이 세계정치와 국제 계급투쟁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나가길 거부한다면, 이 경우 사회제국주의 세력과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쉬워질 것이다! 요컨대, 세계정치와 국제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일국적 편협함은 사회제국주의를 도울 수밖에 없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국' 맑스주의 정치는 '일국' 사회주의 사회 건설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일국적 문제에 국한된 정치 노선을 발전시키려는어떤 집단도 불가피하게 종파주의적 퇴보 타락에 처하게 된다."[37] 오늘 전 지구적인 분쟁과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세계에서 이 말은 특히 정곡을 찌른다!

8. 맺음말

1)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파멸적 충돌인 1차 세계대전의 맥락 속에서 생겨났다. 이 슬로건은 식민지와 세력권, 노획물 분배를 둘러싼 쟁탈전 속에서 군사적 충돌에 들어간 제국주의 정부들을 명시적으로 겨눈 슬로건이다.

2) 맑스 이래 맑스주의 스승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바 그 슬로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국주의 나라의 노동자계급은 모든 조건하에서 언제나 지배계급과는 정치적으로 독자 · 독립적이어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공력을 들이는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 외교적 · 이데올로기적 사업들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그것들은 모두 강대국 정책의 일부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형태의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거국일치”에 반대해야 하며, 이러한 반대가 ‘자’국 제국주의 국가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는 것 없이 자신의 이해를 위한 투쟁을 밀어가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배외주의와 제국주의적 애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는 ‘자’민족 부르주아지와 아무것도 공통으로 가지는 것이 없지만, 이주자 및 다른 나라의 노동자 · 피억압자와 모든 것을 공통으로 가진다.

3)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은 '우리'나라 부르주아지의 경쟁자 (상대방 부르주아지)가 “차악”임을, 또는 계급투쟁의 동맹군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1914–18년 제국주의 전쟁의 사회애국주의적 지지자들이 레닌과 볼셰비키를 비방하는 데 사용한 희화다.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 – ‘자’국 이든 외국이든 – 에 지지를 주길 단호히 거부했다. 오늘, 서방 나라들의 많은 스탈린주의자들, 민중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은 이 사회애국주의적 희화를 받들고서 자신들이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러 · 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또는 서방에 비해 러 · 중이 “차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그 슬로건을 고수하고 있다고

37) Leon Trotsky: Unifying the Left Opposition (1930); in: Writings 1930, p. 99,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0/02/unity.htm

자처한다. 실제로는, 그러한 희화는 이 슬로건의 반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왜곡에 불과하다.

4)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에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을 적용해선 안 된다. 이 슬로건은 반동적 전쟁에만 해당된다. 즉 사회주의자들이 비타협적으로 양측 모두에 반대하고 양측의 패배를 내거는 경우의 전쟁에만 해당된다. 한쪽 진영이 진보적 해방투쟁 (민족해방전쟁, 노동자들의 내란/국내전, 노동자국가의 혁명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의의 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한 전쟁에서 주적은 (자국의 지도부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자, 반동 침략자다.

5) 따라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반식민지 나라를, 맑스주의자가 '자'국 부르주아지가 이 나라를 지지한다는 구실로 지지하길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상 제국주의 침략자를 돕는 것일 뿐인,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의 또 다른 희화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강대국들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움 (피억압 인민의 저항 같은)을 이용하려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이 피억압 인민의 저항을 이용하려 한다는 그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반식민지 나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할 권리가 있다? 얼토당토않는 얘기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그러한 강조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전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투쟁 (사회주의자들이 '자'국 부르주아지의 접근태도와 상관없이 지지해야 하는)과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쟁투 (사회주의자들이 어느 쪽 강대국도 지지해선 안 되는)를 구별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이 일국적 편협함의 구실로 악용돼선 안 된다. 이 원칙을,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국내 계급투쟁의 문제들로 자신들을 한정하고 전 지구적 분쟁과 국제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관해서는 '잊기' 위한 – 또는 신경 쓰지 않기 위한 – 구실로 이용한다. 그러한 "게으름"은 그들이 이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그들 기회주의자들이 사회제국주의 세력과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쉽게 해준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일국적 편협함은 사회제국주의를 도울 수밖에 없다!

7)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투쟁은 모든 형태의 사회배외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그 투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창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세계당은 이러한 체계적인 투쟁을 수행할 수 있고 노동자계급을 세계사회주의혁명 – 제국주의 전쟁과 착취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단 하나의 길 – 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이다!

러시아와 "차악" 제국주의 이론

–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결론은 거부하는 스탈린주의 조직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7월 28일

<차례>

1. 들어가며
2. "차악" 제국주의 이론의 원조: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3. 레닌의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對 스탈린의 계급협조주의 "차악"론
4. 혁명적 패전주의 對 "덜 악랄한" 제국주의 진영에 줄서기
5. 그리스공산당과 그 맹우들: 은밀한 "차악"론
6. IMT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덜 반동적인 제국주의"론
7. 맺음말

1. 들어가며

우리는 러시아가 1990년대 자본주의 복고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나서 금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고 여러 해 동안 주장해 왔다.[1] 그 때 이래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오히려 추상적–이론적 문제로 취급했다. 실제로 그 주제는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로 바뀌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가 실제로 일급의 현실 중요성을 갖는 이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對

보통,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는 유파들은 스탈린주의 당들 아니면 중남미 볼리바르주의 당들로서, 그들에게 이 주제는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를 지지하는 구실이 된다.[2] 최근 중남미에서 잘 알려진 진보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카츠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준(準)주변부 나라"이자, "태동 중에 있는 비(非)패권 제국"이라는 이론을 개발해냈다.[3]

1)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이 문서들이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다음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본 책자에도 수록).

2) 다음 팜플렛들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본 책자에도 수록);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같은 저자,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2021년 3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5.html/.

3) Claudio Katz: Is Russia an imperialist power? Part I,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 Part II,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2/; Part III: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3/; Part IV,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benevolent/.

여기서 우리는 이 수정주의 이론을 다시 다루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와는 다른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차악" 제국주의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론인데, 하지만 실천적 결론에서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부인하는 유파들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한 "차악" 제국주의 이론의 주창자들은 러시아 (또는 중국)를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라이벌 서방/나토보다 덜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그 결과, 이 "차악" 이론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러시아 제국주의 규정으로부터 정치적 · 전술적 결론을 끌어내길 거부한다. 즉 혁명적 패전주의 정책을 거부한다.[4]

2. "차악" 제국주의 이론의 원조: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빅토르 튤킨이 이끄는 러시아의 "공산주의노동자당" (RKRP-RPK, 이하 공노당)은 서방 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서방에 비해 덜 악랄한 제국주의로 간주한다. 공정하게 말해서 이 당이 "차악" 제국주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노당은 적어도 최근까지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 (KPRF)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탈린주의 당이다.[5]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연방의회에서 제1야당이지만, 푸틴 정권의 시녀로 봉사한다.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앞장서서 창도하며 러시아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근위대 역할을 한다.[6]

그에 비해 공노당은 주가노프 식의 그런 부끄러운 적-갈 동맹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사회주의에는 거리를 둔다. 공노당은 푸틴 정권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공노당에게는 이것이 확실히 더 쉬운데, 러시아연방공산당과는 달리 공노당은 국가기구에서 어떠한 자리도 잃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책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노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7]

> "푸틴의 대외정책은 러시아 자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아직 젊다. 그럼에도 러시아 제국주의는 잘 안착해 있고 식욕도 좋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세계무대에서 미국과 EU 같은 훨씬 크고 경험이 많은 적수들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제국주의 나라로서 러시아와 중국은 모종의 연합을 (브릭스를 포함하여) 형성하고 있다."[8]

이 논문은 여러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스페인어 원문은 Katz의 다음 웹사이트 상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katz.lahaine.org). 우리는 조만간 이 논문에 대한 답변을 낼 것이다.

4) 다음을 보라. RCIT,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2018년 9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5) 지난 시기에 공노당이 몇 차례 분열을 겪어서 지금도 두 번 째로 큰 스탈린주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6) 러시아연방공산당에 대한 우리의 비판으로는, 위의 주2)에서 언급한 두 팜플렛 외에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 · 주가노프 식의 "사회주의" - 대통령에게 바치는 애국 스탈린주의 당 지도자의 어용 어릿광대 퍼포먼스, 2022년 7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_17.html/; 같은 저자, <카자흐스탄 민중봉기와 푸틴의 애국적 "공산주의자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36.html/.

7) 다음 책의 8장과 16장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8) Viktor Tyulkin: Some words on the Russian imperialism, 09.10.2017, https://rkrp-rpk.ru/2017/10/09/%D0%BD%D0%B5%D1%81%D0%BA%D0%BE%D0%BB%D1%8C%D0%BA%D0%BE-%D1%81%D0%BB%D0%BE%D0%B2-%D0%BE-%D1%80%D0%BE%D1%81%D1%81%D0%B8%D0%B9%D1%81%D0%BA%D0%BE%D0%BC-%D0%B8%D0%BC%D0%BF%D0%B5%D1%80%D0%B8%D0%B0%D0%BB/ (영역은 필자)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도움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제국주의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며, 블라소브 [나치 독일에 부역한 소련 장성] 파는 반데라 파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처음부터 설명했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다."[9]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공노당 지도부는 "키예프 나치에 의한 파쇼적 침략에 맞서 돈바스 인민공화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침공 지지를 내걸었다. 개전 직후 낸 공식 성명에서 공노당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시 한 번, 돈바스 공화국들을 승인한 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늦었고, 그것도 매우 매우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점을 밝혀둔다. 우리 공산주의노동자당은 이들 공화국의 선포 그 시작 시점부터 이 조치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연방의 부르주아 당국에게 이 조치를 받아들여 키예프 나치에 의한 파쇼적 침략에 맞서 돈바스 인민공화국들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당국과 푸틴이 취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군사개입 목표는 나치의 보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다는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선언되고 있다. 실제로는, 갈등의 근원은 미국　EU와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상호 모순으로,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끌려 들어간 것이다. 세계 최강 미 제국주의의 목표는 경쟁자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유럽 시장 공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EU의 지배권력은 물론 러시아의 지배권력도 돈바스의 근로인민이나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로인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 국가의 진정한 목표가 전적으로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을, 세계시장 경쟁에서 제국주의 러시아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러시아의 투쟁은 돈바스 인민이 반데라 파시즘을 격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므로, 이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의 투쟁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과 싸우는 것인 한 그 투쟁을 부정하지 않고 허용, 지지한다. 그리고 파시즘과의 싸움을 엄폐물로 하여 러시아 제국주의 및 그 동맹들의 확대 강화가 이루어질 때는 자국 정부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러시아의 무력 개입이 징벌자들의 보복으로부터 돈바스 인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우리는 이 목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상황 상 파시스트 키예프 정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이 근로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러시아의 무력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10]

우리는 공노당 유형의 스탈린주의자들이 주가노프 식의 비속한 "루스키 미르" 배외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보다 "맑스주의적"으로 들리는 정책을 추구하고 푸틴 정권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하며, 나아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

9) RKRP: Перспектива для Донбасса – Заявлен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х и рабочих партий Донбасса,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19.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RCWP—00001/ (영역은 필자)

10) RKRP: Нет фашизму, нет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войне! О вооружённой фазе конфликта между РФ и Украиной, Заявление Политсовета ЦК РКРП-КПСС, 25.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Russian-CWP—00003/ (영역은 필자). 당 지도부는 푸틴 전쟁의 반동적 성격을 인정하는 반대파와 다음과 같은 논쟁을 했다. "그들은 주변에 제국주의자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바토프 동지는 이전 돈바스 사태에 대해 이미 제출된 평가와 당의 입장을 곧바로 잊은 것 같다.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모순을 (부르주아 러시아의 도움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한편, 반복해서 말하지만, 당은 DPR(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LPR(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승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세력과도 동맹을 맺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물론 이는 러시아의 돈바스 지원 군사 작전이 정말 완전히 공격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Комментарий первого секретаря ЦК РОТ ФРОНТа тов. Тюлькина, 5.3.2022, https://aloban75.livejournal.com/6049225.html [영역은 필자]). 한 달 뒤 공노당은 만족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연방에 중요한 순간이 왔다. 이 군사 작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돈바스 영토의 해방이 거의 완수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상당히 진압됐다. 푸틴과 정부는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떠오를지 고민해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할 시간이다. 이제까지 조성되어온 조건하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크림 반도 및 돈바스의 승인과, 그 다음으로 탈군사화에 있다." (스테판 맬렌초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 March 21, 2022, http://www.idcommunism.com/2022/03/stepan-malentsov-on-ukraine-war-the-solution-of-the-problem.html#more)

격까지도 인정한다. 이것은, 말 나온 김에 지적하자면 많은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지금에까지 도달치 못한 통찰이다![11] 그러나 이들 공노당 형의 스탈린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우크라이나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올바른 인식을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정책과 결합한다.

3. 레닌의 국제주의·반제국주의 對 스탈린의 계급협조주의 "차악"론

물론, 한 제국주의 열강을 적으로 하여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반식민지 나라를 적으로 하여) 다른 제국주의 열강을 지지하는 그러한 계급 협조주의 정책은 철저히 반동적이며 레닌/볼

1 1) 그러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예로는 아르헨티나 PO("노동자당")와 그 가맹 조직들 (DIP, EEK, etc.)과 PTS/FT, 앨런 우즈의 IMT, 피터 타페의 CWI, 소위 스파르타시즘 페밀리 소속의 여러 스탈린 애호 그룹들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Closet Putinistas. On the Ukraine War and the inter-imperialist rivalry: a reply to a polemic of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7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closet-putinistas-reply-to-po-argentina/; 같은 저자: Ukraine War: Stalino-"Trotskyist" Chamber of Horrors. On a recently held "anti-war" conference organised by some "Trotskyists" as well as Russian Stalinist parties, 29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o-trotskyist-chamber-of-horrors/; Ukraine War: The Outcome of the Stalino-"Trotskyist" Conference. On the official conference declaration in support of Russian imperialism and on some "Trotskyists" participants (IMT, OKDE Spartakos), 13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outcome-of-stalino-trotskyist-conference/;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2022년 3월 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1.html; NATO-Russia Conflict: The Anglo-Saxon 'Marxist' Tendency. On the IMT's confusion about the role of Russian imperialism, 31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anglo-saxon-marxist-tendency/

세비키의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 충돌에서 한 열강을 "민족적 권리"나 "민주주의"를 구실로 (또는 해당 열강이 더 작다는 이유로) '전술적' 지지를 주는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 "어느 쪽이 먼저 군사 공격을 가했는가, 혹은 어느 쪽이 최초 선전포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자의 전술 결정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 조국방어, 적의 침략에 대한 반격, 방어전 따위와 같은 쌍방의 문구들은 인민을 기만하는 말에 불과하다."[12]

> "1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에 대항하여 보다 '정당한' 노예 재분배를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방어'를 위한 전쟁이란 용어를 이러한 경우에 갖다 붙인다면 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류이며, 현실에서 그것은 교활한 노예주가 평범한 사람들과 속인들,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순전한 사기극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오늘날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현 전쟁, 즉 노예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노예주들 간의 이 전쟁에서 '민족' 이데올로기와 '조국방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인민을 기만하고 있다."[13]

> "부르주아적 정의와 민족적 자유 (또는 민족의 생존권)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식민지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의 적들은 독일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독일의 동맹국 오스트리아에게 억압받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그야말로 '민족들의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차르 치하 러시아의 슬라브인들보다 의심할 바 없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은 민족들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들의 억압

1 2)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1쪽

1 3)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32쪽

을 위해 싸우고 있다. 보다 젊고 보다 강한 강도 (독일)가 늙고 너무 처먹어서 비만한 강도를 강탈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할 일은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강도 모두를 타도하기 위해 이들 간의 싸움을 이용해야 한다."[14]

이러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정치는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에 지지를 주는 (또는 반대하길 거부하는) 개량주의 당들의 정치와는 정반대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 · 프랑스 · 미국의 사민주의자들은 독일 · 오스트리아 · 터키의 "반동 군주제"를 적으로 하여 자국 부르주아지를 편 들었다. 독일 사민주의자들은 같은 민족-개량주의 논리를 사용하여, "타타르 러시아인들"에 맞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부터 스탈린주의는 이 정치적 방법에 맛을 들인 나머지, 제국주의 한 진영을 적으로 하여 제국주의 다른 한 진영과의 동맹을 제창했다.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스탈린주의는 "반동", "파쇼"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 "민주", "반파쇼" 제국주의 국가들을 편 들 것을 제창했다. 모스크바의 대외정책 이해관계가 바뀌자 위선적인 양두구육 이데올로기 전체가 물구나무섰다. 1939년-1941년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 동안 스탈린주의자들의 포화는 "금권정치" 서방 제국주의에 과녁이 맞추어진 반면, "평화 애호" 나치 독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 실제로 모스크바는 다수의 독일 ·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들을 게슈타포에게 넘겨주었다.

(그 중에는 오스트리아 공산당의 창건자 프란츠 코리초너와 독일 공산당의 마르가레테 부버-노이만도 있었다). 또 프랑스, 덴마크 등의 스탈린주의 당들은 독일 점령군에게 접근하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시기에 스탈린주의는 영국 · 프랑스를 "민주", "반파쇼" 국가에서 다시 아시아 · 아프리카 인민들을 억압하는 "잔인한 식민 지배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1941년 6월 나치가 (스탈린과 몰로토프를 경악시키며) 소련을 침공하자 다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영국 · 프랑스는 더 이상 억압적인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민주 반파쇼 동맹군으로 간주됐다. 정치적 위선과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무원칙한 책략은 확실히 스탈린주의의 전매특허였다!

4. 혁명적 패전주의 對 "덜 악랄한" 제국주의 진영에 줄서기

오늘, 공노당은 같은 방법을 현 조건에 적용한다. 그들은 러시아 제국주의 - "우연히" 이들 "맑스-레닌주의자들"의 모국인 러시아 제국주의 - 가 "더 큰 악"에 대항하는 "차악"이라고 선언한다. 이는 사실상 그들이 서방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우크라이나 (편리하게 "파시스트"로 비방 받고 있는)까지도 적으로 하여 제국주의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동적인 허튼소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 파시즘"이 지지의 기준이라면 공노당은 미국 · 서유럽을 편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들이 푸틴 러시아보다는 확실히 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므로! 물론, 우크라이나에 극우익들이 한 떼거리 있다. 그러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아니, 러시아에서 오히려 그러한 극우 세력들이 더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 "푸틴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파시스트 대부 알렉산드르 두긴과 그의 "유라시아주의" 운동을 보라. 악명 높은 전직 FSB(연방보안국) 장교로서 준군사 운동 지도자 이고르 기르킨 (스트렐코프)도 보라. 또 대러시아 군주제주의자 올리

14)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35-6쪽

가르히로서 푸틴의 측근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소유의 극우 언론 차르그라드TV도 있다.

그러나 이들 우익 세력들에 대해 공노당 지도부가 맑스주의 이론을 과학적 지침으로 삼아 평가, 규정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공상이다. 오히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은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 즉 과학과 이성적 사고는 교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 원칙을 선포한 중세 가톨릭교회의 악명 높은 방법을 따르고 있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분석을, 전쟁 전에 어느 측이 더 팽창적이었는지, 어느 측이 더 강한지, 군사 기반이 더 많은지 등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들로, 주 쟁점은 따로 있다. 해당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그 전쟁 목표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맑스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기준이다.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이 "더 공격적"인가, 어느 측이 "더 민주"인가에 관계없이 양 진영 어느 진영도 지지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충돌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주의자들은 후자를 방어한다. 이러한 방침들이 레닌과 트로츠키가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결론들이다.[15]

그런데 공노당의 입장은 적어도 한 가지 이점은 포함하고 있다. "차악" 제국주의론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스탈린주의자들과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는 같은 칭찬을 할 수가 없다.

15)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5. 그리스공산당과 그 맹우들: 은밀한 "차악"론

그리스공산당(KKE)은 선거에서 항상적으로 5~8% 득표를 하는 상당 규모의 당이다. KKE는 또 국제 스탈린주의 계에서 핵심 세력으로서, 소위 "공산당 · 노동당 국제회의"의 발기인이이자 주도 당이다. 이 "공산당 · 노동당 국제회의"는 1998년부터 연례 회의를 여는 느슨한 연합체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당들은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일종의 대변지도 내고 실무 운영진도 구성하고 있다. 이들 구조가 매우 연방주의적이고 느슨한 기반 위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중요한 세계정치 사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의한다.

KKE는 계급투쟁에서 전투적 역할을 하는 (다른 좌파세력들을 향한 거친 종파주의와 결합된)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웃 국가들(튀르키예, 마케도니아 같은)에 대한 그리스 배외주의를 고취하는 데 앞장서는, 또는 2011년 이래 시리아 민중의 봉기를 아사드 독재가 진압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는 등, 반동적 입장을 취해왔다.[16]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같은 저자, <아사드의 스탈린주의 치어리더들 – 국제 스탈린주의 당들의 공동성명에 대한 논평>, 2019년 7월 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7.html/; Stalinist Chauvinism: The Example of the Greek KKE. Is "Defending the Sovereign Rights of Greece" against Turkey and Macedonia Legitimate? Marxist Internationalism versus Bourgeois Social-Chauvinism, 12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greek-kke-and-stalinist-chauvinism/.

그러나 우리가 몇 차례 언급했듯이, KKE는 최근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보다 진보적인 입장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강하게 비난했다.[17]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나아가 몇 달 전부터는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성격규정 하고 있다.[18] 놀랍게도, KKE는 상기한 러시아 공노당이 "제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고 하여 공노당을 공격하기까지 했다.[19]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KKE 자신은 다른 버전, 보다 은폐된 버전의 "차악" 제국주의론을 추구한다. 나토와 러시아 모두를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푸틴의 침략을 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과 반대 활동 대부분을 나토 쪽에 쏟는다. 설상가상으로, KKE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을 펼치기까지 한다. 즉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식민지화 시도에 맞선 반격 능력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카자흐스탄 봉기에 대한 스탈린주의: 부부싸움인가, 심각한 분열인가? – 카자흐스탄의 혁명적 사태와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각종 공산당들 간의 깊은 분열을 불러일으키다>, 2022년 1월 1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72.html/

18)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A Progressive Step Towards Anti-Imperialism. Some Stalinist parties refuse to support Russian or EU imperialism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7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ke-and-nato-russia-conflict/

19) KKE: On the stance of the RCWP on the imperialist war in Ukraine, articl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ection of the CC of the KKE, in: "Rizospastis", 29 April 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On-the-stance-of-the-RCWP-on-the-imperialist-war-in-Ukraine/; KKE: On the unacceptable stance of the RCWP towards KKE, 03.06.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On-the-unacceptable-stance-of-the-RCWP-towards-KKE/

20) 다음을 보라. The KKE denounces the sending of weapons to Ukraine by the Greek government, 09.06.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The-KKE-denounces-the-sending-of-weapons-to-Ukraine-by-the-Greek-government/

KKE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이와 같이 핵심 본질에서는, 바로 그 동일한 제국주의 강대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들 –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같은 – 을 방어하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KKE가 러시아를 "덜 악랄한" 제국주의, "차악" 제국주의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6. IMT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덜 반동적인 제국주의"론

앨런 우즈와 그의 그룹이 이끄는 "국제맑스주의경향"(IMT)도 사실상 "차악" 제국주의론을 추구한다. IMT는 가끔씩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보통 그들의 기사 · 논설들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잊는다".[21]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IMT 문서 대부분은 서방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차악" 제국주의론의 IMT 버전은 미 제국주의가 러시아 제국주의보다 훨씬 더 악랄한 적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IM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조직의 주요 문서에서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22]

21)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리>, 2022년 3월 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1.html; <제국주의 차악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배신자 논리>, 2022년 6월 14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_6.html/.

22) IMT: The Ukrainian war: an internationalist class position, 01 March 2022, http://

이 정식(定式)의 의미는 분명하다.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일지라도, 미국보다는 "지구상에서 덜 반혁명적인 세력"이라는 것이다!

"더"와 "덜 반혁명적인" 강대국들이라는 그러한 수정주의적 개념에 근거할 때, IMT 지도부가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과 그들의 방위전쟁을 지지하는 것에 엄격하게 반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IMT 지도부는 러시아 제국주의나 우크라이나 인민이나 모두 똑같이 반동적이라고 간주한다. "이 전쟁은 양측 모두에서 반동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느 측도 지지할 수 없다."[23]

IMT의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제국주의의 대리전"에 불과하다. 즉 우크라이나 인민이 그들의 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는 푸틴의 시도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워싱턴의 종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 결국, IMT는 나토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 반동 요인으로 간주한다.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를 강대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방어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실상 IMT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미국 · 서유럽에 비해 "차악"으로 성격규정 하고 있다.

이런 낯 뜨거운 접근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고 판촉 캠페인을 벌인 최근 국제회의에 IMT 러시아 지부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 것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25]

실제로, IMT 지도부는 2014/15년 돈바스의 자칭 "인민공화국"들이 키이우 정부와 벌인 전쟁에서 전자를 지지했는데, 지금 그 동일한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26] IMT 지도부는 이 자칭 "인민공화국"들을 노동자계급 반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 군인 수천 명의 군사력에 기반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리인(proxy)이었다.[27]

16,000명에 이르는 러시아 군인이 주둔해 있었던 잘 알려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2014/15년 돈바스의 자칭 "인민공화국"들의 대리인 본질을 IMT가 부인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28] 이와 같

www.marxist.com/the-ukrainian-war-an-internationalist-class-position-imt-statement.htm; Alan Woods: The Ukrainian conflict: is this the start of World War III? 28 February 2022 https://www.marxist.com/the-ukrainian-conflict-is-this-the-start-of-world-war-iii.htm

23) 같은 글

24) Jorge Martn: Western imperialism turns to pessimism in Ukraine, IMT, 13 June 2022, https://www.marxist.com/western-imperialism-turns-to-pessimism-in-ukraine.htm

2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스탈린주의-"트로츠키주의" 회의에 대한 기사를 보라.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eter Mikhailenko: Perspectives for the People's Republics: The external and domestic struggle of the left and progressive forces, IMT, 15 December 2014, https://www.marxist.com/perspectives-for-the-peoples-republics-the-external-and-domestic-struggle-of-the-left-and-progressive-forces.htm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테제,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 왜 이 슬로건이 맑스주의 민족자결 강령에 반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현 민족해방투쟁의 이익에도 반하는지, 그 역사적·이론적·정치적 이유에 대하여>, 2022년 6월 2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html/; Petr Sedov: On the Donbass Uprising in Spring 2014. A necessary correction of our assessment of the early phase of the "anti-fascist" Uprising in the Eastern Ukraine, RCIT Russia,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considering-the-donbass-uprising-in-spring-2014/; Michael Pr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28) 3천-4천 명의 러시아 자원병 및 9천-1만2천 명의 정규군 수치가 서방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다음을 보라. Wikipedia: War in Donbas (2014–2022), https://en.wikipedia.org/wiki/War_in_Donbas_(2014%E2%80%932022). 이는 현실적인 평가로 보인다. 2017

이 부인하는 한편에서 IMT는 우크라이나를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한다. 서방 군사고문단 ‘수백’ 명이 현지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을 들어!

IMT의 친러 기회주의가 어디까지 나아갔나 보자면, 알렉세이 모즈고보이 (소위 “유령여단” 사령관) 같은 군벌을, “올리가르히에 대한 인민 계급전쟁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공산주의 영웅으로 치켜세울 정도로까지 나아갔다.[29] 우리는 상기한 공노당도 이 인사를 "자생적 공산주의자"로 불렀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가 다른 기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모즈고보이는 실제로는, 계급적 언사를 대러시아 배외주의 및 반유대주의와 혼합시킨 적–갈 동맹 주창자다. 그는 "유대인 나치"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계획" 하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대 혁명을 이룬 후 유대 테러"를 벌일 것이라며 반 우크라이나 배외주의를 고취했다. [여기서 모즈고보이가 말하는 “유대 혁명”은 2014년 2월의 유로마이단 시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인용자].[30]

7. 맺음말

년 4월에 러시아 병사 어머니 위원회 연합은 1,500명의 러시아 군인과 그 밖의 전투원들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을 보라. Sabine Fischer: The Donbas Conflict. Opposing Interests and Narratives, Difficult Peace Process, SWP Research Paper 2019/RP 05, 17.04.2019, p. 9, https://www.swp-berlin.org/10.18449/2019RP05/)

29) Ben Gliniecki: Ukraine after the ceasefire: contradictions pile up, 26 Feb 2015, IMT, https://www.socialist.net/ukraine-after-the-ceasefire-contradictions-pile-up.htm

30) 다음에서 인용. Дневник комбрига. Алексей Мозговой, 22.06.2016, http://rusdozor.ru/2016/06/22/dnevnik-kombriga-aleksej-mozgovoj/ (영역은 필자).

우리의 주요 결론을 몇 개의 테제로 요약해보겠다.

1. "차악" 제국주의론은 원칙적으로 틀린 이론이다. 더 강한 제국주의 국가와 더 약한 제국주의 국가가, 더 큰 제국주의 국가와 더 작은 제국주의 국가가 있다. 그들 중 "차악"은 없다. 어느 측도 “차악”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적이다. 미국에 의한 수년간의 침략전쟁과 점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간과 이라크의 인민들이나, 러시아에 의한 침략전쟁과 점령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체첸과 시리아의 인민들이나 모두가 양 제국주의 열강의 똑같이 범죄적인 성격을 증언한다.

2.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들 제국주의 국가 중 어느 하나에 지지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하고 이들 국가의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억압받는 것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사회배외주의로 성격규정 한다. 1차 세계대전 이래로 사민주의가 실행했고, 1930년대 이래로는 스탈린주의가 이어받아 실행에 옮긴 그 사회배주의 정책 말이다.

3. RCIT는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제창한다. 이는 강대국 간 충돌에서 어느 측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 모두 적이고, 노동자계급은 이들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4. 피억압 인민을 적으로 한 강대국의 공격 시에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고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를 공공연하게 내걸 것을 요구한다.

5. 그러므로 RCIT는 "차악" 제국주의론을 유보 없이 비난하

는 바다. 우리는 러시아가 그러한 "차악" 제국주의 열강이라며 ('비판적') 지지를 주는 각종 스탈린주의 및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세력들 – 공노당(러시아), KKE(그리스), IMT와 같은 – 의 입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이 입장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반동적 역할을 경시하는 구실로 봉사할 뿐이다. 이 수정주의 이론의 실천적 결론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반동적 침략전쟁에 대한 공공연한 지지 (공노당)이거나, 아니면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처럼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저항에 대한 적대와 비난 (KKE, IMT)이거나 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국제서기
2022년 9월 13일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반식민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을 "제국주의 대리전쟁"이라며 이 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는 트로츠키주의 자임 조직들에 대해 그 기회주의성을 우리가 비판한 바 있다. 국제사회주의대안(ISA)과 클리프파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그들인데, 이 흐름에 최근 PTS/FT도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PTS(사회주의노동자당)를 최대 조직으로 하는 국제 조직 "트로츠키주의 분파Trotskyist Faction"(FT)가 우크라이나 방어 입장에 비판적인 논설을 최근 냈다. 또 하나의 국제 트로츠키주의 조류인 LIT-CI (국제노동자동맹 - 제4인터내셔널)가 푸틴의 침략에 반대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LIT-CI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FT/PTS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편 들길 거부하고 부끄러운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의 연장선에서 결국 그러한 공격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1]

그와는 달리, RCIT와 RCIT 러시아 동지들은 개전 당초부터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해왔다. 다음 슬로건에 우리의 입장을 요약해 놓고 있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며,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RCIT의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2] 여기서는 FT/PTS의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FT/PTS의 비판을 오류로 간주하며,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한다는 기본 입장을 LIT-CI와 공유한다. 이러한 입장 일치는 개전 직후 우리가 LIT-CI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으로 표현되었다.[3] 그리고 그러한 동의에 바탕해서 우리는 LIT-CI 동지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저항

1) Sam Carliner: The Imperialist Role of Weapons to Ukraine — a Debate with Workers' Voice, September 1, 2022, https://www.leftvoice.org/the-imperialist-role-of-weapons-to-ukraine-a-debate-with-workers-voice/;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논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3) 우크라이나 전쟁 공동성명, 2022년 3월 13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ukraine-war-13-3-2022/#anker_4/; 다음도 보라. https://uit-ci.org/index.php/2022/03/14/ukraine-international-appeal-by-various-organisations/?lang=en

투쟁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호송대를 조직했다.[4]

우리와는 반대로 FT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이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와 관련, 그들은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획득 권리, 즉 서방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얻을 권리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LIT-CI를 비판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공격 작전이 반동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대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다. 러시아는 극도로 불평등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나라다. 한편으로는, 핵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고 석유 판매 재원으로 구축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경제는 자본주의 복고 이후 생산력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주로 석유 수출국으로 변모해버려 서방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분석에 입각하여 우리는 무엇이 현 충돌을 낳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서방의 최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대리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PTS/FT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다

평가분석도, 강령적 결론도 모두 틀렸다.[5] 우리가 여러 포괄적인 조사연구 문서들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는 자본주의 복고 이후 2십년 만에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 실로 러시아는 경제 영역에서보다 군사 면에서 더 강한, 불균등 발전을 이룬 제국주의 열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등성은 예외가 아니며,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보는 우리의 평가분석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른 제국주의 열강 –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일본 같은 – 도 불균등 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사력보다 경제 면에서 훨씬 강하다는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지난 6개월은 군사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러시아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2월 24일 직후, 서방 열강은 러시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서방 정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이 경제 공세를 견뎌냈다.[6]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onvoy and Conference on MayDay 2022 in Ukraine, 4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anker_1; 우리의 연대 활동을 개괄해 놓은 다음 글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 다음도 보라. Ukraine War: Interview with CSP-Conlutas (Brazil) on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anker_32

5)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T/PTS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본 책자에도 수록).

6)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래로 강대국들 간 제재 전쟁과 세력관계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G-7 Oil Price Cap: A New Stage in the Great Power Rivalry. The Cold War between the Western powers and their Eastern rivals points towards escalation, 7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7-oil-price-cap-a-new-stage-in-the-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 Western Boycott of Western Sanctions? A new report reveals that Western exports to Russia have increased in the past months despite the official policy of boycott, 20 August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boycott-of-western-sanctions/; "We are not winning". A disillusioned balance sheet of the EU's Foreign Minister on the West's decline in world politics, 12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borrell-we-are-not-winning/; Is Europe's Ruling Class About to Declare a War Economy? On a programmatic article by an imperialist ideologist on the consequences of the Great Power rivalry, 7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is-europe-s-ruling-class-about-to-declare-a-war-economy/; <G-20: 외교 지형에서의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말 나온 김에 우리는 LIT-CI 동지들이 불행히도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평가분석을 FT/PTS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LIT-CI 동지들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LIT-CI는 심지어 터무니없게도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시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를 방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7]

역시 불행하게도 FT/PTS 동지들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해방투쟁은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는 - 부분적인 승리조차도 -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간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역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목표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언명은 우크라이나의 방위전쟁이 서방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기를 거부하는 우크라이나 인

- 최근 G20에서의 사태발전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2022년 4월 2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g-20.html/;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곧 친러 사회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 LIT-CI: 러시아는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나라이므로 필요할 경우 "러시아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하다>, 2022년 3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2.html; Russia "Dependent on Western Imperialism"? Critical remarks on the LIT-CI statement o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4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ritical-remarks-on-lit-ci-statement-on-the-current-nato-russia-conflict/

민의 자기 결의에 의해서 수행되고 추동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오류다. 다른 많은 나라들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체첸, 시리아와 같은 – 에서 인민들이 제국주의 침략자에 반대한 것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으로 같은 정당한 이유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역사 전체가 러시아 지배에 반대하는 역사다!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항할 수 있었고, 나아가 처음에 키예프 지역과 최근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크라이나 방위 전쟁의 인민적 성격을 강하게 확인해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해 놓은 바 있다. "최종적으로, 그 어느 전쟁에서든 승리는 전장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대중을 고무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기세에 달려 있다. 이 전쟁이 정의로운 대의 속에 있다는 확신과 형제들이 무사하기 위해선 내 목숨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은 싸우는 사람들의 사기를 강화하고 믿을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8]훨씬 더 강한 적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영웅적인 저항은 이 언명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FT/PTS의 주장은 그들의 접근태도 전체를 완전한 모순에 빠뜨린다. 우크라이나가 단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일 뿐이고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FT/PTS 동지들은 왜 "제국주의 대리인" 우크라이나에 맞서 "비제국주의"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일관된 – 물론 일관되게 반혁명적이지만 – 결론이지 않은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나라의 스탈린주의 당들과 카스트로-차베스주의 당들이 그러한 무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V.I. Lenin: Speech at an Enlarged Conference of Workers and Red Army Men in Rogozhsko-Simonovsky District of Moscow, May 13, 1920; in: LCW 31, p. 137

피억압 인민이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FT/PTS 동지들은 (다행히) 그러한 무도한 결론을 도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피흘리게 하는 행동을 제창한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더 이상의 무기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을 막은 유럽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을 환영한다. 무기 면에서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를 감안할 때, 그 같은 반동적인 정책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예속시키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토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받는 것은 자동으로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대리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기는 무기 산업에서 생산되고 이 무기 산업 대부분은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나라들 (즉 제국주의 국가들)에 입지해 있다. FT/PTS와 같은 "맑스주의자들"이 피억압 인민의 무력은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얻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유일한 정당한 반제국주의 정책은 '무기의 평화주의적 포기다' 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객관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피억압 인민은 자발적으로 크리스마스에 찬성투표 하는 칠면조가 되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들만 이유 없이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여러 기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가능한 어디로 부터든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포함하여) 무기를 얻을 피억압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언제나 맑스주의 고전 스승들의 입장이었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1차 세계대전 동안 아일랜드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아일랜드 인민이 제국주의 독일로부터 무기를 얻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를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1935년 제국주의 이탈리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에티오피아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중국도 모두 같은 경우였다. 많은 경우, 피억압 인민은 부르주아 세력이 지도부로 있는 한계를 안고 있는 해방투쟁에서 싸웠고, 침략자의 반대 진영에 있는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9]

우크라이나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과 점령 하에 있는 어느 인민과 마찬가지로 같은 권리가, 즉 어디로부터든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도 포함하여) 무기를 얻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FT/PTS의 비판은 절대적으로 틀렸으며, 서방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얻을 우크라이나의 권리에 대한 LTI-CI 동지들의 옹호는 옳다.

물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태전개에 최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무기를 보내는 것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한 답이 무기를 얻는 것에서 기권하는 데에 있지 않다. 무기 없이 우크라이나는 싸울 수 없다. 답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서방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나토와 부르주아 · 친제국주의 젤렌스키 정부 둘 다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대오 수립을 제창해야 한다. 무기 얻을 권리의 기권, 포기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독자화가 답이다. 노동자 · 민중 평회의와 프롤레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본 책자에도 수록).

타리아 민병 구성을 위한 투쟁에 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조직이 존재하게 될 때까지는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자를 지지하길 미루고 대기해야 할 것인가? 피억압 인민의 민족 투쟁 · 민주주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하며, 그 투쟁이 설사 부르주아 세력의 지도하에 있더라도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의 ABC다. (낙태의 권리 방어 투쟁이나 이슬람 혐오증 반대 투쟁 같은 민주주의 투쟁들도 그러하다).

언제나 RCIT는 나토 제국주의의 개입을 경고해 왔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동서 어느 강대국에든 지지를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원칙한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한 제국주의 진영이 다른 제국주의 진영을 상대로 벌이는 제재 전쟁을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LIT-CI는 서방 제국주의의 대러 제재를 지지하고 심지어는 이 제재의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서방 제국주의에 심각한 기회주의적 양보를 한다. (이상하게도 FT/PTS 논설은 LIT-CI의 이 오류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고 있다!).[10]

10)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Ukraine War: Revolutionary Defensism and Non-Revolutionary Defens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which falsely combines its defence of the Ukraine with support for Western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Russia, 15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revolutionary-defensism-and-non-revolutionary-defensism/; 같은 저자: Ukraine War: Supporting Western Sanctions Is Impermissible for Socialists! Support for the Ukrainian resistance must be combined with consistent anti-imperial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1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supporting-western-sanctions-is-impermissible-for-socialists/; Can Socialists Support Imperialist Sanctions? The “Fourth International” in the tradition of Pablo and Mandel supports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4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socialists-support-imperialist-sanctions/; <절박하다고 제국주의 제재나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왜 이에 대해 반대하는가?>, 2022년 4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47.html/.

결론

현 충돌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겠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RCIT는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두었다.

>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 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일탈 -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일탈이든 -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양대 강대국 진영 간 긴장 고조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 미국 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 - 를 이용하려고 한다."[11]

11)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본 책자에도 수록).

현 충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이 선언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다.

이러한 평가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 전쟁이 진보적이고 정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시에, 우리는 또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반동적 성격도 인식한다. 이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나토와 러시아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FT/PTS 동지들과 LIT-CI 동지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들의 평가분석과 전술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진지한 토론이 차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극복하는 데 매우 유익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 점령지 “주민투표” 사기극 분쇄! “동원”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 긴급 성명
국제사무국 &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지부) 공동 발표
2022년 9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 www.socialisttendency.com

1. 지난 스물네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이 급격히 확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전환의 가장 최근 결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 9월 21일 아침 연설에서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 "현재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 무엇보다 군 복무 경험이 있고 일정한 군사적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있는 시민들에 한해 징병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병역소집 대상자들은 특별군사작전 경험을 고려해 추가 군사훈련을 받은 뒤 부대로 배치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틴이 연설 직후 서명하고 이미 발효된 해당 법령에는 '부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동원'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것은 이미 러시아 군대에 복무한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소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은 대러시아 배외주의 미사여구를 반복하면서, 이 결정으로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해방"하고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해방된 지역을 방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동원령 결정의 적법성을 강변했다.

3. 푸틴에 이어 연설을 한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특히 전투 경험과 군사 전문성을 갖춘 예비군 30만 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구는 러시아의 전쟁에 "선제적 군사작전"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발표하면서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 전체 및 나토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쇼이구는 또 지금까지 러시아군 5,937명이 전사했다고 말했다. (실제 수치는 확실히 훨씬 높다).

4. 물론 현시점에서는 이 전환의 결과들이 명확하지 않다. 푸틴 정권이 새 결정이나 작전 실패가 있을 때마다 매번 새 예비군을 소집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병력화 할 수 있는 일종의 파상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러시아가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전쟁에서 군대를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5. 이 결정은 모든 면에서 본격적인 확전 결정이다. 정권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전쟁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 “고 러시아 사회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에 배외주의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청년들과 노동자들 속에서 반전 운동을 급진화 시키고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하고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회적 · 정치적 폭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의 이 반혁명 공세가 장기적 차원에서는 혁명적 위기 정세를 열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패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다.

6. 푸틴의 동원령은 지난 며칠 전개된 상황들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봐야 한다.

a) 크렘린궁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 루한스크, 헤르손,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 행정청들은 며칠 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이비 투표는 러시아의 이 지역 병합을 정식 승인하는 사기극이다. 푸틴의 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 지역들이 러시아로 통합되면 새로 변경된 국경은 "불가역적"이 될 것이고,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들을 방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한편 러시아 연방의회도 탈영이나 항복과 같은 "복무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또 싸우기를 거부하는 군인에 대한 최대 징역 10년형 법조항 도입을 표결했다. 나아가 "동원", "계엄법", "전시" 등의 개념을 형법에 도입하는 법안도 채택했다.

c) 이 두 조치는 "러시아 국민 재결합"을 주장하는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배외주의를 강화시킨다.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국을 방위하고 있다"고 푸틴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틀도 만들어준다. 이것은 러시아 군 지휘부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징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푸틴 정권은 공식적으로 총동원을 발표하지 않고도 병력을 증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규모 인력난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

7. 이들 조치는 푸틴의 반동 전쟁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한다. 전쟁이 7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인민을 예속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저항군의 성공은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푸틴 정권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쟁 반대론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회의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러시아의 초대형 팝스타 알라 푸가체바의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이를 보여주는 한 징표다. 동시에 군의 작전 실패와 후퇴가 그 동안 총동원과 "전면전"을 요구해온 제국주의–배외주의 진영 강경파들 (이고르 스트렐코프와 그 밖의 군사 블로거들)의 격렬한 항의를 또한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해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신이 이 작전 실패와 후퇴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실추되고 있다.

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지표는 푸틴의 가장 가까운 맹우인 벨로루시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모든 보안 기관에 동원령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루카셴코가 계엄령 발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9. 러시아 연방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http://vote.duma.gov.ru/vote/119074). 한 명이 기권했는데 "정의 러시아당" 소속 의원이

다.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 – 푸틴의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대러시아 배외주의 전통의 사회제국주의 당 – 소속 의원 50명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투표 했다. (7명은 불출석했다). 이 당 의원 두 명은 심지어 새 법을 정식 도입한 의원단의 일원이다. 푸틴의 식민지 전쟁 확전에 대한 이러한 후안무치한 지지는 이 당의 극 반동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10.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동맹(RCIT 러시아 지부)은 모든 진보적 노동자 · 민중 조직들에게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배전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 전쟁 그 첫날부터 제창해온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외쳐본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11. 우리는 "민족자결권"을 구실로 우크라이나 일부의 러시아 병합을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것은 레닌의 민족자결 입장에 대한 가증스런 왜곡이다. 민족자결권은 피억압 민족의 기본권이다. 민족자결권은 억압 민족, 억압자 집단의 권리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건너온 정착민의 권리 또한 아니며, 더 더욱이 제국주의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 1938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슈데텐–독일계 지역을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여 싸운 이유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언제나 RCIT는 이스라엘 유대인,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아프리카 나라들의 백인 정착민 등과 같은 억압자 집단의 "민족자결권"에 반대해왔다.

12. 우리는 모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배외주의자들 및 투항자들과 단절하고 진정한 국제주의자 · 반제국주의자 대열에 합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html/). 동지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혁명세계당 건설에 RCIT와 함께 함께 하자!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 현 단계에서 패전주의 강령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알렉세이 세도프/ 데니스 소콜로프/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RCIT)
2022년 9월 28일

<차례>

1. 동원령이 러시아 사회에 미친 충격파
2.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3. 동원령 반대 투쟁과 혁명적 전술
4. 2022년 동원령과 1914년 동원령: 전술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나
5. 러시아 내 피억압 소민족들도 이 투쟁의 주체다
6. 대러시아 사회제국주의자와의 투쟁

1. 동원령이 러시아 사회에 미친 충격파

푸틴의 동원령이 – 우크라이나 일부에 대한 병합 책동과 결합하여 –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단계를 열었다. 이 동원 체제가 러시아 국내 정치 상황에 미칠 결과를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1] 이 글에서는 푸틴 정권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반복하기보다는 혁명가들의 당면 전술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동원령과 병합 책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드러내준다는 것을 확인하며 논의를 시작하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 식민 전쟁이다.[2] 동시에 이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 간 강대국 패권경쟁과 결합된 전쟁이다. 현 충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부터 이중적 전술이 나온다. RCIT가 개전 당초부터 제창해 온 다음과 같은 이중적 전술이 그것이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3]

푸틴의 동원령은 당연히 러시아군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회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동원령은 1999년 푸틴 정권이 출범한 이래 시행해온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를 마침내 산산조각 냈다. “국민들은 그저 소극적으로 지내고 정권의 정책을 묵인하면, 그 대가로 정권은 개인 삶에 너무 간섭하지 않으며 상대적인 경제적 · 사회적 안정을 확보해 줄 것이

1) RCIT: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 점령지 “주민투표” 사기극 분쇄! “동원” 반대!>, 2022년 9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25.html/. (본 책자에도 수록).

2)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우리의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3)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 게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다”라는 사회계약이 이번 동원 체제로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패권경쟁의 (혹독한 서방 제재를 수반한) 가속화가 이미 이 '모델'을 파탄 냈다. 그러나 제재가 불편을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직접적으로 전쟁 수행에 기여하도록 요청받지는 않아서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제 30만 명의 (또는 그 이상의) 신병을 충원한다는 푸틴의 동원령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동원 체제는 러시아 사회에 일대 충격이며 정치적 모순을 대대적으로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국내 상황을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당시 많은 수의 징병자들이 동남아시아 배치에 직면하자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급증했다. 다만 오늘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미국은 아직 경제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부유한 나라였다.

반동적인, 부정의(不正義)의 전쟁이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와는 달리 정의의 전쟁은 인민 속에서 더 강한 단결을 불러일으킨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조차도, 그리고 전쟁 지도부가 부르주아적 성격의 지도부인 경우라도 그러하다. 현 전쟁은 이 진실을 강하게 확인시켜 준다. 정권이 잔학한 식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개전 당일인 2월 24일 이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이제, 푸틴의 동원령 속에서 이러한 시위는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반전” 운동도 없었다. 침공을 맞은 바로 첫날부터 대규모 동원령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사람들이 나라가 식민 예속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침략을 분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2.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푸틴 동원령 관련 성명에서 이렇게 적시해 놓았다. “정권의 이 반혁명 공세가 장기적 차원에서는 혁명적 위기 정세를 열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패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이 우리의 예측을 확인해주는 것 같다. 동원에 반대하는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시위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는 특히 징병으로 훨씬 더 많은 타격을 입는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BBC 러시아 지국 집계에 따르면, 최소 301명의 다게스탄 (카프카스 내의 주로 무슬림 지방) 출신 병사들이 전사했다. 러시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며, 인구가 5배 많은 모스크바 출신 사망자 수에 비해 10배가 넘는 숫자다.[4]

러시아의 독립 인권 단체인 ОВД-뉴스의 계산에 따르면, 9월 25일 최소 35개 소수 민족 정착촌에서, 그리고 9월 26일 최소 10개 정착촌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다게스탄의 마을인 엔디레즈 주민들은 도로를 막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경찰의 경고 사격을 불러왔다. 같은 다게스탄의 주도인 마하치칼라에서는 여성들이 군중을 이뤄 "전쟁 반대!"를 외쳤다.

또 다른 북 카프카스 지역인 카바르디노-발카리아에서도 거리

4) Al Jazeera: ‘No to war!’: Anger over troop conscription rages in Russia. 26 September 20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26/no-to-war-anger-over-troop-conscription-rages-in-russia/.

시위가 있었다. 시베리아 도시 야쿠츠크에서도 여성들이 "학살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몽골인 주민 지역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우류핀스크 (볼고그라드 주)와 루자에프카 (모르도비야공화국)에서 러시아 징집센터들이 화재로 불탔다. 랴잔 주에서 러시아 남성 1명이 분신하는 등 동원된 남성들이 동원령에 항의하며 자해를 했다. 시베리아 도시 우스트-일림스크에서 한 청년이 징집센터에 들어와 군 지휘관을 근접거리에서 총으로 쐈다.[5]

이에 더해 수천 명의 징집 연령대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고자 공항과 러시아 육로 국경 지대로 몰려들었다.

간단히 말해서, 푸틴의 동원 체제는 사회적 폭발을 유발하고 조만간 혁명적 정세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심지어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푸틴이 "동원령을 발포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안으면서 지지를 잃어가며, 혁명 전야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6]

3. 동원 체제에 반대하는 대중시위와 혁명적 전술

이러한 사태발전이 혁명가들의 전술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RCIT의 성격규정을 강하게 확인시켜 준다. 즉 철두철미 반동적인 식민 침략전쟁 – 이 전쟁에서 맑스주의자

5)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에 대한 정규 보도로는 다음을 보라. ОВД-News (https://ovd.news) 및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https://www.understandingwar.org).

6)

가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방어하는 그러한 식민 침략전쟁 – 이라는 성격규정 말이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제창하는 이유다. 개전 며칠 뒤 발표한 RCIT <선언문>에 명기해 놓았듯이,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라는 원칙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세워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용기 있는 반전 활동들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인민과의 연대를 촉구해야 한다. 푸틴 정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자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다.
>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총구를 돌릴 것을 촉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푸틴 정권의 혁명적 위기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몇 주 전 토카예프 정권을 도와 카자흐스탄 민중봉기를 진압한 러시아 주도 군사동맹 CSTO의 해체를 요구한다.
>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과 그 2중대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라는 대러시아 배외주의 구호가 러시아의 대중을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위험한 덫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7]

이러한 접근태도는 다음과 같은 볼셰비키당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 "각개의 나라에서 혁명적 선전의 결과로 그 나라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 군대의 패배는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 정부가 억압하는 민족들의 해방을 촉진하며,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을 용이하게 한다.
> 이 명제는 러시아와 관련하여 특히 진실이다. 러시아의 승리는 그에 따라 반동의 강화 – 전 세계에서나 러시아 내에서나 모두 – 를 가져올 것이고, 이미 점령

7)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된 지역들에 살고 있는 인민들의 완전한 예속을 동반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패배하는 쪽이 모든 조건에서 해악이 가장 작은 길이라고 생각한다."[8]

레닌이 이 글을 쓴 것은 1차 세계대전 중, 즉 교전국 모든 측에서 다 반동적인 전쟁이었던 1차 제국주의 전쟁 중에서였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닌의 이러한 입장은 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전쟁이 러시아 측에서만 반동적인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정당한 전쟁인 현 전쟁과 같은 충돌 · 분쟁들에서는 말이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강령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잘 안다. 동원에 반대하는 대중시위를 지지 지원하고 확대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일차로 요구된다. 사회주의자들이 군대 내에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동 전쟁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고 사보타쥬 하여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돕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참호에서 동료들에게 우리의 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푸틴 정권이라고 – 신중하게, 참을성 있게 – 설명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인민과 파르티잔들과 병사들과의 친교를 가지도록 고취시킬 것이다.[9]

4. 2022년 동원령과 1914년 동원령: 전술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할 것을 독자에게 요청하고자 한다. 먼저, 푸틴의 동원령으로 촉발된 정세의 특수성이다. 최근 며칠 동안의 사건들을 보면, 현 상황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군 지휘부가 미국 청년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베트남 전쟁 첫 단계와도 다르다.

1914년에는 대규모 시위가 없었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징병 소집을 (많은 경우 열의가 없는 채로였지만) 받아들였다. "조국" 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들이 일정 정도 퍼져 있었다. 물론 이것이 볼셰비키 당의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영웅적인 분투를 막지는 못했다.[10] 그러나 초기에는 인민대중 대다수가 차르 전제정의 전쟁몰이 정책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였다.

오늘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대중의 상당 부분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애국자"일 수 있지만, 푸틴 정권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 생각하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의 대중들 사이에서 푸틴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민적 열정은 거의 없다.

1914년 상황과의 이 같은 대조는 기본적으로 두 전쟁의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한다. 1차 세계대전은 양측 (러시아를 포함하는 "연합국 측과" 동맹국 "측) 모두에서 반동적인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르다.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주의 측에서는 반동 전쟁이지만 우크라이나 인민 측에서는 정의의 전

8)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6쪽.

9)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로는,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의 3부를 보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10) 관련 문헌에 대한 간략한 개괄에 대해서는, 위의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에 있는 <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볼셰비키 선동> 장을 보라.

쟁이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인민적 지지는 훨씬 적고 저항은 훨씬 크다.

그러한 차이는 혁명적 전술에 심중한 결과를 미친다. 거의 모든 징집병들이 징집 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징집병들에 합류하여 함께 군 복무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물론,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의연히 사회주의 강령에 충실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기 위해 분투할 것이고, 마침내 병사들이 총구를 돌릴 수 있도록 조직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혁명가들이 오늘 러시아 군대에 징집된다면, 그들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동원령이 있고 난 현 상황의 특수성은 자연발생적인 대중 저항에 의해 이 동원령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의 우선적 임무는 '징집 명령 거부/ 동원 반대' 선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든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의 그러한 활동을 고취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러한 대중 저항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을 강력히 돕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리 해야 한다.

5. 러시아 내 피억압 소민족들도 이 투쟁의 주체다

현 상황의 두 번째 특수성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소수민족 지역들이 동원령에 대한 적극적인 인민적 저항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족 소수자들이 처해 있는 억압적인 조건의 결과물이다. 러시아 내 소 민족들은 민족 소수자로 차별받고 있고, 많은 경우 궁핍한 조건 하에서 살고 있다. 어느 경우는 끔찍한 폭정의 조건 하에서 살아야만 하는 소민족들도 있다. 도살자 카디로프의 압제 하에 있는 체첸 인민이 그 같은 경우다. 게다가 소민족들은 러시아 사회의 여타 부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는다. 이것이 폭발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지난 며칠 보도 중에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지난주 몽골로 도망친 한 남자의 말이 나온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이 전쟁의 총알받이에요. 그냥 자원일 뿐입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이 마구 팔리고 있어요. 목재와 광물이 팔려나가고 토지도 50년 동안 임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한갓 자원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11] 피억압의 민족 소수자들이 러시아 국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언제나 RCIT는 소 민족들이 전체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러시아에서 민족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12] 위에서 언급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RCIT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자결을 위한 체첸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본다. 체첸인들은 그들 자신의 독립 국가를 갖길 원한다는 것을 지난 저항투쟁으로 증명했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여망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또 도살자 아사드와 그의 러시아 상전에 대항하는 시리아 인민의 해방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서방과 중 러 제국주의자들은 다양한 무슬림인들과 민족 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억압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슬림인들은 다른 피억압 민족들처럼 모든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반

11) 다음에서 인용. Dasha Litvinova: Putin's call-up fuels Russians' anger, protests and violence

12)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정립한 201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제국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동맹군들이다!" [13]

피억압 민족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이러한 반제국주의 입장은 반전 활동이 이들 지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러시아 국가 내 피억압 민족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침략을 맞은 또 다른 민족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우크라이나 인민과 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은 푸틴 정권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내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그들 피억압 인민들에게 매우 유리할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자' 국 지배계급에 의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과 레닌이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레닌은 '자'국 부르주아지의 패배는 노동자계급 ·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대러시아인은 어느 전쟁에서든 차리즘의 패배 (대러시아 주민의 10분의 9에게는 해악이 가장 적은)를 바라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는 '조국 방어'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차리즘은 이 10분의 9 주민을 경제적 · 정치적으로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타 민족을 억압하도록 가르치고, 이 수치스런 짓을 위선적이고 사이비 애국적인 언사로 덮어 감추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모욕감과 불명예를 안기고, 그들을 타락, 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14]

13)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14) 레닌, <대러시아인의 민족적 긍지에 대하여>,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174쪽.

"차리즘"이라는 단어를 "푸틴 정권"으로 대체하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정을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민족 문제와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러시아의 혁명가들은 소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가장 확고한 옹호자가 되어야 하며, 평등과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의 최선두 제창자가 되어야 한다. 또 민족 소수자가 독립 국가 창설을 원한다면 그러한 바람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힘주어 밝혀두어야 한다.

체첸 인민처럼 이러한 바람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우,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케리아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용기 있는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만이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민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6. 대러시아 사회제국주의자와의 투쟁

민족 문제의 중요성은 러시아의 혁명가들에게 또 다른 투쟁 과제를 절박하게 제기한다. 모든 대(大)러시아 사회제국주의 제창자들과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들 세력에게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고 투항하는 자들과의 투쟁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밝혀둔 바 있다.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분리의 자유를 요구하는 데 실패하는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배외주의자들처럼,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 된 제국주의 군주제들과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시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이 사회주의자의 임무

다."[15]

주가노프의 스탈린주의 KPRF (러시아연방 "공산" 당)가 푸틴의 전쟁을 전면 지지하고 "루스키 미르" 사회배외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오늘, 레닌의 이러한 언명은 당시 못지않게 진실이다. 공노당(RKRP)과 OKP 같은 보다 소규모의 스탈린주의 당들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회제국주의 노선을 공유한다. IMT 러시아 지부와 같은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은 KPRF에 영합하여 최근 지방선거에서 KPRF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했다. (그 중 한 명이 당선되어 모스크바 시의회에서 KPRF 의원단 일원이 되었다.)[16]

이 세력들은 위 인용문에서 레닌이 말하는 사회배외주의자들처럼 행동한다. 푸틴 전쟁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지지자들과 싸우는 것 없이는 푸틴의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 사회제국주의 세력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들과 싸우는 것 없이는 사회제국주의 세력을 밀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에게 "루스키 미르" 사회배외주의자들과의 더러운 협력으로 공산주의를 오염시키는 자들과 단호하게 단절해야 한다고 재차 호소하는 바다. RCIT 러시아 지부 사회주의동맹 동지들은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15) V.I. Lenin: The Socialist Revolution and the Right of Nations to Self-Determination (1916), in: LCW Vol. 22, p. 154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Zyuganov's Servants. IMT leaders in Russia join list of Zyuganov's KPRF – Putin's pro-war "communists" – for upcoming municipal elections, 25 August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zyuganov-s-servants-imt-russia/; 같은 저자: <점령지 우크라이나 인민은 정말 러시아에 의한 병합을 원하는가? – 앨런 우즈의 IMT가 푸틴의 동원령을 맞아 친러 사회제국주에 대한 영합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2022년 9월 2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23.html/.

공개서한>을 통해 사회제국주의와 배외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7] 우리는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에게 그러한 일관된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17)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단결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우자!>, 2022년 7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html/.

▌발행일 | 2022년 11월 12일
▌발행인 | 노동자혁명당(준)